

“한국 제약기술의 자부심”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최첨단 연구센터 개관

경기도 기흥에 2004년 개관한 최첨단 연구센터에서는 신약,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 고난이도 퍼스트제네릭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로 한미약품이 미래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국적사에 기술수출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1989년 스위스 로슈사에 「세프트리악손」 제법기술을 미화 600만달러에 기술수출하였고,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사에 「마이크로에멀전」 제제기술을 미화 6,300만달러에 기술수출 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에 획을 긋는 로열티 수입을 창출하였다.

개량기술, 개량신약 개발의 선두주자

고난이도의 합성기술, 다양한 제제화 및 DDS 개발 등 최첨단의 개량기술 개발과 신규 염 개량신약인 「아모디핀 정」, 「슬리머 캡셀」 등의 연이은 개발로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 업계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항암제 신약개발 집중화 전략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의 임상시험 진입, 다중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전임상 시험 착수, 선택적 신호전달 차단제 후보물질의 전임상 시험 착수 등으로 한미약품은 특화된 항암제 분야에 신약개발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속성 단백질 기반기술 개발

새로운 재조합 캐리어의 개발을 통한 지속성 단백질 의약품 기반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단백질 의약품에 적용함으로써 수주에 한번의 투여만으로 충분한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차세대 단백질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세기 글로벌 제약기업으로의 도약

한미약품은 그동안의 개량기술 및 개량신약 개발에서 얻은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고, 국내외 우수한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를 통하여 21세기 신약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사회지

2007년 31호



국내 NSAIDs 처방약 1위!

신용자체 기술로 세계에서 두번째, 국내최초로 원료합성에 성공한 Propionic acid계의 새로운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입니다.



prodrug형 소염진통제

룩스펜 정

• High clinical effectiveness

염증을 수반하는 만성관절류마티스, 변형성슬관절증, 건관절주위염, 경건완증 후군 등에 항염효과가 우수하며, 관절연골을 보호하는 proteoglycan 생합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각종 관절염환자에 더욱 좋습니다.

• Rapid absorption and distribution

룩스펜정은 경구투여후 위장관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수술 및 각종 외상으로 인한 동통에 30분 이내에 강력하고 신속한 진통효과가 발생되고 ketoprofen, naproxen의 10-20배의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 Low ulcerogenicity

룩스펜정은 prodrug로서 위장점막자극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NSAIDs의 문제점인 위장장애가 거의 없어 안전하게 처방될 수 있습니다.

• Safety(2.95% Side Effect)

룩스펜정은 11,702명을 대상으로 한 다기관 임상시험결과 2.95%인 345명의 환자에서만 경미한 부작용이 발생한 안전한 진통소염제입니다.



- 효능. 효과 : 만성류마티스관절염, 변형성관절증, 오통, 건관절주위염, 경건완증후군, 수술후, 발치후의 소염진통, 급성상기도염, 해열진통
- 용법. 용량 : 1회 1정씩 1일 3회, 1회 요법시 1-2정 경구투여

 **신풍제약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목내동 434-4 • <http://www.shinpoong.co.kr>

경북의사회지

2007년 31호



경상북도의회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이원기
경상북도의회 회장

2007년 정해년을 맞이하여 의사선생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겨울 가뭄에 목이 타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더니 겨우내 움츠렸던 매화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는 이때, 현실의 답답함을 잊고 잠시나마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소식 『경북의사회지』 제31호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의사회지』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시면서 진솔하게 표현한 일상의 느낌을 담은 책으로, 이제 '제31호'를 거듭하는 동안 청국장 같이 구수한 사람냄새 물씬 나는 종합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지난 해 4월 출범한 저희 집행부는 2,500회원의 권익과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춘·추계학술대회와 회원 및 가족을 위한 경북의학제, 등반대회와 자선음악회 등의 친선행사와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개안수술, 불우이웃돕기 등 대내외적인 의료봉사로 경북의사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 자주 문안을 올려 어려운 의료 현안에 대해 소상히 아뢰고, 회원님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의권'이 살아있고, 시·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상북도 의사회가 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집행부 임원들은 빈틈없이 계획하고 차

질 없이 진행해 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애정과 관심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현 정부는 졸속처리를 강행하려는 의료법개정,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과 성분명 처방 등 온갖 법령과 시행령으로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인으로서 자존심은 사라지고, 양심에 입각한, 교과서적인, 의사의 윤리에 맞는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우며, 의료사회주의 제도 하에 예측된 노동자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때일수록 사소한 일들로 인한 의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모든 회원들이 경륜과 힘을 모아 전 회원의 역량을 다시 한번 집결하여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와 투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8만5천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하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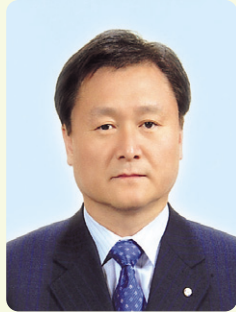
이번에 발간된 『경북의사회지』 제31호를 통하여 소홀했던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본회의 크고 작은 회무소식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소중한 옥고를 내어주신 많은 회원님들과 훌륭하고 조화롭게 회지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만큼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이 살아있는 그날을 위해 모두 단결합시다. 대선의 해를 맞이하여 금년 말,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의료 환경과 대-한민국의 승리의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단결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사고와 정서로



이석균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유난히 따뜻한 날씨 덕에 올 겨울은 매우 추위도 없이 후딱 지나간 듯 어느새 우수 경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과천대회를 마친 우리들의 가슴 속엔 계절의 훈기를 받아들일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한국 의료의 앞날을 걱정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진정성은, 이 정부의 서투른 포퓰리즘적 의료정책 앞에서 또 한번 집단이기주의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참담한 좌절의 뒷맛을 씹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경북도의사회는 이원기 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각종 현안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해 온 것을 이 지면을 빌어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이 회지가 발간된 것을 전 회원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 집행부가 시행해 오던 좋은 것들은 승계하면서도, 새롭게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이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협 중앙회의 회무 미숙으로부터 촉발된 일부 회원들의 회비납부 거부 움직임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는 향후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의사 단체의 단합에 큰 걸림돌이 될 자해행위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계절의 추이를 통해 자연도 변화하고 순환하면서 생명력을 키워 가는 데, 우리의 마음이 늘 불만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간의 생명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릴까?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더라도, 우리 의사들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위탁받

은 사람들이기에 파괴적인 생각보다는 늘 창조적이고도, 생산적인 사고와 정서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적 특성상 늘 바쁘고 단조로운 일상에 매몰되어 건전한 여가와 취미 활동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음은 참으로 희망적이고 고무할만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대의원총회와 때를 맞추어 발간되는 본 『경북의사회지』는 지난 한 해 본회의 활동을 기록한 역사 자료적 의미 뿐만 아니라 학술, 문화, 사회, 체육 등 전 회원들의 지,정,의 활동을 담는 귀한 그릇입니다.

역대 집행부가 하나하나 돌다리를 놓아가는 심정으로 발간해 온 『경북의사회지』가 어느덧 30년을 이어 왔으며, 금번에도 편집진이 새로이 교체되어 의욕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원들과 함께 반갑게 여기는 것은 적은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해를 거듭하면서 책의 걸모양이 더욱 참신해지고 거기에 담긴 내용 또한 날로 풍성해지고 재미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쇄 매체의 홍수 속에서 받아 읽는 사람은 잠시 읽다 던져 버리지만, 그 속엔 바쁜 진료 틈틈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한 편집위원들의 노고와 열정이 배어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그리고 인상 깊게 읽은 기사나 글에 대해 필자나 편집진에게 칭찬과 격려의 전화 한 통 화썸 보내주실 것도 권해 드립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핏속에 면면히 흐르는 이 지역의 선비정신을 오늘에 일깨우고, 창립 100주년을 목전에 둔 한국의협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많이 배출해 온 경북의사회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 『경북의사회지』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 회원들과 함께 회지 발간을 축하하며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 교류와 의사 소통의 장으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의사회지』 제31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들의 문예지이자 소식지로서 내실 있게 발전해온 『경북의사회지』가 앞으로도 회원간 정보 교류와 의사 소통의 장으로서 의사회의 결속과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합니다.

최근 들어 의료계는 정부의 줄속 의료법 개악 추진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질적인 저수가 체제와 악화되어가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등으로 의료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마당에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의사 죽이기의 완결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34년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은 국가 보건의료의 근간이자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실로 중차대한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검토 단계에 불과한 개정안을 마치 확정안인 것처럼 발표하여 일방적이고도 줄속적이며 비민주적인 법 개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임상진료지침과 같이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의료법의 목적 개정을 통한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투약을 누락시키고 진단을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등 의료체계를 완전

히 무너뜨리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해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악법이 바로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의 실체입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료를 사회주의화하고 국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는 의료법 개악에 맞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과 의대생, 의료인 가족, 그리고 범의료계가 연대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닥쳤지만 화합과 단결을 무기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의료법 개악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머리를 맞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경북의사회 회원 여러분께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가도에 앞장서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축하하며, 경북의사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발간사 |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 이원기 _ 2
- | 축사 | 창조적인 사고와 정서로 · 이석균 _ 4
정보 교류와 의사 소통의 장으로 · 장동익 _ 6

사진으로 본 2006년 경북의사회 _ 10

- | 초대사 | 겨울나무 · 박무근 _ 26 이름 없는 꽃 · 김용주 _ 28
- | 지상갤러리 | 손원숙 _ 29

특집 경북의사회 이색지내

- 우산국 복지부 장관 정만진 · 하달봉 _ 32
- 노래처럼 경쾌하게, 산 같이 진중하게 조충래 · 박정돈 _ 38
- 새벽에 눈물 보고 낮엔 환자 보고 박무영 · 권세홍 _ 43
- 철인(Ironman) 의사 송정근 · 이봉구 _ 48
- 여의도가 주목하는 시골의사 박경철 · 권세홍 _ 53



논단 시론

- | 논단 | 아리수(阿利水)와 서라벌(徐羅伐) · 백승인 _ 59
- | 시론 | 한국의정회 이대로 좋은가? · 변영우 _ 64
의료의 일원화에 관한 문헌 리뷰 · 김재왕 _ 68

회원 문예작품

- | 회원시 | 풍란 · 손장락 _ 76 수술실 · 안길룡 _ 77
꿈의 시절 외 1 · 김의홍 _ 78
의학계 삼행시 _ 80
- | 수필 | 나의 골프 이야기 · 추성수 _ 82 송이버섯 · 전경홍 _ 84
주말농장 · 윤용삼 _ 87 음식은 추억이다 · 김도형 _ 90
나의 프로 테스트 도전기 · 김수현 _ 94 어느 공무원 의사의 변 · 신혜련 _ 99
사람은 각각 다른 시계를 가지고 있다 · 전우진 _ 103
마음까지 봉합해 줄 수 있다면 · 원영준 _ 106
- | 편지 | 30년 전의 편지 · 이학서 _ 111 히말라야에 간 딸에게 · 전민 _ 116
- | 의료봉사 | 킬리만자로의 눈을 그리며 · 이경숙 _ 118 파키스탄 단기선교 보고 · 정용석 _ 124
- | 탐방기 | 독도를 다녀와서 · 엄철 _ 138
비단같은 금강, 금강같은 사람들 · 변영우 _ 140
- | 추도사 | 권창운 선배님을 기리며 · 이봉구 _ 142

회무소식(2006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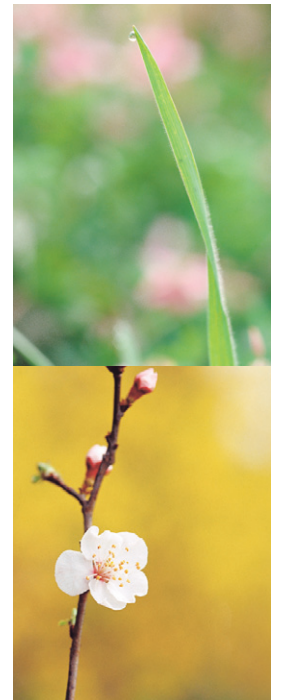
- 집행부 _ 145 대의원회 의장단 _ 146
- 법률 · 세무고문 _ 147 윤리위원 _ 147
- 시 · 군 의사회장 _ 148 사무 직원 _ 149

성명서 _ 181

회원 동정란 _ 18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 188

편집을 마치고 _ 190



제55차 정기대의원 총회

2006. 3. 29 제이스호텔



정기대의원총회 광경



의사윤리 선서를 하고 있는 대의원



1. 모범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2. 변영우 회장으로부터 대외인사에 감사장 수여
3. 의협회장 표창을 받은 천종욱·김재왕 회원
4. 경주시사회에 모범분회표창
5. 신임회장에게 회기 전달
6. 제40대 집행부 임원 기념 촬영



1



2



3



4



5



6

춘·추계 종합학술대회



• 춘계 : 2006. 5. 27~28(경주)
• 추계 : 2006. 11. 26(대구)



제28회 경북의학회
2006. 5. 28 경주 코오롱호텔

1. 개회사를 하고 있는 이원기 회장
2. 번외경기 파도타기
3. 차광국 회원의 선수 선서
4. 준비체조로 꼭지점 댄스
5. 제26회 바둑대회 광경



제28회 경북의학제



6. 제5회 골프피칭 경기
7. 제20회 윗놀이 대회
8. 제25회 탁구대회
9. 제5회 족구대회



10. 행운권 추첨
11. 제5회 전회원 줄다리기
12. 3행시 장원 정철 회원 가족
13. 종합우승을 차지한 서부지구
14. 제5회 테니스대회 우승팀
15. 제28회 경북의학제 기념 촬영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친선의 밤

2006. 5. 27 경주 코오롱호텔



1. 경주 서상철 회원
2. 포항 박화중 회원
3. 구미 김도권 회원
4. 영주 김경훈 회원 가족
5. 경주 임지훈 회원 가족



1



2



3



4



5



6



7

6. 회원 친선 행사 심사위원
7. 안동시의사회 남성중창단
8. 대상을 차지한 안동시의사회 기념 촬영



8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06. 5. 14 대둔산



제21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 행사
2006. 8. 26~27 울릉도



1. 울릉도 가는 길(전북 회원)
2. 싹플리워호 선장실에서
3. 제21회 영호남 친선행사 광경
4. 독도 도착 전 선상에서 환호 모습





5. 전북·경북의사회 회원 독도수호 결의대회
6. 독도경비대에 위문품 전달
7. 이원기 본회 회장
8. 정윤열 울릉군수
9. 유희탁 의협회장
10. 양형식 전북회장
11. 추산일가에서 점심식사 후 기념 촬영



대구·경북의사회와 함께하는 무료개안 수술



11월 11일 TBC 특집방송 출연 ▶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의사 쫓기대회
2007. 2. 11 과천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의사 쫓기대회
2007. 3. 21 과천



겨울나무

박무근

가는 길 아무리 어두워도
 겨울나무는 길을 묻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세상살이 살다보면
 캄캄한 날 한두 번이 아닌데
 얼마나 더 앞세는 시들고 떨어져야 하는지
 자 보아라
 앞세가 가는 길을
 그것은 짐 하나
 평 뚫린 허공에다 짐 하나 짚는거다
 그 짐 위에서 신발도 없이
 미동도 않고 겨울나무는
 외발로 서는 거다

가는 길 아무리 고달파도
 겨울나무는 바람의 등을 타지 않는다
 어떻게 가야하는지
 세상살이 가다보면
 맴찬 바람 부는 날 한두 번이 아닌데
 얼마나 더 가지는 꺾이고 끊어져야 하는지
 자 보아라
 가지가 만드는 흔적을

그것은 동심원 하나
 캄캄한 밀실에서 시뻘건 내공의 연륜을 그리는 거다
 그 동그라미 안에서 옷 한 벌 없이
 알몸 그대로 겨울나무는
 얼음두루마기 입고 가는 거다

가는 길 아무리 숲차도
 겨울나무는 젖은 눈을 닦지 않는다
 언제 가야하는지
 세상살이 뛰다보면
 가슴 답답한 날 한두 번이 아닌데
 얼마나 더 마음 조이고 탄식해야 하는지
 자 들어들어라
 가슴 두드리는 쇠소리를
 그것은 심장의 펌프질
 뺏속을 거쳐 머리까지
 다시금 생명수 퍼올리는 거다
 그 생명수 눈 적시는 날
 시린 하늘 가득 겨울나무는
 푸른 신호등 켜고 가는 거다

약력 / 1978년 『시문학』으로 등단하였고 <수화> 등인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포항 박무근비뇨기과의원 원장으로 있다.

이름 없는 꽃

김용주

이름 없는 꽃이 더 아름다운 것은 이름 안에 갇힌
 기억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란 하늘에 모든 것을 띄워 보내고 싶은 날에
 흘러가는 구름처럼 가물거리며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얼굴일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이름도 지워버리는 날을 기다립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에 이름이 없듯이
 세상 꽃 중에 이름 없는 것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만
 모르거나 아예 잊혀진 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약력 / 『한국시』 신인상으로 등단하였고, 시집 『목숨에게』, 『바다로 난 길』, 『느티나무숲』을 상재하였다.
 대구문인협회, 대구시인협회 회원으로 있으며, 경북의대 진단방사선과 교수로 재직하다 현재
 안동병원 영상의학 과장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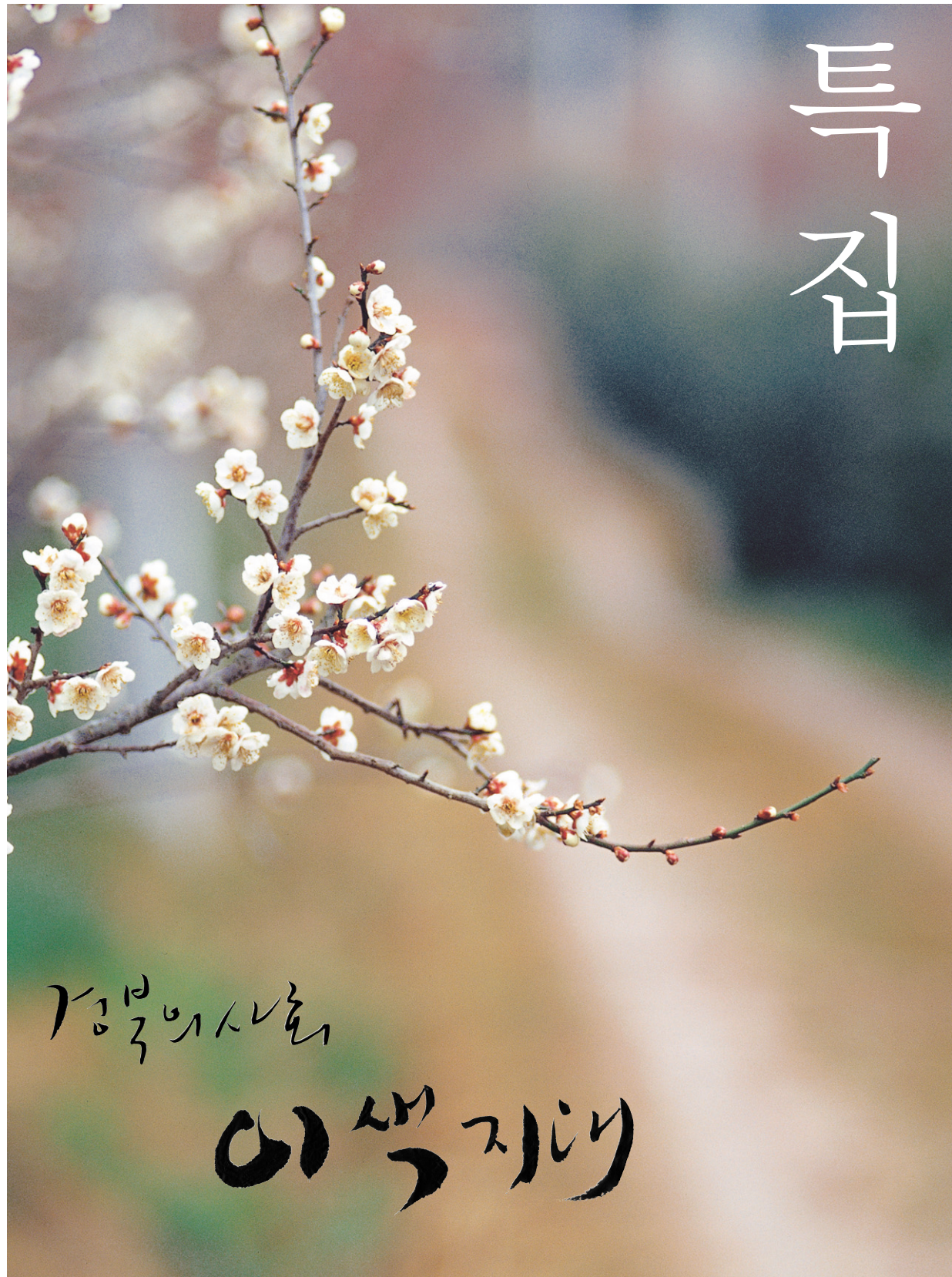


작품명 : 自然, 삼베 배집 위에 생칠옷과 옷 안료



손원숙(경산 손병욱 회원 부인)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 홍익대학교 현대미술 대학원 과정, 개인전 3회(작업실,
 일본 동경, 서울 예술의 전당)와 단체전 다수. 현재 생칠옷칠 작품에 전념. 두손갤러리
 indang226@daum.net



특집

가장 북의 시인으로
이색지대



타인의 방은 늘 호기심의 대상이다. 의사의 방은 뭔가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순하고 진부하며 때로는 통속적이기까지 한 것 외에 무엇을 보여줄 수 있나? 의사의 길은 외길 인생이다. 숙명처럼 아픈 사람들의 곁을 떠나지 못하나. 개업과 학문, 공직 등 몇 가지 갈래길을 앞에 놓고 망설이기도 한다. 이처럼 변화가 적고 출구가 많지 않은 의사직을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이라 말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 안정을 자족하고 즐기는 것을 굳이 부인하지는 않겠다.

노마드(유목민)의 천막,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가슴 두근거리는 기대감 보다는 정착민의 튼튼한 울타리, 깊은 수면을 우리는 어느새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정이라는 말은 무미건조한 일상성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인간의 정신성과 영혼의 자유를 포기해 버린 대가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 여기 한 무리 의사들을 쫓아가 보자. 어느 날부터 이들은 여태껏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 한 구석에 아금아금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축수를 뺀채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성(城) 안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 미명에, 혹은 따뜻한 불빛과 김이 오르는 저녁 식탁을 마다하고 성을 외롭게 빠져 나와 이들이 찾는 곳은 어디며, 과연 거기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

이들이 만든 낯설고도 신선한 풍경 속을 따라 가노라면, 어느 길모퉁이쯤에 아스라이 잊고 살았던 우리들 꿈의 사다리가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가까이 취재에 협조해 주시고, 우리 회원들에게 이색적인 삶의 풍경을 제공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 편집자 주

정만진

우산국 복지부 장관

【프로골프 선수, 의료법인 대표, 골프 코치】



정만진 선생님, 그는 열정적인 길을 씀없이 달려가는, 내가 존경하는 선배이다. 영천시의회사회장으로 지역 의사회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대한의사협회의 3선 대의원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과 제안을 많이 하였으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의 추진위원에서부터 운영위원, 분과위원장까지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의 핵심요원이었다. 또한 경북의사회의 기획이사, 부회장, 그리고 지금은 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프로 못지않은 골프 실력과 시속 8km로 걸을 수 있는 걷기 운동의 달인, 스포츠는 물론 수필가로서 등단까지 한 다재다능한 분이며, 큰 딸을 검사로 키워 자녀교육에서도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난 직후에 위험을 무릅쓰고 이라크에 의료봉사까지 다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갑자기 개원을 접고 가족, 친구, 고향을 뒤로 하고는 동해의 고도 울릉도 보건의료원장으로 간지가 어떤 1,000여 일, 그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 여정을 들여다본다.

고향인 영천에서 개원하여 진료하게 된 동기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영천에서 태어나고 영천초등, 영천중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군대와 전문의 수련 및 임상과장 경험을 한 후에 다시 영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천으로 돌아오기 전에 부산 침례병원에서 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영천에 종합병원을 세우신 분이 여러 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좀 과장하면 삼고초려(三顧草廬)라고 할 수도 있었지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의사들의 가치가 지

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누구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고, 여러 번 권유를 받다보니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천으로 다시 돌아왔었지요. 그 종합병원에서 2년 정도 근무하다 개원을 하여 17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1일 이곳 울릉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지려온 진료실 문을 닫고 공작을 려하게 된 그 생각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개원을 하신 회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원하는 일이 수련받는 것보다 어렵지요. 그런데 병원 문을 닫는 절차도 개원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일일이 언제부터 병원 문을 닫는다고 편지를 보내고, 지역 신문에 폐업 광고도 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선후배를 찾아가서 폐업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울릉도로 오게 된 심정을 『나의 인생 2막은?』이라는 제목의 수필

로 저의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햄릿의 명대사처럼 “낮설고 물 설은 울릉도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다갈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변화 없이 편안히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끝자락에 서서 “좀 더 즐겁게, 좀 더 참으며, 좀 더 봉사하며”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두가 선뜻 가려고 나서지 않는 울릉도행, 설사 나의 울릉도행이 불똥없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봉사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고, 변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나니 용기 있게 울릉도행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5월에 방의로제 이라크 봉사단 선배들의 단장으로 이라크에 다녀오셨는데, 그때의 경험이 어떠셨습니까?

개원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생활은 매우 단조롭습니다. 저 역시 NATO(no action, think only)만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협에 이라크 의료봉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 지원하여,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사 2명, 간호사 2명, 약사 1명, 복지부 산하 공무원 1명, 그 중에서 제가 당시 현직 경북의사회 부회장이고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을 하고 있어서 단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때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하였지요. 이라크로 출발하기 며칠 전 썸이 되자 많은 사람들로 부터 위로와 격려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염

려해주는 이들도 많았는데, 솔직히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쳐먹고는 ‘그래 죽을 운명이면 죽자, 여기 있다고 해서 안 죽나? 나의 운명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사 모두는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고 했듯이 그렇게 운명을 수용하는 생각을 하고나니 두려움도 불안감도 싹 가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 때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습니다. 울릉도로 오게 된 것도 그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릉군 의료원에서 근무하신지도 삼년이 다가옵니다. 그간 울릉도 생활이 어떠합니까.

처음에 울릉도에 와서 ‘초보 공무원, 초보 도인(島人)’이란 말을 즐겨 썼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사회단체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자부해왔으나 독특한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울릉도 섬 생활, 그리고 때늦은 공무원 생활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자 하였으나 때로 그런 태도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욕과 노력, 그리고 능력이 있다 해도 조직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못하는 연유를 이제 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저는 복지부나 경북도 보건관계 회의에 참석하여 제 소개를 할 때면 “저는 우산국의 보건복지부장관 겸 국립병원장입니다.”라고 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울릉군청 산하의 병원화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탁소에 맡겨두었던 세탁물을 찾아왔는데, 라벨에 ‘국립병원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옛날에 쓰던 ‘국립병원’을



잘못 쓴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자신을 우산국의 복지부장관 겸 국립병원장으로 격상시켜 버렸습니다.

제 부업은 울릉도 가이드(?)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로 울릉도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편만 예약하고 나머지는 모두 저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지난 해 영호남의사대회 때는 60명 가까운 회원들이 저만 믿고 왔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도 입도 문제가 발생하여 곤란할

지경에 빠지기도 하였으나 슬기롭게 해결하고 나니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30명 이상의 단체와 개인이 많이 왔으나 큰 행사 경험이 있어 그리 어렵지 않게 안내를 하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울릉도에 홀로 계시는 것이 힘들실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홀아비 아닌 홀아비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애를 가져보지 않으면 장애인의 어려움을 모르듯이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밥을 먹어보지 않으면 혼자 사는 어려움을 모릅니다. 특히 처음에는 식사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식당을 정해

두고 식사를 해 봤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고나니 싫증이 났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오면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냉동고에 넣어둡니다. 외식이 없을 때는 그것을 녹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밥은 제가 잘 합니다. 제가 대략 한 달에 한 번, 5일 정도 육지로 출장이나 외출을 가고, 아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이제는 홀아비 생활에 많이 적응이 되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부터는 오히려 새록새록 정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매일 전화하고, E-mail을 주고받고 있으며 인터넷 화상채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여름에는 작은 음악회나 연극 공연, 영화 상영 등을 자주 합니다. 솔직히 육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보고 듣습니다,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울릉도에 KBS 중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1시간씩 자체 방송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매주 월요일 11시 25분부터 25분간 제가 하는 건강방송이 나갑니다. 벌써 1년 반 넘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보람도 있습니다. 때로 저도 방송인이라고 자부하며 농담도 합니다.

3년전 수필가로 울릉도에 제위하시게 되었는데, 동탄하시게 될 때랑이 상금합니다.

제게 특별한 문학적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글을 쓰려면 마음대로 되지 않지요.

고향 영천에서 개원하고 있을 때 지역 신문에서 시사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되었고, 금요일 오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고를 내야 했지요.

그러다 보니 목요일 저녁에는 꼼짝 없이 글쓰기에 매달려야 했고, 소재(素材)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엔 밤늦게까지 썼는데도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버리고 다시 쓰다보면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종이에 직접 글을 썼으니 더욱 힘들었지요. 그렇게 어렵게 5년 정도 쓰고나니 저도 모르게 글 쓰는 능력과 자료 수집 및 정리하는 방법도 향상되고 문학적인 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1회 한미수필문학상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라는 제목의 글을 투고하여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3회에서 「소리 없는 요들송」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더 입상을 하였습니다. 상금도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 지금까지 글을 써서 받은 최고의 시상금이자 고료였지요.

수필가로 유명하신 고향 선배님의 강권에 못 이겨 둘째 딸이 의사가 면허증을 받는 심정으로 2004년 그 선배님의 추천으로 『수필과 비평』 신인상을 받고 정식으로 수필가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조금씩 글을 쓰고 있지만 아직도 문학적 재질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도 글쓰기가 별로 두렵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된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잠기를 생활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아유리로 후에 의사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0대에 접어든 어느 날 걸음을 걷는데, 고관절 부위가 약간 뒤틀리는 기분이 들면서 약간의 통증이 왔습니다. 갑자기 운동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비교적 운동을 잘



하는 편이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골프도 치고 이따금 등산도 하면서 크게 아파본 기억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체에 적신호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 매일 만보를 걷기로 하고 만보계를 하나 사서 차고는 열심히 걸었습니다. 점심약속이 있으면 1km 이내는 걸어서 갔다 오고, 11층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가고, 낮에 걷지 않았으면 퇴근 후에 아파트 주위를 몇 바퀴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11층 아파트를 110초 이내에, 빨리 걸

으면 100초 이내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 능력이 향상되자 등산을 가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저의 최고 걷기 속도는 시속 8km이며, 20대 후반의 공중 보건의 선생님들과 같이 걸으면 제가 더 빠르고 숨차지 않습니다. 40대가 넘으면 운동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요즘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울릉산악회원들과 어울려 성인봉 등산을 하여 지금까지 성인봉 정상만 16번 올랐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에 관해서는 좋지 않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의사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한 변신도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안목을 넓혀야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의사들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좁디좁은 생각에 사로잡혀 양보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변화를 할 때는 앞날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만큼 노력하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립합창단, 관악악단 연주 모습】

조총래

노래처럼 경쾌하게 산같이 진중하게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 가장 부정적인 것 중 하나가 의사들은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란 평을 듣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에 다소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한편으로는 강하게 부정도 할 수 만은 없는 현실에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함께하는 여러 모임에 열심히 참여할 뿐 아니라 리더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으면서 그 단체의 위상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분이 있어 의사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다는 취지에서 구미시 원평동에서 한일산부인과를 개원하고 계시는 조총래원장님을 취재하였다.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남성들만의 하모니가 겨울밤의 추위도 녹일 것 같은 구미문화예술회관 합창연습실을 찾은 본 편집위원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생님의 표정과 차림은 어느 때처럼 밝고 단정하시다.

선생님 그 동안 만병하셨습니까? 선생님을 본인의 초래 손담으로 보시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사들 중에 정말 특별할 취미나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걸다리로 조금 하고 있는 제가 자격이 될런지요.

선생님은 삼촌 아랫집이라기 보다는 보형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로 의사회나 선생님이 속하신 취미 활동의 단계에서 소속원이나 리더로서 영정적인 활동

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취미활동으로 소속된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미남성합창단, 등산 동호회, 야생화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모든 모임이 다 선생님께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모임은 어떤 것입니까?

구미남성합창단에 제일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취미남성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남성합창단은 구미 일원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남성으로 구성된 아마추어들로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지휘자 교수님(작곡 전공), 부지휘자(성악 전공), 반주자(피아노 전공), 단장, 부단장, 총무, 그리고 각 파트장과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구미예술회관에 모여서 연습하고 매년 5월 정기연주회와 수시 연주회가 매년 6~7회 있습니다.

남성합창단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노래라면 노래방에서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현 구미시의사회 회장님이신 김동욱 원장님의 소개로 가입하여 1회부터 10회 공연까지 안 잘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이 자리를 빌어 김동욱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시면서 음악을 전공한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있으신지?

정기연주회할 때 유명 성악가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다른 연주단체들과 빈번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남성합창단은 선생님이 2005년 단장이 되시고 나서부터 1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구미지역에서 이미 두어 음악 단체로서는 매우 유명세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남성합창단의 대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주년 행사에 단원들이 한마음으로 많은 공을 들여 절찬리에 공연을 하게 되어 많은 보람을 느꼈고요 연이어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세계 오페라축제의 프리 콘서트에 단독 출연한 것을 계기로 울산 현대예술회관에서 울산동구여성합창단의 15회 정기연주회에서 초대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엑스포아트홀에서 열린 2006년 아리랑세계화와 민족통일의 염원을 위한 종합예술 3막극 「아리랑 7고개 8산」에 비중 있는 부분으로 출연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구미남성합창단이 구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보람도 많지만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합창을 10년 정도 하셨으면 노래 실력이 상당하실



것 같은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모임 같은 데서도 여흥이 있으면 꼭 먼저 저한테 노래를 시킵니다. 부끄럽지만 전 노래를 남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잘하지는 못합니다. 합창을 하는 데 뛰어난 노래 실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은 독창을 하지요.

노래를 하시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전 합창연습이 있는 화요일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 2시간 30분 정도 힘차게 노래하다 보면 엔돌핀이 마구 분비되어 일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씩 가시는 듯 합니다. 다른 단원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합창연습이 끝나면 단체로 맥주를 마시러 가는 일이 자주 있어서 귀가 시간이 좀 늦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웃음)

2년 전에는 동산동호회에서 백두대간을 종주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년쯤 전 백두대간 종주를 계획하다가 동행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고 용기가 나질 않아서 기회를 보다가 대구의 산악회에서 백두대간 종주 회원 모집한다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첫 구간인 진부령 미시령 구간 종주를 위해 2003년 12월 12일 22시

대구를 출발하여 강원도를 벗어날 때까지 무박 2일 그 후에는 구간에 따라 당일과 무박 2일로 총 42구간으로 나누어서 종주했습니다. 2005년 8월 13~14일, 1박2일, 성삼재에서 출발하여 세석산장에서 비박 후 중산리까지 종주를 마쳤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몇 분이 백두대간 종주를 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 한다면 한번쯤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지만 키지고는 될 일이 아니고 강한 체력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평소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박무영

새벽에 논물 보고
낮엔 환자 보고

【포천시의료보건의료사회장, 조부
성호병원, 영호병원, 영진병원】

박원장을 처음 본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다.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그는 고향인 안동에서 개업하기로 작정하고, 당시 몇 명의 개원의들이 모이던 점심 식사 자리에 찾아왔다. 첫 대면할 때나 지금이나, 그 외모나 심성이 변함없이 촌스러울 정도로 우직하고 천진난만하다.

그가 지역 의사회의 전면에 부각된 것은 금세기 벽두, 우리 의사들이 겁도 없이 의약분업 시행을 두고 정부와 맞짱을 놓을 때였다. 전시의 작전 본부 캠프에서 그는 능숙한 컴퓨터 솜씨로 정보 통신 병 역할 뿐 아니라 온갖 궂은 일을 감당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매일 점심을 같이 먹게 되면서 그가 전문 농사꾼임을 알게 되었다. 여름이면 새벽에 논물부터 보고 와서 환자를 보고, 농한기인 겨울에는 이듬해 농사를 위해 10킬로짜리 아령으로 체력까지 단련하는 내과 전문의라니 참 희귀종이다. 그런 그가 최근에 주위의 유혹에 넘어가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가까이 건설 중인 골프 클럽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대이변이 아닐 수 없다. 이젠 농사를 그만 돌려나 생각했는데 웬걸, 논이 돌을 공삼아 팽이로 스윙 연습을 해댄다.

올해 들어 지역의사회가 '자선음악회'를 벌이자, 재무이사로서 행사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는 중에도 그는 뭐가 그리 좋은지 연방 싱글거린다. 이런 회원을 가진 것이 안동시의사회의 행운이듯이, 지금의 부인을 만난 것 또한 그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허리 디스크 파열로 그가 병석에서 지내는 동안, 부인 혼자서 가을걷이를 맡끔하게 끝냈다는 것이다.

이번에 취재 기사가 나가면 그가 농사지는 쌀 한 뒷박 구경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이 순박하고도 성실한 '무공해 의사'가 지은 곡식은 여기서도 귀하다.

내과 개원의로서 지역(의사회) 개우이사, 공작(황송대교도소외우과장) 등 1인 3역의 바쁜 생활 중 농사

습이 있는 날이거든요.

안녕날은 아시는 분들의 강요시에는 짜증없이 참작하시고 주머시 의사회외 부회장으로셔도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등 후배의사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나 동료의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이 진료실 안에만 있지 말고, 주위의 다양한 취미서클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교류의 범위를 넓히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고 그들에게 의사들의 고충이나 한국의료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도 있고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일반시민들과 똑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의사가 별종이 아니라 같이 웃고 같이 우는 평범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끼리 모여 술 마시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동호회 만들고 의사들끼리 골프치고 이렇게 해서는 점점 고립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함께 어울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플레도 이렇게 인더유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해에도 건강하게 취미활동 왕성하게 하시고선 광남 병원도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영히 제정신으로.

특별히 건강관리를 위해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매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에 갑니다. 한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렵네요.

야생화에 대해서도 입가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야생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야생화에 대해 일가견이라면 부끄럽습니다. 그냥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주하면서 갖가지 야생화를 대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다보니 산에 갈 때마다 꽃사진을 찍어 와서 모르는 것은 동호회회원들에게 문의하고 도감을 보기도 하고 동호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주말엔 산에서 공부하고 이러다보니 남보다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야생화는 이름 그대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 번식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시들고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꽃들입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이는 꽃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저절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잡초라는 것도 다 이름이 있고 예쁜 꽃들을 피우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볼수록 신비롭지요. 꽃의 이름도 재미난 것들이 많아서 공부할수록 재미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다보니 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왕성한 취미활동을 하시다 보면 가족들 특히 시모님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시모님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단체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싫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화요일엔 어떤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합창연



는데 벼는 사월 중순 모판에 볍씨를 뿌린 후 한달 정도 지나면 이앙을 합니다. 집에 이앙기가 있어 일손을 빌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은 논둑을 바르는 일인데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거나 두더지가 논둑에 구멍을 내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눈에 물을 대면 물이 새어 나가거나 둑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논둑을 발라주고 딱매로 두드려서 다져 주어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바쁜 시기이고 힘이 많이 듭니다. 일단 이앙한 후에는 물관리와 논 주위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인데 주로 새벽 4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는데 이때가 가장 즐거울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후는 한두 달 쯤 쉬다가 9월 중순경 수확을 합니다.

밭농사로는 주로 콩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추는 농약을 엄청 쳐야하고 고추를 따면 바로 바로 말려야 하기 때문에 나처럼 바쁜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콩은 밭 로타리를 한 후 비닐을 씌운 후 묘종을 낸 콩으로 옮겨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콩순을 쳐주면 가을에 콩을 꺾을 때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콩가리를 했는데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꺾은 콩을 검은 땅 위에 다 올려놓으면 건조가 아주 잘 되며 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시간이 있을 때 도리깨로 두드리면 끝나게 됩니다.

이곳 만동이 고향이고,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요, 농사는 언제 지어보았나요?

저가 태어난 곳이 과거 안동군 월곡면 가류1동이었는데 1976년 안동댐으로 인해 고향땅이 거의 수몰이 되면서 월곡면은 사라지고 그후 가류1동은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와룡면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소풍을 벤다든지 농사일을 돕는데 나는 막내라서 그런지 부모님

께서 거의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안동 시내로 전학 와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주말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정도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것은 공중보건의 시절 3년간 부모님 곁에서 깨, 고추, 벼농사, 농약치기 등 힘든 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후 수련의 생활을 마치고 안동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은 서울에 계시고 자주 내려오시지 못해서 나라도 부모님 가까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셔서 힘든 일은 거의 도와드려야 했기에 자주 시골에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농사짓는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모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전에는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으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나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습니다. 첫째에는 어머니의 조언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제는 농사일지를 기록하면서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생을 다루는 의사이로서, 작물을 가꾸는 마음이 남다른 것이 더 장악되는데 농사짓는 의사이로서의 걸작을 들려 주시죠.....

사실 농사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쏟은 만큼 수확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사람과 같아서 잘 돌보지 않으면 잡초에 가려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시기가 있는 만큼 식물도 파종부터 이앙하고 가꾸는 적당한 시기가 있어 조금만 늦어도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식처럼 여기면서 피땀 흘리며 농사를 짓다보면 식물도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농민들의 경우 상당량의 농약을 살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의 경우 농약은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요?

나는 시골 사람들과는 달리 농약과 비료는 아주 최소한의 양만을 뿌립니다. 비료를 많이 치면 수확은 증가되나 병충해가 심해져서 다시 농약을 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무공해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로터리를 하고 모를 심은 후 10 일정도 지나서 '내눈에' 라는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 이후는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주위에서 농약을 많이 쳐서인지 비료를 거의 뿌리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한번 정도 형상이 정형 동안에, 농산물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농산물 판매 업체가 생기면 우리 농촌의 미래는 어떨 것이며, 그 때문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나요?

현재 상태에서 FTA가 체결된다면 영세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IT 수출 주도형이다 보니 FTA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수출기업으로부터 농촌진흥기금을 모금하여 농촌에(세제, 비료 농약값 보조, 추곡수매 확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예전처럼 다량의 비료와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를 하여 웰빙 시대에 맞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장려하여 유기 농산물을 도시인에게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충해 준다면 FTA로 인한 타격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부인이나 아이들도 농사를 쳐드나요?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 곧 초등학교를 졸업할 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한창 바쁜 농번기에는 도와줍니다. 특히 올해 제가 갑작스런 디스크 파열로 수술을 하는 바람에 7월 말부터는 논물을 관리하고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정미소에 벼를 갖다 주는 등 아내가 모두 하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시골에 데려 간 것이 주효했지요. 늘 아내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농사를 가르치지 않지만 딸아이는 시골에 가는 것을 좋아하여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데리고 갑니다. 콩 비닐 까는 솜씨는 뛰어나고, 개구리나 올챙이, 방아깨비를 잡아 주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올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인 것으로 하는데 이 병도 농사짓다가 얻은 병인가요?

요통은 사실 의과대학 다닐 때에 처음 생겼는데 그때 이후 가끔씩 무리하면 재발되고는 하였으나 큰 문제없이 지내다가 작년에 골프를 배우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질이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돌진하는 스타일이라 골프 스윙도 너무 무리하게 쉬지 않고 했던 게 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하필 소나기가 쏟아지던 날, 허리가 비틀린 상태에서 논가에 우거진 풀을 뜯다가 그만 디스크가 파열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눈을 기어나와 시골집에 있는데 눕지도 못하고 엎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발병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좌측 하지의 감각 둔화

와 엄지발가락의 배굴곡이 잘 되지 않아 급히 MRI 촬영 후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금방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회복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확 농작물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우선 쌀은 형제들끼리 조금씩 나눠 먹고 나머지는 주로 안동시의사회 회원들에게 팝니다. 가격은 시장가에 10% 더 받는데 콩은 주로 아파트 주민 중 아는 사람들에게 처분합니다. 콩 가격은 시중가 그대로 받았는데 사실 오고 가는 교통비,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시중가의 3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싶군요.

지역의사회 임원으로서, 안동시 의사회에 대한 자랑 한마디 해 주십시오?

개업한 지 거의 10 년이 되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 회원끼리 서로 단합도 잘 되지 않고 회비 납부율도 매우 떨어진다고 하는데 안동시 의사회는 어느 의사회보다 더 친밀하며 선후배 의사들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이 한창이던 시절, 언제나 거의 100%의 회원들이 참가하여 우리 스스로도 놀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재무이사를 맡으면서 미력이나마 안동시의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해 회원수도 많이 늘어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의사회원들도 결속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비판적인데도 안더유에 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약과 의약품 등이 하나라 하나일 수 있었다는 생각도 품니다. 그 것은 둘 다 평양을 다루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장이 병이 나병이라서 많이 팔려가지나까 계속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송정근

철인(Ironman)의사

【주요 경력】
· 경주 성모의원
· 송정근의원



Well-being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요즘,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사들의 자기 건강관리 현주소는 과연 어디쯤일까? 특히 주 5일제 근무는 커녕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료실을 지켜야 하는 개원의들의 하루 일과는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쉽다. 주위 동료의사들을 보면 나름대로 골프며 수영, 등산 등으로 건강에 꾸준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고 가끔가다 목운동(?)이나 하며 지내는 동료들도 더러 있다. 정작 의사 자신은 그렇게 지내면서도 환자들에게는 열심히 운동을 하라고 권하게 되니 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가.

개원의 생활을 하면서 철인(Ironman)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 철인이란 용어가 주는 느낌 그대로 쇠처럼 단단하리란 인상을 주는 사람, 경주 성모의원 송정근 회원(인제의대 졸업, 흉부외과 전문의)을 찾아 그의 유별난 취미 생활을 들어 보기로 하자. 그리고 그에게 철인이 되는 비법을 전수받아 그대로 따라해 보자. 그리하여 과감히 철인에 도전해 보기로 하자, 차근차근 겁내지 말고. 아자아자!

저녁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 평상시에 의사회 모임에서 만난 송정근 원장은 나에게 그저 조용한 인상으로만 남아있는데, 철인경기 얘기를 하면서 내내 그의 눈은 빛났다. 인터뷰를 마치고 식당문을 나서며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철인 의사 송정근 회원은 배낭을 둘러 메고 사이클에 올랐다. 둘의 집은 다같이 황성동이다.

철인 송정근 따라하기, 그 첫걸음은 우선 차부터 버려라?

우선 보기엔 체력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키는 184cm, 몸무게는 80kg입니다. 1년 전부

터 운동량을 좀 줄이다 보니 몸무게가 5kg이 늘었습니다. 흉부외과 전공이다 보니 심박수도 관심이 많은데 대략 분당 40회 정도입니다.

먼저 철인경기란 어떤 경기인지 소개해 주세요.

철인경기 보다는 철인3종경기가 맞는 용어입니다. 철인3종경기는 한 선수가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종목을 연이어 실시하는 스포츠로 '트라이애슬론(Triathlon)'이라고도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변에서 인명구조원들의 복합운동으로 행해진 뒤 미국 해군중령이 1978년 2월 와이키키 바다수영과 오후우섬 일주 사이클대회, 호놀룰루 마라톤대회를 묶어 출전선수 15명으로 대회를 시작하면서 철인3종경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은 2000년부터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니 짧은 기간에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수영, 사이클, 달리기를 하는 거리에 따라 스피린트(Sprint),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롱(Long), 철인(Ironman)코스로 나뉘어집니다.

‘스프린트 코스’는 수영 0.3~1Km, 사이클 8~25Km, 달리기 1.5~5Km이며, ‘인터내셔널 코스’는 수영 1~2Km, 사이클 25~50Km, 달리기 5~10Km. ‘롱코스’는 수영 2~4Km, 사이클 50~100Km, 달리기 10~30Km로 해프 아이언 맨 코스(Half Ironman)라 부르기도 합니다. ‘철인 코스’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달리기 42.195Km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 ‘올림픽코스’는 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의 경기로 전구간을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마라톤 완주시간과 비슷합니다. 현재는 주로 철인코스와 올림픽코스 대회가 열리고 있고, 철인코스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면 철인(Ironman)이란 칭호와 기념 메달을 받게 됩니다.

힘든 운동안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운동이 있었나요?

특별한 동기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운동에는 별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별다른 운동을 하지 않았고 또 잘 하지도 못했습니다. 1995년에 개원을 했는데 가만히 진료실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보니 몸무게가 90kg까지 불어나더라구요. 아내가 억지로 수영 강습에 등록하여 처음엔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면서 운동하는 데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점차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한 장애인의 「철인경기 완주기」를 읽고 철인경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본

격적으로 사이클과 런닝을 해보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때가 1999년이었는데(1962년 생이니 38살에 시작한 셈) 그 당시만 해도 경주에서는 철인경기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너무나 막연하여 대구시 철인클럽을 방문하여 철인경기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철인경기를 준비한 지 불과 8달만에 무턱대고 제주 대회에 참가하여 완주하였고, 경주에서는 처음으로 철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경주시에 많이 활성화되어서 약 50명의 경주철인클럽회원이 있습니다.

같이 되기 위해선 많은 양의 운동이 필요했을텐데 평상시 하루에 어느 정도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보통 아침 5시경에 집을 나서서 자전거로 보문단지까지, 때로는 불국사까지 돌고 옵니다.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걸리고요. 그리고 수영을 한 시간쯤 합니다. 오후 진료 마치고는 1시간 정도 달리는데 대략 10km거리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100km 이상 장거리 사이클과 30km 런닝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꼭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진료할 때 하품도 하곤 했지만 차츰 적응이 되더군요. 그 후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진료하는 데도 활력소가 되는 느낌입니다.

저같이 이류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정말 엄청난 운동량이라 그저 놀라고 경이롭기까지 한데요. 그렇게 저의 운동에만 빠져 지내면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편인가요?

처음 수영을 권한 건 아내였는데 제가 너무 운동에 빠져 정식으로 철인경기를 하겠다고 할 때는 무척 말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항상 동행해 주었고 가족들 모두가 열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주 철인경기 때는 아내가 전북죽까지 끊어 들고 다니며 성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같은 양의 운동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중3 딸과 중1 아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다면 적극 밀어주겠지만, 아직까지 어려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딸 아이는 아빠, 언제 경기가 있느냐며 물어 보는데 아마도 아빠가 철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양입니다.

고동민의 수상 경력은?

특별히 수상 경력은 없습니다. 철인경기는 완주 그 자체가 목적이며 완주하는 모든 사람이 다 우승자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부터 시작하여 올림픽코스 10회, 철인코스 3회 완주하였으며 철인코스 기록은 11~13시간이며 대회 완주자 중 중상 정도의 기록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언제였나요?

1999년 제주철인 경기대회입니다. 그 때는 불과 100명 정도가 참가했었는데(현재는 1500명 이상 참가) 본격적으로 철인운동을 시작한지 8개월만에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도 뛰지 않은 상태에서 오기로 도전했었지요. 마지막 3km정도 런닝을 남겨 놓고는 다리가 너무 친근만근이라 달리기는 커녕 걷기조차 힘들어 간신히 절룩거리며 골인하였습니다. 약 13시간의 강행군 끝에 철인의 칭호를 처음으로 받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철인경기를 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는?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손가락 골절과 앞니 2개가 부러진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00년 속초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속초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했는데, 높은 파도를 헤치며 수영을 하다 보니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 중간에 포기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꿈이 으로서 많이 있다던?

꿈의 대회라 일컫는 하와이 철인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 경기에 참가하려면 제주대회에 배정된 100장의 티켓을 획득해야 하는데 100위 안에 들기 위해선 거의 프로 수준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 대회에 15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티켓을 받기 위해 약 500명 정도 참가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철인경기가 우리보다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어서 그들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 100장을 거의 싹쓸이합니다. 현재 저의 기록으로 볼 때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철인경기 이외에 다른 운동은 만하시나요?

5년 전부터 윈드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해 돛에 몸을 맡기고 혼자 헤쳐 나가다 보면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철인경기 보다 윈드서핑을 더 즐기게 되고 벌써 여러 차례 해외에도 다녀왔습니다.

철인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요?

올림픽 코스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고, 철인 코스에 참가하기 위해선 안전상의 문제로 수영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약 3.8km를 1시간 40분 안에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철인경기를 하고 싶은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철인경기는 약간의 체력, 약간의 용기, 그리고 인내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은 먼저 수영부터 배우시고요. 철인경기는 하루 2~3시간씩 1년 정도만 꾸준히 하시면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무리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게 운동량을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꾸준히 하시면 많은 분들이 철인의 칭호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등산하는데 장비는 얼마나 드나요?

사이클 값이 가장 많이 드는데 비싼 것은 1000만원 이상 짜리도 있지만 대략 100~200만원 이구요, 그 외 부대 비용으로 전용 페달, 신발 또 수영할 때 윌슈트 등 해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골프에 비해선 적게 드는 편이죠.

골프보다 마라톤이 더 힘든가요?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도전은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에서 희열도 느끼고 좌절도 맞습니다. 10km를 뚫은 마라토너는 다음에 하프, 풀코스에 도전하고 싶어하고,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울트라 마라톤을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이제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 털고 일어나 한번 쯤 일탈을 시도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시골의사의 다시 쓰는 투자론 ①

시골의사의

경제 원리에 숨겨진 부자들의 투자 비밀

부자경제학

박경철 지음

국내 최고의 투자전문가
시골의사가 20년 만에 밝히는
부자의 지혜, 투자의 원리!



사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그와는 학연도 없고, 이제 생각해보니 같은 지역의사회 소속이면서도 사적인 자리 한번 없었다. 7,8년 전 쯤 되었다, 그가 처음 개원했을 때 의사회장으로서 한번 방문하고, 그 이후 근처에서 회식하다가 탕수육 한 접시 보냈던 것 외에는 따로 기억이 없다.

나는 이제껏 주식이란 걸 사 본 적이 없다. 조만간 금융의 시대가 온다는데, 주식을 모르는 게 자량이 아닌 걸 잘 알고 있다. 어쩌다 보니 개원의 생활 20년 동안, 주위에 이재에 밝은 사람 하나가 가까이 두질 못했으니, 나는 '시골의사' 같은 사람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가 어디서 저런 재주를 익혔는지 참 신기하다.

그런데 내 상식으로는 이재에 밝은 사람은 그렇게 타고 났거나, 후천적으로 돈에 원수가 진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박 원장의 경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가 쓴 글을 보면 문사철(文史哲)의 향기가 묻어있다. 그의 취향은 분명 돈과는 거리가 먼 인문쪽이다.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그는 경제 서적만 탐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성한 지식욕은 인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 그가 고도로 정밀한 경제 분석과 예측을 요구하는, 아니 그 골치 아픈 숫자놀음에 일가견이 있다니, 그것도 지난 연말 <증권 선물인상>을 수상하여 여의도의 주류에 진입했다지 않는가?

나는 그를 좀 더 알아 볼 요량으로 이 꼭지에 불러 들였다. 그런데 취재를 마치고도 그를 알게 되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나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더 잘 아는 것 같다.

학과전공의와 투자전문가, 둘 사이에 상관성이 도무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경제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대학시절 하숙방에서 우연히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거기서 '미래사회는 지식이 권력이다'라는 구절을 읽은 다음입니다. 그때까지는 총칼이나 판·검사만 권력인 줄 알았지만, 지식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군대와 경찰만이 권력이던 시대가 지나고 지식이 권력이 되는 날이 과연 올까?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과연 나는 의사로서 성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미래가 지식이 권력인 시대라면 그 당시에 후진적인 분야를 공부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투자경제 부분의 이론은 전무했고, 북부인과 투기꾼만 횡행하던 때였습니다. 대구 시내를 다 뒤져도 투자에 관한 책을 단 두 권 정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우여곡절 끝에 공

여의도가 주목하는 시골의사 박경철

부를 계속하게 되었던 것이 현재가 있게 된 동기입니다.

의사 생활이나 기타 매들매를 통해 선생님의 책을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한 독서량과 인문학적 지식이 뒷받침이 된 출판가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셨습니까?

독서량은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제 서재에 있는 책이 만 여 권이니 책 읽기는 습관이 된 셈입니다. 분야는 난독(亂讀)을 즐기는 편이라서 문,사,철, 예술, 사회, 고전, 경제경영 등 분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KBS 교양제작국 자문위원을 맡아서 "TV 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하고부터는 일년제 국내 출간되는 신간은 모두 읽게 되는데, 이것은 흥미라기 보다는 일종의 의무이기 때문에 요즘은 신간을 읽느라 다른 좋은 책을 읽을 겨를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교 시절 좋아했던 과목은 장래 어떤 작영을 영구했습니까?

별로 우수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절이 그렇듯이 졸업정원제의 혜택을 입은 셈이고, 요즘 아이들이나 선배들 세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입학에

서는 덕을 본 셈입니다. 학창시절에도 인문쪽이 강했는데, 실리적 선택으로 이과를 진학해서 다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다만 학창시절에도 요즘식이라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책을 읽다가 혼이 나는 일을 자주 겪었습니다. 이래저래 빙빙 돌아간 셈인데, 사실 대학생할도 그래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했고, 수업이나 시험 참여등에 불성실했고, 결과적으로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의과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진로의 방송 출연, 정황 등 대단히 바쁜 나날을 보내시리라 짐작되는데 1주일, 한 달 단위의 일정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한 달 강연이 40회정도 됩니다. 그것을 목, 금, 토, 일 안에 해결해야하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시간 단위로 강연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11시 과천, 1시 경희대, 4시 방송, 7시 대구, 9시 30분 부산 강연으로 일정이 잡히거나, 아침 10시 부산, 1시 여의도, 3시 충무로, 5시 전경련식으로 일정이 잡히는 것도 예사입니다. 그러다보니 승용차, 기차,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방송일인데, 제가 전문위원인 MBN





의 경우에는 금요일 4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고, 자문위원인 KBS는 한 달 2회, 그 외 기타 방송매체에 불특정으로 출연하는 일들이 한 달 10회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신문쪽으로 경제지머니투데이는 편집국 전문위원이어서 일주에 한번 출근하고, 칼럼을 쓰고, 그 외 기고하는 칼럼이 중앙일간지 2, 전문지 3, 기업 사외보 3~4, 좋은 생각 등의 잡지 3, KDI 발행 나라경제등 경제연구소 고정칼럼 2, 기타 2~3쪽지 정도 됩니다. 그 외 모 증권사 사외이사, (주)씨젠의 주요주주로서 내년도 코스닥 시장 상장준비에 매진 중이고, 한반도재단, 소아암재단 등에 상임이사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관심사를 대신해 질문해드립니다. 음악의와 개인의를 구분하여 카테고리에 대해 쉽고 간단한 조언을 구한다면...

정답은 금융투자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땅에 기반한 2차 산업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3차 산업이 중심이 되면 결국 4차 산업이라 불리는 금융산업이 중심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금융투자가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시대적 조류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있고, 개인 역시 이 조류에서 소외되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수익률을 올리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됩니다. 특히 금과 같은 실물이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다만 의사들이 국내 외국계 보험사를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편중성을 보이는데,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절실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금융투자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원장님이 생각하는 우리(후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강북 PB들은 50억이라고 하고, 강남 PB들은 48시간내에 50억을 동원하면 부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철학적으로는 더 이상 부를 늘리고 싶지 않은 사람, 빈자는 더 늘리려는 욕망의 크기가 큰 사람, 즉 돈을 벌려는 의지가 강할수록 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임계치라 부른다면 임계치까지는 누구나 돈을 벌어야하고 그 이상에서는 탐욕을 선택하느냐 삶을 선택하느냐의 개인적 판단이 문제가 됩니다.

왕성한 대의활동에 비해 지역의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송구스럽지만 먼저 정신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약간 고민중인 탓도 있습니다. 지금 실제 진료를 하는 날이 이틀이 안될 정도이고 일주일에 4~5일을 서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하는 친구에게 병원을 거의 맡기다시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정차인과 관련된 보람에 참여하려고 들었는데 현실정치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김근태 의원과 우연히 인연을 맺어서 그 분이 중심이 된 한반도재단의 운영을 돕고는 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운동입니다. 저는 현실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저술, 강연, 컨설팅을 하는 '1인 기업', 혹은 '지식 판매자'로서 스스로의 미래 역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다만 하는 일의 속성상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김근태 의원의 정치적 입장과는 무관하게 철저하게 일의 영역입니다.

취미생활, 개인적 취미와 종교는 어떻게 됩니까?

대학동기인 집사람이 안동 의료원에 근무중이고, 2남1녀가 있습니다. 종교는 가족이 전부 독실한 카톨릭신자이지만 저는 거의 열외 상태입니다. 취미는 책읽고 음악을 듣는 것에 심취하는 편이고, 요즘은 미술함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운동은 시간이나 재능이 모두 부족합니다.

2007년 정태년을 맞이하여 개인적인 다짐이 있다면,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회원들에게 주시길 바라는 메시지는?

지금까지 네 권의 책을 썼고(한 권은 공저), 그것이 다행히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올해 두 권의 책을 더 쓸 생각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컨설팅 영역의 일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제 금융권에서도 2007년 증권선물인상을 수상할만큼 나름대로 주류에 진입했으므로, 다만 이 과정에서 의사 동료 선배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자랑스러운 동료로 되기 위해 애쓸 생각입니다. 또 의사회는 작년 회장님의 의협회장 도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비주류의 시대, 지방의 시대에 걸맞게 경북도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윤리강령

제 정 1997. 4. 12
전문개정 2006. 4. 22

1. 의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의료를 걱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사람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헌신한다.
2. 의사는 학문적으로 인정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며, 상호간에 우애, 존경, 신의로써 대하고,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3. 의사는 최신 전문적 의학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 공중보건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한다.
4. 의사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 환자의 의사와 선택을 반영함으로써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5. 의사의 진단과 치료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환자에 대한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환자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의 개선과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6. 의사는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진료방해, 과잉진료요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거부함으로써 건강한 진료문화의 발달에 기여한다.
7. 의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가 인간답게 자연스런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8. 의사는 인체 및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하여 피험자의 생명, 건강과 인격을 존중하고, 윤리적, 사회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의술 향상 및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대한의사협회



아리수(阿利水)와 서라벌(徐羅伐)

오사카(大阪)에는 백제역(百濟驛), 백제천(百濟川), 백제교(百濟橋)가 있는데 이는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정착한 것을 의미한다. 경주에 개업해 있으면서도 간판을 서울내과, 경북치과 등으로 걸고, 아랫시장에 가면 국밥집 이름에 안동집, 충무집도 있다. 하물며 나라 잃은 슬픔, 고향 잃은 아픔이야 오죽 했으랴!

나는 박혁거세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경주에 천년의 신라를 창업하였을까하는 의문을 품으면서도 건국신화니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다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 압록강(鴨綠江)을 이두자로 쓴 옛 이름이 아리수(阿利水), 아례강(阿禮江)이고, 『일본서기』에는 신공왕후(神功王后) 18년에 신라를 정복했을 때 내해니사금(奈解尼師今)이 아리나례가와(阿利那禮河, 나례, 나리는 내. 川. 경주의 알천으로 보임)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광개토태왕비문에는 광개토태왕이 아리수를 건너 백제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리수는 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주 북천(보문에서 경주 시내로 흐르는 강)의 옛이름이 알천(關川, 지금도 보문 올라가다 보면 알천교 다리가 있음)임을 알게 되었다.

결국 압록강, 한강, 경주 북천의 옛이름이 이두문으로 아리수, 알천인 것이다.

경주의 옛이름이 서라벌(徐羅伐), 서나벌(徐那伐), 서벌(徐伐), 서야벌(徐耶伐), 새벌, 셔벌, 쇠벌(金城)이며, 상주의 옛이름이 사벌(沙伐, 상주에는 사벌왕릉이 있음)이고, 의성의 옛이름이 고소부리(古所夫里, 소부리를 빨리 읽으면 소불)이고, 부여의 옛이름이 소부리(所夫里)임을 알고 무척 놀란 적이 있다. 이두문으로 서라벌, 새벌, 사벌, 소부리는 다 같은 음역이며 수도 서울을 뜻한다. 지금의 서울이라는 명칭이 서라벌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신라 1대 임금(박혁거세), 2대 임금(남해차차웅), 3대 임금(유리이사금) 때 신라는 동옥저(B.C 5), 낙랑(B.C 28, A.D 4, 14, 36, 37), 화려(A.D 40), 불내(A.D 40), 맥(A.D 40, 42) 등의 북방세력과 접촉하고 있었다. 특히 남해 차차웅 11년의 기사를 보면 왜인들이 신라의 해변의 민가를 노략하니 신라군이 해변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그 틈을 노려 낙랑이 금성을 공격하다가 알천을 거쳐 후퇴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이 맞다면 낙랑의 위치를 보아 금성은



백승인
백승인소아과 의원(경주)



서울, 알천이 한강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기록이리라.

다음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중 신라가 북방 세력과 접촉하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혁거세 거서간(赫居世 居西干)

30년(B.C 28년) 낙랑(樂浪)군사들이 침범하였다가 그냥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53년(B.C 5년) 동옥저(東沃沮)의 사신이 좋은 말 20필을 바쳤다.



남해차차웅(南解次次雄)

원년(A.D 4년)에 낙랑의 군사가 금성(金城)을 포위하였다가 돌아갔다.

11년(A.D 14년) 왜인들의 병선 1백여 척이 해변의 민가를 노략하니 병사들을 출동시켜 막았다. 그러자 낙랑이 그 틈을 노려 금성을 공격하니 상황이 매우 위급하였다. 밤에 유성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자 무리가 두려워 물러나 알천(關川)가에 주둔해 돌무더기 스무 개를 만들어놓고 달아났다. 병사 1천 명이 추격했는데, 토함산 동쪽으로부터 알천에 이르러서 돌무더기를 보고 적의 규모가 큰 것으로 여겨 추격을 그쳤다.

유리이사금(儒理 呂師今)

13년(A.D 36년) 낙랑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타산성(朶山城)을 공격했다.

14년(A.D 37년)에 고구려왕 무휼(無恤, 대무신왕, 유리왕의 셋째 아들)이 낙랑을 습격해 멸망시켰다. 그 나라 사람 5천 명이 투항해 와서 6부에 나뉘어 살았다.

17년(A.D 40년) 화려현(華麗縣, 낙랑 25국 중의 하나), 불내현(不耐縣, 낙랑군중의 하나, 함흥) 사람들이 함께 모의해 기병을 이끌고 북쪽 지역을 침범했는데, 맥국(貊國)의 우두머리(渠帥)가 군사를 동원하여 고하 서쪽에서 요격해 깨뜨렸다. 왕이 기뻐하여 맥국과 우호를 맺었다.

19년(A.D 42년) 가을 맥국의 우두머리가 사냥해 잡은 짐승을 바쳤다.

다음의 기록은 4대 임금 석탈해왕 시절 충청도 지역(진천, 청주, 보은)에서 마한, 백제와 접촉하는 기사들이다. 한강 지역에서 충청도로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탈해니사금(脫解尼師今)

5년(A.D 61년) 마한의 장수 맹소가 복암성(覆巖城, 서울에서 청주 사이의 진천)을 들어 항복하였다.

7년(A.D 63년) 백제왕이 영토를 넓혀 낭자곡성(娘子谷城, 청주)까지 이르러서 사신을 보내와 만날 것을 청했으나 왕이 가지 않았다.

8년(A.D 64년) 백제가 군사를 보내 와산성(蛙山城, 보은)을 공격하였다. 왕이 기병 2천명을 보내 공격해 쫓았다.

10년(A.D 66년) 백제가 와산성을 공격해 탈취하고, 2백명을 두어 지켰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빼앗겼다.

19년(A.D 75년) 백제가 서쪽 변경의 와산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

20년(A.D 76년) 백제를 쳐서 와산성을 다시 회복하고, 백제로부터 와서 살고 있던 2백여 명을 모두 죽였다.

다음 기사는 5대 파사왕 때 영남지역에서 주로 가야와 접전하는 기록이다. 서울과 충청도에서 더 남하한 것으로 보인다.

파사니사금(婆娑尼師今)

14년(A.D 93년)에 고소부리군(古所夫里郡, 의성)을 순행하였다.

15년(A.D 94년) 가야의 적군이 마두성(馬頭城, 함양)을 포위하였다. 아찬 길원을 보내 기병 1천 명을 거느리고 쳐서 쫓아냈다. 가을 8월에 알천(閼川)에서 군사를 사열하였다.

17년(A.D 96년) 가야인들이 남쪽 변경을 습격하였다. 가소성주(加召城, 거창) 장세(長世)를 보내 막게 했으나 적군에게 살해되었다. 왕이 노하여 용사 5천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워 그들을 쳐부수었다.



22년(A.D 101년) 봄 2월에 성을 쌓고 월성(月城)이라 하였다. 가을 7월에 왕이 월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BC 57년 박혁거세가 서나벌(徐那伐)을 창건한 후 AD 94년 신라 5대 임금인 파사왕대에 와서야 경주 알천

에서 군사를 사열하고, AD 101년에 월성을 준공하고 월성으로 입궐하게 된다. 개국 후 150년~157년의 세월이 지나 천년 고도 경주의 역사의 장을 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신라인들은 고향, 조국을 떠나 이름 모를 타국, 타향에 정착할 때마다 그곳의 강을 아리수라 하며 부족의 이름,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불렀을 지도 모른다. 그들은 만주에서 남하하여 압록강(아리수), 한강(아리수)을 넘어, 서울(서나벌), 상주(사벌)를 거쳐,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의 경주(서라벌), 북천(알천)에 정착한 것은 아닐까?

잠시,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정처없이 조국을 떠났던 퓨리탄(영국 청교도)들을 생각해보자! 1620년 12월 26일, 영국 성공회에 저항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국 남단의 항구 플리머스(Plymouth)를 떠나 긴 항해 끝에 드디어 미 북동부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이곳이 오늘날의 보스턴 남동쪽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구다.

이들이 플리머스를 떠나 또 다른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세웠던 것처럼, '북방에서 발원한 신라인들이 오늘의 경주에 이르기까지 남하하는 과정에서 가는 곳마다 고향의 지명이나 강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은 필자를 포함한 일부 몇몇 사람의 허황된 억측일까?

참고문헌

『조선상고사』, 단재 신채호 저

『삼국사기』

『일본서기』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 기원』, 김성호 저

한국의 의정회 이대로 좋을까?
— 그 존재 가치와 개혁에 대한 제안

지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협회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 결과를 떠나 의협 역사상 초유의 가슴 아픈 일이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긴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의정회와 관련된 것이었다. 수시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의협회장의 의정회비 부정사용과 대의원 의장의 의정회비 사용 내역,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장사본 제출 요구에 대하여 의정회가 불응한 것과, 의정회장 유고 시 의협회장의 의정회장 겸임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회원들은 의정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정회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일은 의정회 무용론이나 대개혁을 외치고 있는 회원들의 타오르는 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1970년 창립 당시 의정회는 의협의 사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의협회원으로 구성되고, 재정도 특별금고로 의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사무국도 의협 사무처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회무와 중요

사업을 의정회장과 의협회장이 서로 의논하여 운영하도록 규약에 명시함으로써 의협의 산하 단체와 대동소이하였다. 그러나 의정회는 의협의 다른 조직과는 달리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별개의 기구로 만들어 졌다. 이것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불필요한 감사를 피하기 위

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한 이것이 의정회를 의협정관에서 배제시키고 의협회장이 의정회장직을 겸임하지 않는 이유이다.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박희백 회장님께서 오랫동안 의협의 대외 로비 창구 역할을 수행해오시다 물러나셨다. 그 후 공석이 된 의정회장 자리를 의협회장 본인의 요구와 시도회장들의 묵시적인 승인(?) 아래 의협회장이 겸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의정회 규약을 보면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위임한 부회장이 직무를 대리할 수 있고, 의협회장과 시도회장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새로운 의정회 회장을 추천하고 선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의협



변영우
선린의원(경주)
의협대의원회 부의장



회장이 의정회장을 겸임하는 것은 의정회 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설립취지에 도 어긋난다.

의정회를 창립했던 당시에 비하면 현재의 의료, 정치, 사회의 환경은 많이 달라져 있다. 창립 당시의 그 목적과 주된 임무는 대국민 홍보사업,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보건의료조사, 정책개발 등과 대정부, 대국회 로비였다. 당시 의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는 의정회 뿐이었으며, 그간 의



정회는 의사들의 사회적 위상과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금 의협에는 그 목적과 임무가 의정회와 유사한 기구가 많이 생겨났다. 의료정책연구소, 국민건강위원회, 의료지식향상위원회, 대선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등의 기구가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임이사들까지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요즘에는 의정회의 활동이 매우 위축,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대외 로비와 같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의정회의 활동이나 재정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의정회 조직에는 창립부터 감사제도가 없고, 대신 의협회장과 대의원의장(당연직 상임고문)에게 회계감독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회계 감독권을 가진 의협회장이 회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체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기대의원 총회 말미에 형식적으로 의정회비의 예.결산 보고를 하고 추인을 받았다. 이러한 요식적인 행태는 대의원들의 불신만 초래하였고, 의정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최근에는 정치인들의 의식과 정치행태, 그리고 활동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국회의원의 연령이 많이 젊어졌으며, 초선(보건복지위원 19명 중 15명이 초선의원)이 대부분이다. 또한 새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매우 강력하고 투명하지 않을 수 없게 바뀌었다. 잘못하다가는 정치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인지기 요즘 정치인들에게는 음성적인 로비는 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돈이 많이 들지 않도록 되어 있어 그들도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후원을 원하고 있다.

또한 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법인의 경우 후원

금등 정치자금을 제공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의협의 이름으로는 후원금을 낼 수가 없다. 자연인인 개인만이 할 수 있고, 후원자에게는 충분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정 후 몇 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국민이나 정치인 모두 이 법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의협이나 의정회 이름으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정치후원을 하다 적발되면 법적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후원을 받은 정치인까지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정회의 중앙조직은 필요 없게 되었다. 대신에 의협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 정도의 기구를 만들어 의협부회장 중 한 명이 실무를 맡고, 협회장이 총 지휘를 맡으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중앙의정회의 소요되는 경비의 의협회비 중 특별 항목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의협회장의 판공비로 변경하여 적절히 사용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축소 개편하면 의정회를 정관에 포함시키지 않는 특별 조직으로 둘 이유가 없고, 또한 의협의 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회원들의 불신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의정회 개편의 핵심은 조직의 개편 뿐 아니라 그 역할의 변화이다. 정치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표와 돈이다. 현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지지표와 후원금, 둘 다 줄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사회의 회원들을 통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제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가 할 일은 직접 후원금을 주는 일보다 법 개정이나 의료정책을 올바르게 펴기 위해서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내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기획 조사,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것을 회원들에게 홍보, 안내하는 일이다. 그밖에 지금까지 의정회가 해왔던 대부분의 역할은 시도회장들에게 위임하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얼마 전부터 회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협회비와 의정회비를 함께 거두고 있다. 의정회비는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성금 또는 후원금 성격의 회비로서 의협정관에 없는 회비다. 어떻게 보면 의정회비는 내어도 되고 안내어도 어쩔 수 없는 성금 성격의 회비다. 의정회비를 안내었다

고 의협회비를 미납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회비와 함께 강제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슬쩍 세칙 개정을 했다. 이것은 의정회비를 쉽게 거두기 위한 행정편의주의로 회원에 대한 기만이며 정관 위반이다. 이는 재개정되어야 한다. 의정회비도 시, 도의사회나, 시, 군, 구 의사회에서 관여해야 효과적으로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회원들의 회비 납부방법도 다양화해서 자율적으로 일정액의 정치후원금을 정치인에게 낸다면 의정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일정액의 후원금을 내면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도 있어 회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의 총액수가 크게 늘어나고 정치권에서도 의사들의 위상과 함께 영향력이 높아져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의정회는 많은 활동과 업적을 이루었으나 이제는 그 활동이 미약하고 조직이 무겁고 노쇠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다가 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하여 현실 정치에 맞고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전 회원적인 참여를 희망하기에 앞서 우리를 선도할 수 있는 의정회(또는 그 유사기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기대해 본다.

서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양,한방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세계의학의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있다. 국민은 의료 선택에 어려움을 느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때로는 중복치료 혹은 상충된 치료로 혼란과 낭비를 겪고 있다. 한의학계의 주장대로 세계적인 한의학이라고 한다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통합된 의료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일층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양쪽 모두 상호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해안과 묘책이 없는 것 같다. 의사 한의사 모두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의 제도로는 곤란하다. 우리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기에 지금까지의 주장들(글쓴이의 주장이 아니라, 1600여 쪽의 자료 참조)을 간략하게 subnote식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한 나라의 의료제도에서 서양의학이 전래되기 이전에 지배적이었던 전통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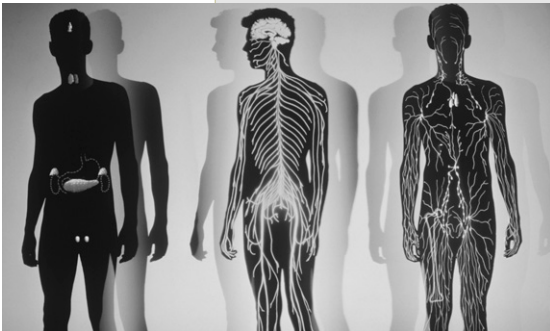
이 자리매김되는 양상은 일반적으로

- 1)지배적인 서양의학만이 합법적 제도의학으로 인정되는 독점적 체계(monopolistic system)
- 2)합법적 제도의학은 오직 서양의학이지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전통 의학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관용적 체계(tolerant system)
- 3)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이 양립하며 별도로 존재하는

이원적 체계(inclusive system)

4)전통의학과 서양 의학을 모두 인정하여 하나의 체계로 결합된 통합적 체계(integrated system)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갖춘 위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2)관용적 체계와 3)이원적 체계의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보여진다. 이는 한의학에 의한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정책적, 제도적으로, 혹은 환자로



김재왕
김재왕내과(안동)



부터 소외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서양학과 전통의학이 하나로 결합되지 않는 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의료이원화의 제도 속에 있다.

2. 세계적 추세와 주변국의 실태

1) 세계적 추세

일부 미개발 오지는 아직도 전통의학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열악한 의료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문명의 혜택이 주어지는 모든 나라는 앞의 1)독점적 체계나 2)관용적 체계 속에 있으며 현재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 자연주의 에로의 회귀 현상으로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함께 2)의 관용적 체계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1)과 2)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2) 주변국의 실태

① 일본의 실태

일본 역시 전통의학만이 존재하던 시대에서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여 왔으며 독일 의학을 채택하여 1)의 독점적 체계로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다.

② 북한의 실태

북한은 우리와 같은 전통의학의 시대에서 일제 강점기와 해방을 맞는 같은 역사 속에서 김일성 주체사상, 열악한 여건 등으로 오히려 동의학(東醫學 : 북한식, 주체의식적 전통의학의 명명. 동국(東國), 해동(海東) 등에서 동(東)은 우리나라를 뜻함 우리가 한의학(漢醫學)에서 한의학(韓醫學)으로 바뀐 것과 같은 개념)은 북한 의학에서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육성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이 동의(東醫)였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③ 중국의 실태

중국 역시 서양의학(西醫)과 동양의학(中醫)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으며 공산화와 폐쇄정책을 지향하던 모택동의 칙령에 따라 열세에 있던 중의(中醫)를 전통 의학으로 육성하려 국무원 산하에 별도로 중의학 관리국을 두어 대등한 상태를 형성해 왔으며, 주은래가 천식으로 치료 중 서의(西醫)와 중의(中醫)가 모두 좋았으나 결합하면 더 좋겠다는 권유에 따라 결합의 제도가 생겨 현재는 서의(西醫), 중의(中醫), 결합의(結合醫)가 있으며 결합의(結合醫)에 대한 관심이 쏠리며 인

기도 치솟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교육제도는 우리와 같이 서의(西醫) 과정과 중의(中醫) 과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결합의(結合醫)는 각각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 추가로 2년간의 상대쪽의 임상과정을 공부함으로써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3. 의료 이원화의 문제점

이는 일부 혹은 다수의 한의사를 제외한 의료인과 국민, 정부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있다.

- 1) 같은 질병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환자가 각자 알아서 치료해야 하는 상태로 국민들의 혼란이 매우 크다.
- 2) 중복 치료, 혹은 치료의 시기를 놓칠 의료 공백으로 인한 낭비와 위험이 매우 크다.
- 3) 양방과 한방의 약물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더욱이 한약은 그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4) 청진기, 혈압계, 임상병리검사, CT, 침의 사용에서처럼 상호 업권에 대한 시비가 계속 될 것을 우려한다.
- 5) 한의학 자체의 퇴보성과 응급수술과 같이 독자적으로 모든 병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으므로 일원화로 가야한다.

따라서 정부, 국민, 의료계(의사, 한의사) 모두가 일원화로 가야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일부 혹은 다수 한의학계 반대).

4. 의료 일원화를 보는 시각(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1) 국민의 입장

양, 한방을 막론하고 최상의 적절한 치료를 받고자 함

2) 의사를 중심으로한 의견

의료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협의 의료 일원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구별을 없애고, 의학 과목과 한의학 과목을 포함하는 개편된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 ② 졸업 후 모두에게 동일한 신제 통합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 ③ 종합병원에 한의학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신설한다.

④ 신제 의과대학에 한의학과 대학원 과정을 신설한다.

⑤ 기성 의사 및 한의사는 보수 교육과 시험을 거쳐 신제 통합 의사, 또는 한의학과 전문의로 전환하고, 만약에 상대편 의학의 수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존의 의사 및 한의사로 존존할 수 있게 한다.

3) 한의학계의 의견은 대체로 미온적이며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

다수의 한의과 대학생을 포함한 일부 한의학계로서 의협의 일원화 방침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룹

두 번째 그룹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아직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시기상조이다. 한의학이 충분히 체계화되지 못해 지금 일원화를 실시하면 양의학에 흡수통합이 될 것이므로 한의학을 국가가 지원, 성장시킨 후에 일원화를 하자는 그룹 ⇒ 이는 북한이나 중국이 한의학을 대등한 수준까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여 육성시킨 것과 같은 정책을 요구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 특성화를 주장함으로써 정책입안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한의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기도 함

세 번째 그룹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아예 접근방식이 다르므로 다른 패러다임의 의학임. 두



의학은 상호보완적이므로 의료 이원화의 문제점보다 장점이 더 많아 지금의 제도가 오히려 좋다는 매우 배타적인 그룹으로 이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

① 이원화 의료체계는 국민들의 적절한 의료선택과 적절한 치료시기를 정함에 혼란이 매우 크다.

최선의 치료라는 것은 누가 판단할 것인가? 양의들이 그 판단의 주체라고 하면 자만심이 지나치다. 국민들의 의료지식(한의학 포함)을 폄하하지 말라. 국민들은 지금 잘 선택하고 있다.

② 중복치료나 치료가 빠질 수 있는 이원화는 낭비적 요소가 있다.

a. 낭비적 요소는 양방의료 기관의 대형화, 상품화,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크다.

b. 동일한 질병에 대해 이중적 진료를 한다는 양방의 주장은 틀렸다. 아직까지 어느 의학도 부작용 없는 완전한 의학이 아니다. 두 의학이 경쟁적이 아니고 보완적이며 두 가지를 치료를 함께 하여 좋아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③ 입증되지 않은 한방 사용은 문제가 많다.

수백년 전 동의보감의 사용등을 문제삼고 있으나 한방은 이천년의 세월동안 임상을 통해 그만큼 검증된 의학이다.

④ 이원화의 상태에서는 업권의 시비가 끊임없다.

상당수 양의들이 청진기, 혈액분석기 사용을 지적, 불법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양의학계의 낮은 윤리 수준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 진단기기를 사용한다고 침 놓는 자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진단시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보다 나은 진단을 위해서 가능한 필요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같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고 윤리가 아닌가? 양의계가 한의학계를 보는 시각은 무지로 가득 차 있다.

이상과 같이 매우 배타적이며 특히 ④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전인수격의 생각을 하고 있어 논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한의계의 주장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한 것은 우리와 다른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기에 좀더 지면을 할애하였다.

4) 정부의 입장과 정책

① 일원화를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은 하고 있음

② 효과가 입증된 침술, 생약의 연구등이 국가적 경쟁 가치가 있다고 생각, 이

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4-3)의 두 번째 그룹주장과 상당히 유사하다.

③ 구체적 일원화의 방법에 대체해서는 각계의 의견 수렴중이라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음

그러나 한의학대학원 설립(위의 ②번의 주장을 강화하는 정책)과 같이 오히려 일원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듯 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5. 의료 일원화로 가기 위한 방법

1) 질병 분류 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의학계를 압박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질병 분류가 선결되어야 함. '간에 열이 있다' 등의 진단으로는 진단이나 치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만약 간에 열이 찬 병이 확립된다면 한국의 '화병'이 세계적인 진단이 된 것처럼 '간열병' 같은 신생진단을 만들어도 좋겠다. 국제질병분류기준의 사용은 한의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나 내부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임상적 측면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원리, 방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상이점을 찾아 공통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상반된 것은 임상을 통해 취사선택해 간다.

3) 의과대학 교육적 측면

① 중국식 결합의와 같은 방법

앞에서 기술 했듯이 양,한방 각각 서로 반대쪽 교육과 임상실습을 2년간 추가하여 결합의가 되는 방식을 이용한다.

② 완전한 일원화 교육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현재의 교육과정중 공통적인 것, 유사한 것, 상이한 것을 구분한 후 통합하고 추가 교육함→결국은 대학 통합이 완전한 일원화로 가는 길임

4) 연구적 측면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도 양,한방 공동연구가 필요하며 효과가 입증된 경우 임상에 적극 활용하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도 보조적 사용을 가능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한다. 결국은 한 사람의 의사가 양측면을 다 알고 행한다는 것이 중요함

5) 행정적 측면

이상의 것을 추진, 연구하기 위해 의료계(의학계, 한의학계),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함께하는 가칭 '의료 일원화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 지속적으로 연구,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공청회를 갖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 의료 일원화의 걸림돌

일원화로의 방법은 이상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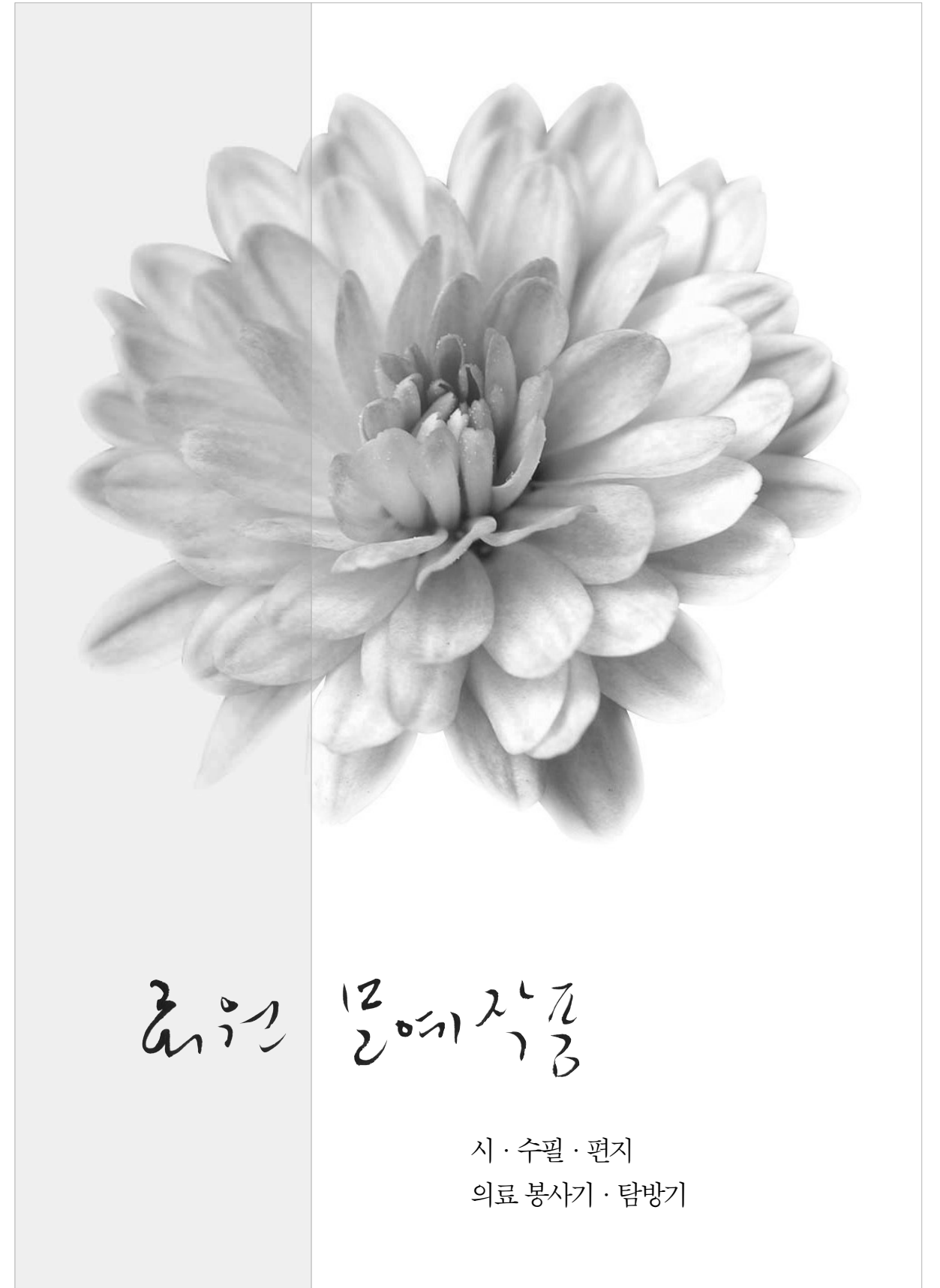
- 1)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선 다급하다는 생각이 없고
- 2) 정부의 의지도 강력하지 않으며
- 3) 양측 의료계의 생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 4) 일원화로 가는 과정에서 이권에 대한 침해한 대립이 예상되므로

→ 원론적으로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쉽게 끄집어내어 쟁점화하려 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맺는 말

위에서 정리한 양측의 시각의 차이를 보면 매우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의료 일원화는 영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다. 국민의 최상의 건강을 위한 것이 의료라고 한다면 어차피 일원화로 가야할 것이고 그렇다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급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측 의료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방대한 자료가 있었지만 원론적이며, 반복되거나 상세하게 풀어쓴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고 핵심은 이상의 것으로 간략하게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양의 문헌을 정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빠진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계속 연구하고 정리해 나가주시리라 생각한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의료일원화에 대한 지식을 정리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공헌 문예작가

시·수필·편지
의료 봉사기·탐방기

풍란

손장락 · 손의원(안동)

어디로 바빠 가는 건가
 고운 님 기다리시는 건가
 예쁜 흰 모자에는 노란 꽃송이
 땀기꼬리 길게 늘어뜨리고
 바람에 나부끼며
 가벼운 발걸음
 꽃 양산 그늘 지우고

입맞추다 숨쉬면
 흩어 날아 갈까
 여린 마음
 닿으면 깨어질라 하지만
 고귀한 기품
 서릿발처럼 서리고

산들바람 오고 가고
 들꽃 수줍게 피는 저 언덕 넘어
 너의 모습
 잊혀짐 속에 떨어져 간다 해도
 아스라이
 바람에 묻어 온 향기
 언제까지나 마음에 실려 있다
 언제까지나



수술실

안길룡 · 안외과의원(김천)

비오는 밤
 만신창이 배가 되어
 가늘게 흔들리는 촛불이 되어
 눈감고 누운
 창백한 생명이 되어

오장육부를 파헤치고
 신들린 무당처럼 전신이 피에 젖어
 이제는 내 기도도 젖어
 선지피에 젖어

독수리 눈빛의 이론으로
 사자의 심장으로
 부드러운 손결로 칼을 잡고
 초라한 내 의술을 온몸으로 바치는 까닭은
 더러운 육신을 구함이 아니오
 한줄기 바람이 되어 스민
 생명이 숨쉬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의 칼을 버리지 않은 까닭은
 또렷한 별빛이 되어
 생명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꿈의 시절 외 1

김의홍 · 김의홍산부인과의원(구미)

꿈을 꾸다 혼곤한 꿈을
결코 깨어나지 않을 꿈을

얼마나 오래 오래
끌어갈 수 있을까

쓰러져 가는
저 미몽처럼 모두들
욕망의 끝으로 흘러간다

그 푸르렀던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



봄날은 간다

지나쳐 가는 모든 순간들이
부초처럼 덧없고 덧없다

그러나 한번 또 한번
되돌려보고 싶은
시간들이 사람들이 있다

허둥지둥 물같은
세상은 세월은
잘도 가버린다

너와 내가 섞인
애증의 연기처럼
회한의 안개처럼 사라진다

따스했던 아스라한 봄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미지의 희망사항



의
학
제
사
행
시

지난 해 5월 28일(일) 경주 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28회 경북의학제에서 삼행시 「항생제, 건강백세」의 시제로 50여 작품이 출품되었다.

— 편집자 주

<장원>

이은현/포항성모병원 정철 회원 가족

항상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처럼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어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당신

제게는 제일 소중한 당신이랍니다.

<차상>

정재호/한양정형외과의원(김천)

항생제 많이 쓰면 나쁜 의사인가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판단입니다

제 소신 지켜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변영우/선린의원(경주)

항상 꽃피는 오월에 열리는 경북의학제에 참가한 의사가족들

생고무 같은 탄력으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네

제 흥에 겨워 얼씨구나 지화자 좋구나!

<차하>

김하은/최소아과의원 가족(포항)

건강하고 활기차게

강력하고 짱! 멋있게

백살까지

세상을 아름답게 살다 가리라.

이지원/하양중양내과의원 가족(경산)

항상 밤낮으로 아픈 환자들을 돌보시는

생활을 하는 우리 아빠! 정작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데……

제발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최예환/제일의원(봉화)

항상 이맘 때면 찾아오는 경북의학제

생동하는 의사들의 단합하는 이 자리

제군들아! 모이시라 내일의 의료 위해

<참방>

이영희/신명준외과의원 가족(포항)

항시 대기중

생명의 파수꾼

제 몸 희생하여 국민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대는 의사

장유석/장유석외과의원(경산)

항상 웃으세요 쩡그리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제일 아름다운 당신의 얼굴입니다.

박현빈/우리삼성안과의원 가족(칠곡)

건초에서 이슬이 맺히듯

강물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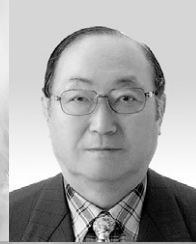
백 가지 질병 앞에서도

세심한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만이 살길이지요.



나의 골프 이야기

추성수 · 추성수이비인후과의원(포항)



골프(golf)를 처음 접한 것은 1955년경이었다. 진해 해군병원에 시멘트로 만든 미니 골프장으로 퍼팅으로만 치게 만들어진 오락(?) 골프장이었다. 그나마 쉬는 시간에 이용하기 좋았고 너도나도 즐기다 보니 해군병원 측에서도 골프대회를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많은 군의관들이 골프 대회에 참가를 하였다. 나도 참가를 하여 72타로 1등을 하고 상을 받아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여러 곳으로 전속이 되었는데, 골프장이 적었던 시절이라 운동 삼아 골프를 할 기회도 거의 없게 되었다. 1970년에는 포항에도 다행히 실내 골프 연습장이 생겨 새벽마다 연습을 하러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연습장 주인이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치라'는 자세 지도는 전혀 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듯 해서 그냥 공만 치고 돌아오곤 하였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무미하게 한 달이 지나고 말았다. 그리고는 그만 두었다가 1979년 중반 무렵이 되어서야 포항의 해병사단 골프장에 나가 주 2회 정도 새벽에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 27일 새벽에 골프채를 메고 동행하는 친구가 있어 집 앞까지 나가니 새벽 뉴스에 박정희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서거하였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운동을 다시 중단하였다. 그 후 경주 신라CC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정상 자주 운동은 못하였다.

1996년은 내가 잊지 못할 해이다. 해병사단부대 골프장에서 내가 사고를 당한 해이다. 사단 골프장은 9홀로 2바퀴 도는 미니 골프장이라 초보자도 많고 늘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다. 그 날도 3홀에서 퍼팅하려고 서 있는데, 4홀에서 다른 멤버가 친 공이 위치를 벗어나 우리쪽으로 날아와서는

그만 내 머리에 맞고 만 것이다. 머리에 골프공을 맞고나니 갑자기 이명이 생기고 두통이 동반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잠시 뒤 진정을 하여 구급차를 타고 부대 의무실에서 X-레이 촬영까지 했다. 다른 동료도 이곳에서 남이 친 공에 머리를 맞아 입원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남이 치는 게 지레 겁이 나기도 하였으나, 골프가 노년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되기에 쉽게 채를 놓을 수가 없었다.

2002년에는 모 제약회사 주최로 신라CC에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초청해 골프시합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호텔 마당에서 누군가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는 말을 듣고는 동료들에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바로 그 꼴을 당하고 말았다. 호텔에서는 전날 우리가 가져온 채들을 모아 창고에 보관했었고 그 이튿날 새벽에 골프장으로 옮겨 운동이 끝나자 캐디들이 골프채 인도 확인 사인을 받고는 헤어졌다. 그때 나는 골프채가 고가인지라 도난이 염려되어 운반하는 곳까지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까지 하였다.

그러나 수량이 많아 트럭으로 운반하였는데 하필이면 내 골프채를 잃어버렸던 것이다. 당시 트럭 짐받이에 눕혀져 있는 채를 보고 바로 세워달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일주일후 다시 골프장에 나가기 전 집에서 채들을 확인하니 퍼칭이 없는 것이 아닌가? 부랴부랴 골프장에 전화를 하고 같이 골프를 친 회원에게 혹시나 물어보고 연락을 했으나 오늘 날까지 찾지를 못했다. 아마 차에서 넘어져 있을 때 채가 빠져 나왔던 것을 직원이 다른 사람 골프 가방에 넣었던 것이 아닌가하고 추측해본다(이번 기회에 습득한 회원이 있으면 소식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혼마 LB70g 금도금).

몇 해 전에는 초창기 구입한 신라CC 회원권 시세가 많이 상승하였기에 남에게 양도하고, 그 비용으로 내시경을 지방의 한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내시경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른다.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프린트도 한번 감기면 프린트기 내에 있는 인화지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프린트 인화지를 새로 한 통 구입해야만 하였다. 인화지만 해도 수십 장씩 소모되어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다. 그런 탓에 일본에 가셔도 프린트 용지를 구입하기 위해 사방으로 알아보고 시간을 소모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내시경 이야기를 꺼내니 서로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그 기념(?)으로 내시경을 구입한 사연이니 그렇게 많이 벗어난 얘기가 아니라 본다.

시대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니 회원수도 많아지고, 내 나이도 노년으로 접어드니 의욕이 다소 떨어져 골프채를 놓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골프로 운동을 하는 골퍼들을 보면 그들이 행복하다고 여겨진다. 지금은 골프장이 많아졌고 연습장도 많이 생기고 코치도 많아졌으니 자연스럽게 넉넉한 골프 연습이 되지 않겠는가?

인생은 유한(有限)하니 즐기며 운동하고 가족 중심으로 가치 있게 생활하길 바라며, 나의 골프 이야기를 여기서 이만 줄이고자 한다. 인생도 골프와 같은 굴곡이 있는 것 같다. 오늘 잘 되고 내일은 잘 안되고 하는 굴곡이 어찌면 인생행로(人生行路)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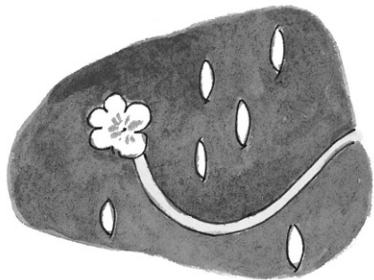


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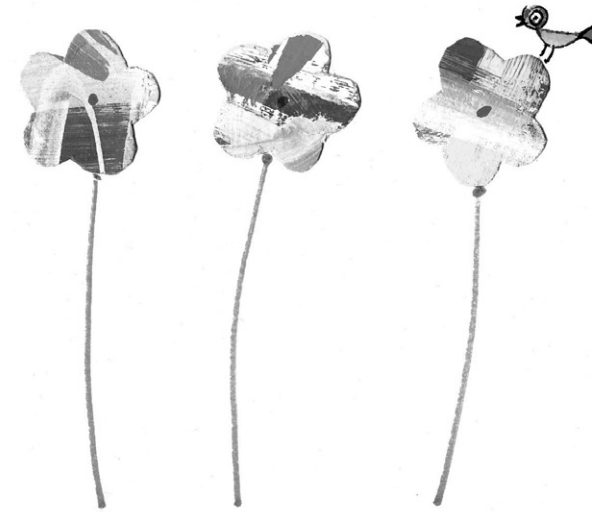
전경홍 ·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진료실로 누군가가 살짝 들어섰다.
 “바쁘실 텐데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애 아빠가 원장님께 갖다 드리랍니다.” 하면서 분홍색 보자기를 들이민다. 명식이 엄마였다. 보자기를 풀자마자 실내는 금새 솔향기로 가득하다.
 “아니, 이 귀한 것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송이를 보니 상등품이었다.
 “일본으로 수출하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데 저를 주시려고 가져오셨습니까?”
 “선생님께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명식이 어머니는 환하게 웃지만 나는 무엇인가 부담스러웠다.
 향긋한 송이냄새는 한 순간에 나를 그 옛날 어린 시절의 기억 속으로 데려간다. 집안 아저씨가 나를 지게 위에 태워 용암 개울을 건너 산 속 깊숙이 큰 소나무 밑으로 데려가, 쌓인 솔잎을 살짝 걷어내고서는 반갑게 송이가 얼굴을 내밀면 그를 곱게 따서 망태에 가득 채워왔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른다.
 옛날 우리 산에도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송이버섯을 많이 채취하였다. 할아버지 생신 때마다 상에 올리던 송이버섯 주물럭 붙고기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함께 즐겨 먹던 가족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그 옛날 행복했던 순간이 되살아난다. 추석 명절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는 송이를, 그중 상품을 골라 사돈댁과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시고 나머지는 일가친척들과 나누어 먹었다.
 근래에 와서는 등산객, 성묘객들의 부주의로 대형 산불이 나서 큰 산의 수목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된다. 또한 소나무의 에이즈라는 흑파리병은 방제에도 불구하고 날로 확산되고 있고, 자연환경이 점점 더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산을 찾을 때마다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자연산 송이버섯은 소나무 수명이 20년 이상 되어야 송이포자가 생성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 송이의 품귀는 계속 될 것 같다.
 식용버섯은 찌리버섯, 느타리버섯, 능이버섯, 상황버섯 등이 있지만 특히 송이버섯은 조미료 없이도 다른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다. 어느 누가 송이버섯으로 음식을 만들더라도 진미의 요리사가 될 수 있다. 송이는 위와 장의 기능을 도와주고 성질이 서늘하고 열량이 적으면서도 맛이 좋아 몸에 열이 많거나 비만환자들에게는 핏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과 각종 암의 예방에도 효능이 있다고 밝혀졌다.
 필자의 조부, 조모께서 건강 장수하셨던 것은 늘 송이버섯을 준비하여 맛나게 조리를 해 드렸던 아버지, 어머니의 효심 덕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된다. 영지버섯이 성인병 예방과 피로 회복에 좋고, 상황버섯은 소화기계통의 위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에 면역기능을 항진시킨다고 하지만 이런 버섯은 활엽수 고사목에서 서식한다고 하니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을지?
 진료실 안에 송이 향내가 진동하니 찾아오는 환자들마다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한다. 질병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송이 내음 덕분에 잠시 미소 짓는 것도 보기 좋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진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활짝 웃으며 진료실을 나가는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사랑과 덕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떠난 후에 향긋하고 은은한 향기로 생의 아름다운 여운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의과대학을 가게 된 동기는 아프리카에서 인술을 베푼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가 되고도 그분이 갔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세월만 보냈으니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자다. 아프리카인들에게 아직도 그 분은 송이 향기 같은 분으로 기억되고 감

사하리라.

나는 호를 백송(白松)으로 쓰고 있다. 소나무 향기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친구들이 지어 주었다. 백송은 소나무과에 속하지만 거목으로 자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는 나무이다. 서울의 수송동, 재동, 내자동 등의 백송은 특히 그 자태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나는 백송이라 불리어질만큼 거목도 못 되고, 유명하지도 않고 또 향기로운 송이의 포자도 뿌리지 못했다. 내 개인의 사정, 혹은 열악한 의료사회 환경을 핑계 삼아 앞으로 나이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 갈까 봐 걱정이 된다.

가끔 보게 되는 일이지만 버섯을 먹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구역질과 함께 계속되는 설사로 탈수가 되며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는 환자를 보게 된다. 대학병원 등에 후송하여도 회생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것이 독버섯 식중독이다. 사기, 절도, 강도, 유괴, 폭력, 살인 등의 범죄자들을 우리는 사회의 독버섯이라고 말한다. 야생의 독버섯은 그 빛깔이 화려하고 모양이 아름답지만 냄새가 지독하여 식별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회적인 독버섯은 구별하여 멀리 하거나 일소하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다. 송이버섯은 솔잎에 덮여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모양이 수수하고, 빛깔도 거무튀튀하여 별 매력이 없어 보이나, 그를 먹는 자에게 영양분을 주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

나는 이 사회에 송이버섯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의료인들이 송이향기 같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으면 더욱 좋겠다. 나 자신 그분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과거 수년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이미 고인이 되신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며 그 그림자라도 따르고자 했던 적

이 있다. 그분의 사랑의 인술과 배품이 한국 의사들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도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그분이 걸었던 길을 따르고 그 뜻을 잇고자하는 모임이 곳곳에 있다니 기쁜 일이다.

명식이 어머니가 과거 만아들이 사경을 헤멜 때 나의 손길을 통하여 그 자식이 소생한 것을 고맙게 여겨 오랫동안 간직해 온 마음이 마치 송이향과 같이 향기롭다. 명식이 어머니뿐 아니라 세상에는 이곳저곳에 송이향기 같은 사람이 살아 있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인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이 송이 선물을 통하여 나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낙락장송 밑에서 송이버섯을 따고 또 밤나무 아래서 알밤을 줍고 흥시를 함께 먹던 개구쟁이들도 만나게 해주었다. 근래 과학영농 기술보급으로 재배한 양송이, 표고버섯 등에 식상해있던 나에게 명식이 아버지가 보낸 솔향기 짙고 먹음직한 자연산 송이버섯은 나로 하여금 의사로서의 지난 수십 성상을 돌아보게 했다. 마치 송이가 수십 성상을 우뚝 서서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낸 육송(陸松)에서 생산되듯이, 지난 세월의 경험과 꾸준한 학구열로 남은 여생도 향민 진료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들에게나마 송이향기 같은 의사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집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당이 넓은 300여 평의 텃밭이 딸린 시골 농가를 10여 년 전에 구입하였다. 아내가 주말농장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파트에 살아 온지 20여 년이라 녹지가 그림기도 했기에, 비록 농사일은 우리 둘 다 경험도 없고 할 줄 모르지만 한번 해 보기로 한 것이다. 집은 수리를 하고 마당엔 잔디를 심고 둘레의 담쪽에는 꽃이 피는 나무들을 심고 밭엔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고 한쪽엔 주차장도 만들었다. 그렇게 머리 속에 설계를 하였으나 그 때는 주말농장으로 너무 크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하여 인근의 축산농가에



서 축산 부산물 퇴비를 한 트럭 사다 밭모퉁이에 쌓아두고 매년 겨울 밭에 뿌리고 봄이 오기 전에 경운기로 갈아 엮기를 3년 동안 계속 하였다. 나무와 잔디는 내가 관리하고 꽃과 채소는 아내가 관리하기로 업무를 분담하고 농약 살포와 경운기로 밭갈기는 이웃 농가에 부탁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밭 100여 평에는 미니과수원을 만들려고 감, 배, 자두, 복숭아, 포도 등 각종 과일 묘목을 각각 몇 주씩 심었는데, 2년쯤 지나니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농약을 사용하여 과일을 재배할 바엔 차라리 시장에서 사서 먹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소위 무공해 재배를 하려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가을에 수확할 과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고, 나무 또한 병들어만 갔다. 그래서 과일 나무들은 모두 퇴출시키고 그 자리에 매실나무 20여 주와 그 사이엔 오갈피 묘목들을 심었다. 이들은 병충해에 강하고 농약이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전지만 해 주면 손이 갈 일이 별로 없다.

매실은 초봄에 꽃이 지고 난 후 한 번만 진딧물 방제를 하고 나면 6월 중순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농약을 살포하지 않아도 되고, 오갈피는 약제로나 술 담그는데 쓰이며 봄엔 어린 잎을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원래 야생이라 농약이 필요 없다. 그리고 밭 주변엔 두릅나무, 엄나무(은계), 치자나무, 살구, 대추나무 등도 심었다. 농약이 필요 없고,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 자라는, 열매가 열리거나 잎을 식용할 수 있거나 꽃이 피는 나무들을 선택했다.

채소밭에는 봄과 여름에는 상치, 썩갓, 가지, 토마토, 깻잎, 옥수수 등 각종 채소를 심었고 가을엔 김장용 무, 배추 등을 심었다. 모종을 심거나 일거리가 많거나 힘이 드는 일은 일손을 빌리기도 하고 이웃 농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농약은 최소량

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 아내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살충제 대신 나무젓가락으로 배추벌레를 잡았는데,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을 수확 때 보상을 받곤 한다.

밭이나 마당은 우리 두 식구가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어서 가물 땀 자동펌프를 사용하여 지하수를 퍼올려 물을 주고 잔디밭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 작업을 하였다.

집 주변에는 블럭으로 담을 쌓고, 낡고 나지막한 기와집은 골격은 그냥 둔 채로 리모델링을 했으며 노래방 기기도 한 대 설치했다. 그리고 마당에는 깔려있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대신 잔디를 심어 두었다.

처음 4~5년 동안에는 시간만 나면 농장에 매달렸다. 겨울철에는 나무들 전지를 하고 봄이 되면



잔디밭의 잡초를 뽑고 여름에는 격주로 잔디를 깔고, 해마다 새로운 꽃과 나무들을 심었는데 가급적 우리나라 토종의 야생화와 나무를 구해 심었고 그 중에는 산행 중 채집한 야생화도 다수 있다. 채소밭은 나보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아내가 도맡아 관리를 한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 년이 흘렀고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도 나의 취미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넓고 푸른 잔디밭과 이제 크게 자란 나무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100여 종이 넘는 꽃들이 피고 진다. 가을과 겨울엔 단풍과 낙엽이 그 운치를 더해준다.

해마다 봄이 되면 몇 가지 나무들을 바꾸어 심는 등 조경을 보완하고 집은 어딘가 수리 보완 할 곳이 생기니 비용이 들고 지방 소도시 주변이라 지가(地價)도 오르지 않았으니 재테크 면에서 보면 손해를 본 투자임에는 틀림없고 가끔씩 일이 귀찮을 때가 있어 괜히 시작했나 하고 후회할 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관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들어간 하지만, 무공해 채소를 늘 먹을 수 있고 가을엔 무, 배추 등을 수확하여 지인들과 나누어 먹고(우리 두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많은 매실과 채소를 수확한다), 해마다 담가 두는 매실주는 몇 년을 묵혀 숙성되고 있다.

여름 밤 마당에 나와 보면 밤하늘의 은하수도 볼 수 있고, 개구리와 풀벌레 우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고향집 같은 시골집에 찾아오는 친지들을 재워 줄 방도 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심심할 때 갈 곳도 되고 가끔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가든 파티도 할 수 있고, 현업에서 은퇴 후에 할 일거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위 “웰빙(Well-being)”으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이니, 삶의 양(quantity)이 아니고 삶의 질(quality)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던가?

음식은 추억이다

김도형 · 현대산부인과의원(안동)



나에게 있어 음식은 어릴 적에 먹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 재생기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릴 적 먹었던 음식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유년의 자락을 들춰보는 일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질문을 받는 이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요즘도 나는 그 시절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떠올리며 이 식당 저 식당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찌 어머니가 해주신 그 맛이 나올 것인가. 주방에 선 채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잠겨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 어릴 적에 가족과 함께 했던 추억이 담겨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다. 졸업식날 아버지가 사주셨던 자장면과 탕수육. 또 매년 가족 소풍에서 먹었던 도시락이나 물놀이 가서 즉석에서 해먹었던 찌개, 매운탕, 백숙이야말로 추억의 음식들이다.

오늘 나의 음식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추억들에서 시작된다.

어릴 적에 당연하게 습관과도 같이 받아들여졌던 음식들이 지금은 노력해서 만들거나 굳이 찾아 나서야 먹을 수 있다니 내게 어른이 되는 것, 나이가 먹는 일은 좋은 게 아닌 듯싶다.

유복한 집안에서 3대 독자로 태어난 나는 13명이나 되는 대식구 속에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다. 13명 중 할아버지, 아버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들이었다. 할머니, 어머니, 7명이나 되는 고모들 중 시집 안 간 4명의 고모, 누나와 두 여동생들 속에서 컸으니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컸으리라는 것은 상상에 맡기겠다.

경주 김씨 판서공파 종갓집 16대 종부이셨던 할머니와 17대 종부이셨던 어머니의 요리솜씨가 어 떠했을 것인가도 역시 상상에 맡기겠다. 끊이지 않는 손님들의 행렬과 집안 대소사의 갖가지 모임을 주관하시느라 두 분의 요리솜씨는 세월과 더불어 탁월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명절날이 되면 12개나 되는 방이 손님으로 넘쳐났고 친척들과 손님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은 요즘의 대박난 유명식당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엌에 걸린 두 개의 가마솥에서는 밥과 국이 무럭 무럭 김을 내고 석유평로 위의 철판에서는 갖가지 전들이 구워져 나왔으며 연탄 화덕 위 석쇠에서는 고기들이 연기를 내며 익어갔다. 물론 손님들은 돌아가기 전에 그 맛난 모든 음식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 때를 떠올리면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일찍이 단련된 내 코와 혀끝의 미각은 기억을 되살려 입안에 군침을 돌게 만든다. 까다로운 미각을 갖게 된 내가 어디에서나, 아무 것이나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과 과의 캠핑도 자연히 망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찌 이런 난관을 가만 앉아서 당할 수 있으랴!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께 음식 만들기를 배우게 되었고 더 나아가 요리학원에 등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남자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것을 크나큰 흥이었다. 엄하고 보수적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을 피해 6개월 동안 요리학원 다니느라 진땀은 꽤나 흘렸지만 까다로운 내 입맛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맛있다고 소문난 집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그 중 입에 맞는 음식을 만나면 그 맛을 기억해두었다가 집에 와서 만들어 보고 만약 그 맛을 따라 잡지 못할 땐 다시 그 식당에 가 주인을 졸라 비법을 전수받고야 말았다.

그렇게 한 두 가지씩 나만의 음식으로 취하면서 기술을 익혀 나갔다. 그렇게 하나씩 모은 레시피가 700가지나 되었고 혼자 가지고 있기에 욕심이 과하다 싶어 CD로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레시피를 보고 만든 음식이 그들의 입맛에도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고자하는 음식점들은 현대



적인 맛을 만들어내는 집들보다는 오래된, 곰삭은 맛을 만들어내는 집을 위주로 하였다.

안동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한 것이 1996년이니 십여 년의 세월을 안동에서 보내고 있지만, 서울과 인연이 깊은지라 서울지역의 맛집들을 위주로 소개하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먼저, 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종로 구 소격동에 '큰 기와집'이란 식당이다. 청주 한씨 종갓집으로 300년을 이어오는 이곳은 간장게장 맛이 일품이다. 100년 가까이 된 간장으로 맛내기를 한 다음, 7년 된 간장으로 게장을 담그는데 비리지도 않고 염도도 적당한데 또 곁들여 나오는 음식이 저마다 깔끔하고 품위가 있다. 맛과 모양을 제대로 갖춘 범절 있는 상차림으로 간장게장 정식

은 최고의 맛 중의 하나다.

누구나 여름이면 냉면과 삼계탕을 최고의 음식으로 꼽을 수가 있겠지만, 나는 냉면을 한식 중에 최고로 꼽으며 전국에 맛있다고 소문난 냉면집은 거의 찾아다닐 정도의 '냉면 마니아'이다. 그래서 냉면에 대해 분류별로 소개하려한다.

냉면은 크게 평양냉면, 함흥냉면, 중부냉면, 진주냉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평양냉면은 메밀면을 쓴다. 육수는 소고기 양지와 동치미 국물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이 평양냉면인데 특히,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은 담백하고 깔끔한 육수와 다소 거친 듯하게 씹히며 고소한 맛을 내는 메밀면발을 으뜸으로 꼽는다. 이런 맛을 느끼고자 한다면, 장충동의 '평양면옥'과 을지로 3가에 위치한 '을지면옥', 서강대 후문에 있는 '을밀대' 등 세 곳을 추천하고 싶다.

그러나 만약, 달콤하고 새콤한 육수를 원한다면 오장동의 '신창면옥'을, 중간 맛을 원한다면 을지로 '남포면옥'에 가보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대구의 계산성당 맞은편 골목 안에 있는 '대동면옥'과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서부면옥' 등이다.

둘째, 함흥냉면은 고구마, 또는 감자 전분을 익

반죽하여 매운 양념장으로 비벼서 고명으로 얹은 무침 회와 소고기 편육 등을 곁들인 것으로 회로는 보통 홍어회나 명태회를 쓴다. 나는 매운 것을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그리 즐기지는 않지만,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영등포의 '함흥냉면'과 오장동의 '홍남집', 부산의 '원산면옥'과 속초의 '단천면옥'이 맛있다.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중부냉면은 면을 메밀로, 육수는 꿩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평의 '옥천면옥'을 꼽을 수 있으며 비빔면의 일종인 막국수도 중부냉면에 포함할 수 있다. 막국수로는 속초 공항 앞 '실로암 막국수'와 춘천막국수 원조집인 을지로 4가에 있는 '산골면옥'에 가면 그 맛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주냉면은 조선 말기 진주 권번가의 야식 및 해장음식으로 쓰이다가 발달한 냉면으로 최근에 복원되었다고 한다. 말린 홍합과 북어, 다시마 등 건어물을 넣어 우려낸 육수에 달군 무쇠를 넣어 비린내를 없애고 그 육수를 식힌 후 소고기 육전과 지단, 고명을 화려하게 얹는 진주냉면의 감칠맛은 좋으나 완벽한 맛을 복원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삼계탕은 호암아트홀 건너편에 있는 '고려삼계

탕'과 신길 5동의 '호수삼계탕'이 맛있다.

가을 음식으로는 낙지볶음과 대하요리가 좋을 듯하다. 막 지어낸 따뜻한 밥에 낙지를 비벼 먹는 맛을 잊을 수 없어 지금도 가끔, 서울을 다녀올 때면 포장용으로 사와 며칠을 두고 먹는데 그때마다 으레 찾는 곳은 '유정낙지'이다. 무교동에 있다가 재개발로 강남역 뉴욕제과 뒤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른 곳에 분점도 있으나 내가 고집하는 곳은 본점이다.

대하요리들 중에서 구이는 재료만 싱싱하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으니 맛집이 따로 없다. 대하점은 장충동 국립극장 1층에 있는 '지화자'에서 먹어본 맛이 제일인 것 같다. 요리연구가 황혜성씨가 딸들과 운영하는 한정식 집으로 차려지는 모든 음식이 정갈하고 맛이 있다. 황씨의 딸들 역시 모두 유명한 궁중요리 전수자로 한복선, 한복례씨이다.

겨울 음식이라면 당연히 따뜻한 국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곰탕이란 드라마의 김혜수와 류시원이 주인공으로 나온— 모델이 된 이 식당은 곰탕집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세인들에게 알려져 왔다. 광고에 있는 '하동관'의 곰탕은 기름을 뺀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나의 입맛에 딱 맞는다. 그 유명하다는 '나주곰탕'도 먹어보았지만 하동관의 곰탕 맛에는 비유할 수가 없다.

설렁탕은 을지로에 본점을 두고 여의도와 명동 등에 분점을 내고 있는 '이남장'의 맛이 일품이다. 또한 종각 근처의 '이문설렁탕'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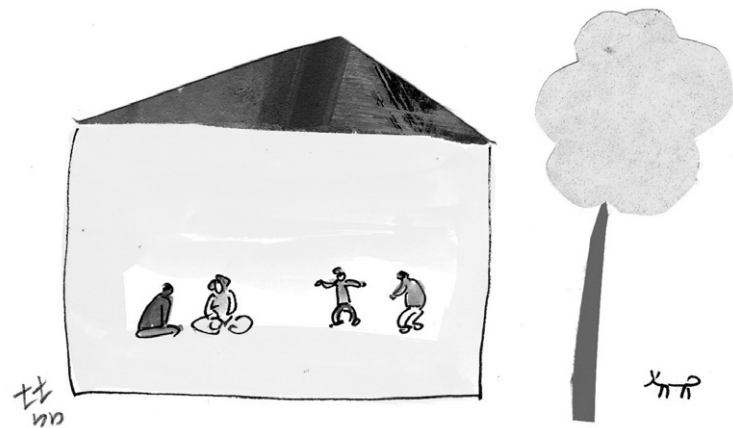
겨울 음식으로 떡국과 만두국도 빼놓을 수 없는데 떡국은 동대문구 용두동의 '개성집'이, 만두국은 인사동의 '궁'과 '사동면옥', 삼청동의 '다락정', 압구정동의 '만두집'과 '목로' 등에서 맛있는 만두국을 먹을 수 있다. 해장국은 용두동의 대성집

과 청진동의 청진옥을 추천한다.

내게 사철음식 중 최고를 꼽으라면 봄철이면 참기름 넣어서 간장으로 간한 더운 밥에 할머니께서 담가주시던 아삭하고 새콤한 오이소박이 하나 척하니 없어 먹었던 밥을 꼽겠다. 여름엔 입맛 없다고 투정하면 찬물에 밥 말아서 장독대까지 쫓아와서 먹여주시던 잘 마른 짭조름한 굴비구이와 오이지 반찬이 더운 여름날 입맛 없을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가을이면 더운 가마솥에서 김을 내며 끓이시던 어머니 솜씨의 육개장에 말아 잘 익은 각두기와 먹었던 밥 한 끼가 그리워지고, 겨울이면 잘 익은 보쌈김치와 동치미를 곁들였던 주먹만한 만두가 똥똥 떠다니던 만두국이 상상 속에서라도 지금도 입맛을 다시게 하는 최고의 밥상이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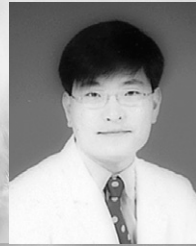
나는 어릴 적 그 맛을 재생해보려 무진 애를 써본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똑같은 레시피라 자신해보지만 그 때의 그 맛을 낼 수가 없다. 아마도 가족 아끼는 그 큰 사랑을 내가 감히 흉내 낼 수 없어서가 아닐까?

지금도 나는 자장면과 탕수육에서 아버지를 추억한다. 중국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들여다 볼 겨를도 없이 자장면이나 짬뽕만 시켜 주시던 아버지는 나와 동생들의 졸업식 날에는 어김없이 탕수육을 추가로 주문해 주시곤 하셨다. 요즘 자장면을 먹는 내 아이들을 보면서 기억의 대물림을 기대해본다. 맛있는 음식 속에서 행복한 가족의 기억을 되살리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삶일 것 같은 생각을 혼자 해본다.



나의 프로 테스트 도전기

김수현 · 현대북원의원(안동)



구력 10년, 핸디캡 10. 4년차에 싱글을 기록한 지 6년이 흘렀으나 나의 골프 실력은 기복이 너무 심했다. 한 달에 평균 한두 번 정도의 라운딩밖에 할 수 없는 주말골프로서 더 이상 뭘 바라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엇 하나에 빠지면 갈 때까지 가보고 싶어 하는 성격 탓인지 만족이 안 되었다. 처음 골프를 배울 때 안동의료원 신현수 원장님께 승부 근성을 혹독히 배워서 인지 80대 초반까지는 빨리 도달했으나 늘 싱글 일보 직전에서 내기를 걸어오는 원장님 덕택에 무너지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80대 초반을 3년씩 치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시기에 78타로 싱글패를 받았다. 인도어 연습장에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프로들에게는 한 번도 배워보지를 못했다. 책을 보고 골프 스타들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고 동작을 만들고 그렇게 혼자서 해온 골프 실력이니 들쭉날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더 일관되고 멋진 스윙을 가질 수는 없을까 하는 바람만 가슴 속에 답답하게 간직한 채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시기에 처음으로 문영민 프로를 만나게 됐다. 내 스윙을 눈여겨보던 문프로는 폼은 좋은데 힘이 들고 순간동작을 억지로 짜맞춘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스윙은 조각그림 맞추기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하면서 말을 걸어온 것이다. 163cm의 작은 키에 아무진 스윙과 구력 35년, 나이는 나보다 두 살 많은 문프로의 렛슨은 예의를 갖추면서도 아주 단호한 어조였고 자기 분야에 대한 카리스마도 강하게 느껴졌다. 렛슨 등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문프로는 한 달여 기간 동안 내 스윙을 봐줬다. 주로 테이크 백을 교정하면서 그 외의 기타 잡다한 중간 동작들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나자 백스윙은 업라이트하게 바뀌었고 끝이 약하기만 하던 공의 탄도는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때쯤 “아, 제대로 사부를 만났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연습이 끝나면 문사부와 저녁 한 끼를 더 먹으면서 소주 한 잔과 골프에 대한 이야기를 맘껏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 일과가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문프로의 렛슨 패턴은 툭툭 말을 던져보고 따라오는 사람만 데

리고 가는 스타일 이었다. 나와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항상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가게로 안내했다. 문프로의 다음 요구는 “스윙 평면이 거의 제자리를 잡은 것 같으니 이제 몸통을 마음껏 돌려 보세요. 연습장에서는 120%의 풀스윙을 해야 합니다.” 하고 요구했다.

점심시간에 한 차례, 그리고 퇴근 후 2시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120%로 죽어라고 공을 두들기기를 또 두세 달, 골프에 처음 입문할 때처럼 체중이 3Kg이나 빠지고 하루 네 끼를 먹어도 배가 고팠다.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한창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참 웃기는 생각도 들었다. 7번 아이언이 150m를 상회하기 시작하고 드라이버는 평균 230m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힘 있는 직선타구 내지는 페이드 구질로 바뀌어 있었다. 평소 문프로의 지론은 “주 구질은 페이드라야 합니다. 절대 드로우 구질은 안됩니다.” 스윙이 어느정도 익숙해지자 라운딩을 오래간만에 해보았다. 디보트 자국은 지폐 크기로 죽 죽 패이고 뒷 땅이나 탐 붙은 거의 없었다. 구력 10년, 4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언제 이런 타구감을 느껴 봤던가!

그러나 구질은 좋아졌지만 스코어는 아직 제자리였다. 뭔가 2% 모자라는 것을 찾기 위해 문프로와 라운딩을 했다. 진단 내용은 우습게도 필드에서도 120%의 스윙에 코스공략도 120%로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스샷이 난 후 라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아직도 긴 클럽을 들고 그린을 향해 바로 쏘아대는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이다. 드디어 처방이 내려졌다. “연습장에서는 120%의 힘과 기량을, 필드에서는 스코어 줄이기가 목적이다.” 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고, “스코어 줄이는데 목표를 둔다.”로 수정되었다. 한두 홀에서 왕창 무너지던 습관이 조금씩 줄면서 스코어도 70대 중후반으로



안정적으로 내려왔다.

공이 안정되기 시작하니 조금씩 욕심이 더 생기기 시작했다. 프로 테스트에 한번 도전해 볼까하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문프로에게 내비쳤다. 내심 달가와 하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문프로의 대답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내년 3월에 경기도 기흥CC에서 전국골프연습장 및 전국대학골프연맹주최로 KGCA(Korea Golf Training Center Association) 티칭프로 라이선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월 회비 부담을 주지도 않고 기타 군소 대회보다 혜택이 많아 요즘 많이 응시한답니다. 라이선스 획득 후에는 몇몇 제휴 CC에서는 그린피 면제 혜택도 있고 회원 연습장에서는 연습장 사용료의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한번 준비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의기투합하였고 테스트 두 달을 앞두고 제자와 사부가 일을 벌렸다.

점심 저녁으로 연습장에서 스윙을 더 정교하게 다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새벽에 일어나 예천 감천면의 파3홀을 라운딩하고 출근했다. 샷 아이언, 또는 미들아이언 이상으로 굴러도 보고 띄워도 보고 클럽에 따른 스핀양도 체크하면서 어프로치 연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3월이면 필드의 잔디가 아직 자라지 않은 시기기 때문에 디봇을 많이 내고 공격적인 스윙을 해야 합니다. 어프로치는 가능하

면 굴리는 쪽으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풀이 감기는 여름과는 스윙이 달라야 합니다. 언덕의 수풀 덩불도 가지만 양상하므로 힘 있는 드라이버로 공략하면 거의 굴러 내려옵니다. 겁먹지 마세요.”, “스윙은 숏아이언, 롱아이언 및 우드, 그리고 드라이버 3단계 스윙을 확실히 분리해야 합니다.”, “페어웨이도 산보다는 절벽 쪽이 낮게 설계되어있기 때문에 핀을 공략할 때 감안하고 오조준해야 합니다.” 등등 몰랐던 지식들이 설새없이 들어오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연습 라운딩을 해 볼 형편이 못된다는 점이었다.

내 본업을 팽개치고 주중에 진료를 비우면서까지 하는 하기가 싫었다. 문프로와 의논 끝에 인터넷에서 코스 그림을 다운받아 매일 한번씩 시뮬레이션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 OB가 나면 나는테로 슬라이스가 나면 나는테로 받아들이고 트러블 샷을 하고 넉다운 샷도 익혔다. 거리를 낼 필요가 없는 홀에서는 3번 아이언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우드로 티샷을 하기도 했다. 날짜가 지나가고 마침내 테스트 3일 전. 아무래도 불안해서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선산CC에 일요일 부킹을 부탁하고 테스트 하루 전이라도 필드를 한번 나가기로 했다.

테스트 하루 전 선산CC에서 한 달만의 라운딩을 했다. 그러나 그 동안 익힌 샷의 감각은 다 어디로 갔는지 거의 90타 가까이 치고 말았다. 참담한 기분으로 선산CC에서 차를 몰아 기흥CC로 향했다. 운전 도중 내 의기소침해져 풀이 죽었다. 알게 모르게 연습장내에서는 소문은 공공연

히 다 나있는 상태이고 괜히 시작했다 싶은 후회가 밀려왔다. 기흥CC 근처에 숙소를 잡아 여장을 풀고 바로 근처 인도어를 찾았다. 거의 두 시간이나 공을 때려도 하나도 제대로 안 맞았다.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공이 이 꼴이 될 수가 있을까?

연습장에서 나와서 바로 기흥 CC로 갔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연습그린에는 반성 퍼팅객들이 한두 명 보였다. 그 때 내 눈에 연습그린 주변으로 죽 늘어선 거울들이 보였다. “그래, 공은 그만 때리고 내일 일찍 와서 빈 스윙으로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지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이 오지 않아 결국 근처 24시 슈퍼에 가서 소주를 한 병과 오징어를 사서 거의 바닥을 비웠지만 그래도 잠이 안 왔다. 투어 프로들은 이 짓을(?) 평생 할 거 아닌가? ‘투어프로도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니겠구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몽사몽 새벽에 몸을 일으켜 모래알 같은 밥을 억지로 밀어 넣고 기흥CC로 갔다. 거울 앞에서 빈 스윙을 하니 웬 머리가 그렇게 벌떡벌떡 들리고 있는지, 아하 헤드업이 원인이었구나! 거울을 보면서 빈 스윙을



하니 10여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스윙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제 간만의 라운딩에다가 술에다가 잠까지 설친 몸이지만 다시 자신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드디어 첫 조가 티오프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편성표를 보니 70명 가까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부분이 골프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이쪽 길로 뜻을 굳히고 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연령도 고등학생 나이에서부터 65세 최고령까지 다양하다. 조 편성을 보니 첫 조였다. 우리 조 모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일찍 끝내고 가라는 안배인가. 첫 홀은 숏홀이었다. 나는 처음 라운딩이니 잘 부탁한다고 캐디 아가씨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그래요? 간도 크시네요. 모두 두세 번 라운딩하고 오신 걸로 아는데.” 동반 멤버들도 “사장님 간도 꺾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연습 라운딩도 한 번 없이 좀 심하다. 자신감이 대단 하신가봐.”, “아이고 저, 그렇게 아니고...” 어줍잖아 하는 나에게 캐디 아가씨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흥CC는 그렇게 까다로운 코스는 아니에요. 더구나 시험이나 프로테스트 때는 최고의 베테랑 캐디들만 배치된다는 사실을 아실랑가 모르겠네. 저 시킨데로만 하세요.”

사실 그림 시뮬레이션은 사이코테라피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처음 보는 골프장에서 저 언덕 넘어 그린의 풍경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믿을 것은 캐디뿐이라는 생각이 절실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수를 두거나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 같아 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정 티오프 시각인 11시가 10분이 넘도록 다른 소식이 없어 캐디 아가씨가 “순서 뺏으시고 준비합시다.”했다. 내가 1번이었다. “티샷하세요.” 어떻게 쳤는지 볼은 온 그린에 되었다. 그 때 코스 진행

위원장이 도착했다. 연세가 많이 드신 위원장이 여러 명의 진행위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누가 위원장이 도착도 안했는데 티샷하라고 했어! 캐디, 가서 볼 주워주세요.” 김이 팍 새었다. 위원장 할아버지(?)는 룰을 설명하고 같은 조의 마커를 배정해주고 경기 종료 후 기록한 점수가 서로 다르거나 의의가 발생할 때는 팀 전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위원장의 훈시가 끝나고 위원들이 모두 쳐다보는 상태에서 처음보다 거의 백배는 더 졸은 상태에서 또 티 샷! 볼은 다시 온 그린에 성공했고, 나 혼자 첫 홀에서 파를 기록했다. 두 번째 홀에서 오너 자격으로 티샷한 볼이 밀려서 숲속에 쳐박히고 말았다. 진행위원이 “이 숲은 조성된 지 얼마 안돼서 수목을 비롯해 버팀목까지도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로컬룰을 적용하여 드롭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런 재수가 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모두들 경기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모두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드라이버 거리가 230m는 넉넉히 되는 데도 거리는 내가 제일 짧은 것 같았다. 경기가 진행되면서 홀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에서 본 익숙한 코스도 더러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전반이 지나고 후반으로 접어들자 스코어는 안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남은 홀 다섯 개를 모두 보기를 해도 컷 오프 79타로 마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승패나 상금이 달린 경기가 아니기에 무리를 해서도 안되고 할 이유도 없었다. 롱 홀이나 긴 파4홀이면 거의 우드로 티샷을 했고 아이언을 한 두 클럽 더 잡는 쪽으로 선택했다.

경기가 끝나고 76타로 마지막 홀을 마쳤다. 우리 조 팀원 모두 합격권이였다. 메달리스트는 3언더 파였고, 50명 정도가 합격했다고 한다. 부정행위로

실격한 사람도 있었다. 그린 자켓을 맞추고 등록을 하고 우리 팀원들끼리 연락처를 나누고 교육 때 다시 만나 술이나 한 잔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모두들 얼굴표정이 만사 귀찮은 듯 하다. 백을 메고 주차장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동안 살아오면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한 깊은 희열과 함께 온몸과 마음이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피로가 밀려왔다. 거의 탈진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때까지도 학회세미나 간 줄로만 알고 있던 아내에게 그동안 몰래 추진했던 또 하나의 바람기(?)를 고백했다. “혼나야 돼. 빨리 집으로 돌아와요.” 생각보다 아내가 더 기뻐했다. 그리고 연습장에 들러 문프로에게 보고를 했다. 그 이후로 아내나 문프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들이 더 이 이야기를 포장해서 남들에게 하곤 했다. 나중에 이야기지만 문프로는 “의사 중에 프로 제자는 원장님이 처음입니다. 실력은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라운딩 횟수가 절대부족 상황이라 반신반의했습니다. 거 보면 원장님도 참 별난 사람이요. 좋건 싫건 이제는 프롭니다. 아마 추어대회는 원장님은 자격이 안 돼서 못 나갑니다. 원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까지 문프로와 나는 여전히 사부와 제자로, 그리고 술친구로 1년 반 가까이를 같이 보냈다. “다음 달 나는 부산으로 갑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러나 승부라고 시작한 게임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습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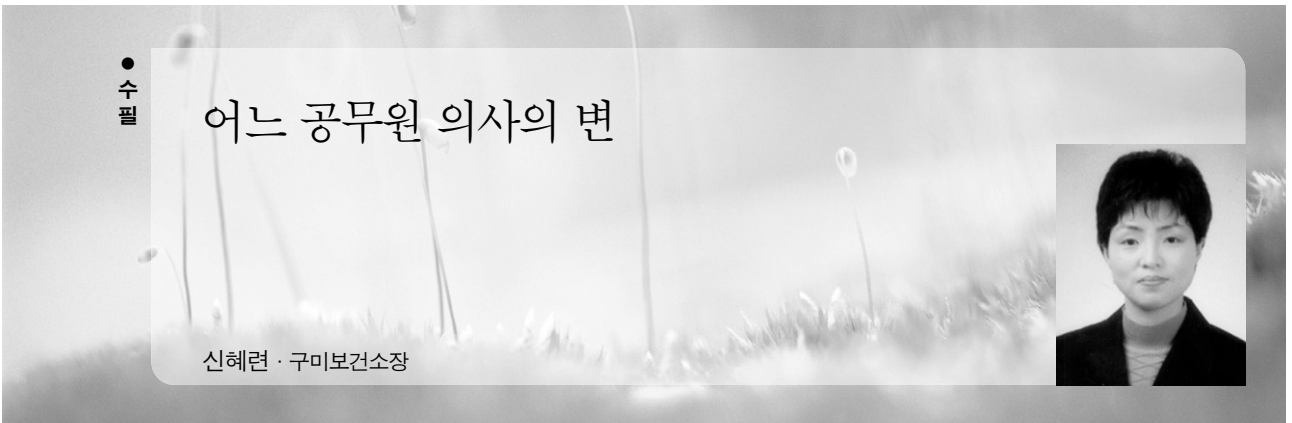
전국을 집처럼 여기서 몇 년 저기서 몇 달 씩 떠돌아다니는 문프로의 개인 사정을 나는 주변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 투어프로들도 있고, 그 외 많

은 프로 제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자조적인 이야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뒷이야기를 대화로 나누는 기억이 없다.

올 해 8월말로 마지막 술자리를 하고 문프로는 부산으로 떠났다. 나는 이때껏 우리 관계가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헤어지리라 마음먹었지만 “놀러 갈게요. 언제 이런 술자리 또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먼저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말았다. 안경 너머 연습장의 불빛이 흔들리면서 목구멍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지금도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어떨 때는 한 달을 완전히 굶기도 하는 주말 골퍼이다. 스코어도 80대로 올라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껴져도 사소하게 지나쳐버린 잘못된 습관 한두 가지가 원인이며 기본으로 돌아가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는다. 지금은 “싸부”하고 자문을 구하는 친구들도 한 둘 있다.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문프로에게 배운 일부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 속에 품고 살며, 그 중 극소수의 실천가들만이 바로 뛰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웃거리다가 포기한다. 나도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바로 뛰어드는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기웃거리고 또 기웃거리 보는 그 자유마저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계속 기웃거리다 보면 동반자를 만나고 그 중에 사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계속 기웃거리면 그 보다 더 큰 스승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다른 동반자의 손을 잡고 있고 나 또한 나를 이끌어주는 어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 수필

어느 공무원 의사의 변

신혜련 · 구미보건소장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책임진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해온 지도 벌써 8년이 되었다. 지난 해 연말에 경북도의사회로부터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역할 분담 및 상호 조화’에 관한 논단 형식의 글을 청탁받고 처음엔 사양을 했으나 재삼 부탁하는 바람에 한동안 망설임 끝에 필을 들었다. 주제 자체가 워낙이 예민한 부분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겠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딱딱한 형식의 논단 대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바깥에서 바라본 의사 사회에 대한 나의 느낌을 비교적 솔직하게 자유로운 감상문 형태로 적어 보기로 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글이 혹시 의사 선후배들에게 누가될지 모르겠으나 내 근본인 의사집단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 여기시고 두루 이해해주실 줄 믿는다.

먼저, 개인사적인 얘기로써 서두를 열어 본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모교 병원 인턴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확정짓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것은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나는 한번도 개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한 자리에 진득이 앉아 있을 체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예방의학, 그 중에서도 산업의학을 택하여 의료의 주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지금은 가장 안정된 신분을 보장한다는 공무원과,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의사를 합한 ‘공무원 의사’가 되어 요즘 세대에서는 가장 완벽한 신분(?)의 직장인이 되었다.

처음 보건소 근무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언어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타 직원들과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웠던 점이다. 그 동안 의사라는 전문인 집단에서 보고 배워온 것들과 공무원 사회가 추구하는 것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전에 의사 사회에서 겪었던 것과 비교하여 가장 다른 점은 조직문화인 것 같다. 병원에서 일할 때에 우리 의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산업보건 분야 업무에 발을 디디게 되면서 접했던 기업이나,

공무원 사회에서는 의사니, 보건 의료니하는 것은 그들에겐 변방이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분야였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먼저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고 익히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관심이나 협조도 얻어낼 수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혼자 이상한 사회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전에 의과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의사는 그 수련과정에서 도제식 교육과 훈련을 거치면서 특유의 집단 문화를 만들어 왔고 또 그를 이어왔던 것 같다. 하지만 바깥의 사회에서는 그 문화가 더 이상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다. 실제로 본인이 보건소장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직능별 단체 사람들을 만나 보았으나 가장 대화하기 힘든 상대(저 자신 의사이면서도)가 의사단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직장이란 조직에서 적응하고 훈련되고 있는 동안 의사들은 진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속에 갇혀

서 질병과의 전쟁에만 여념이 없이 다른 바깥세상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문제는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의사들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과연 의사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자주 있다. 언젠가 국가알코올관리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역(사회복지학과 교수, 간호학과 교수, 상담심리전공자 등)의 전문가들과 같이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동행하였던 어느 복지학과 교수분의 이야기를 옮겨 보면, 알코올 관련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위원장을 맡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과 관련하여 토론을 벌이던 중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면서 그분의 얘기인 즉, “의사 아닌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며 회의실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으며 그바람에 결국 그 복지학과 교수님이 대신 위원장을 맡으셨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가알코올관리사업의 정



책 결정에는 의사가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이라면, 당시 토론의 내용과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한 사람의 의사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는 바람에 보건 의료와 관련된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 의사들이 배제된 결과가 초래된 셈이다. 대개의 사람들이 의사 단체에 대해 갖는 느낌이 그런 것 같다.

이처럼 의사 단체는 밖에서 보면 대단히 배타적이고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화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협상 기술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에서 우러난 호감을 얻기 어려운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본지에서 애초에 원고 청탁했던 분야인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의 제문제도 위에 열거한 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의사 단체는 이를, 이미 설 자리조차 없는 민간의료

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시장경제 원리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의료제도로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그 여파로 보건소에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의사회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마다 의사회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보건소 진료와 무료예방 접종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건의였다. 도시의 영세민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이 날로 늘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이런 건의 내용에 공감할 사람들이 의사들 이외에 얼마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소 진료는 왜 합니까?”, “예방 접종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논조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나 정책 형성을 위한 활동은 부재한 상태에서, ‘그건 내것’이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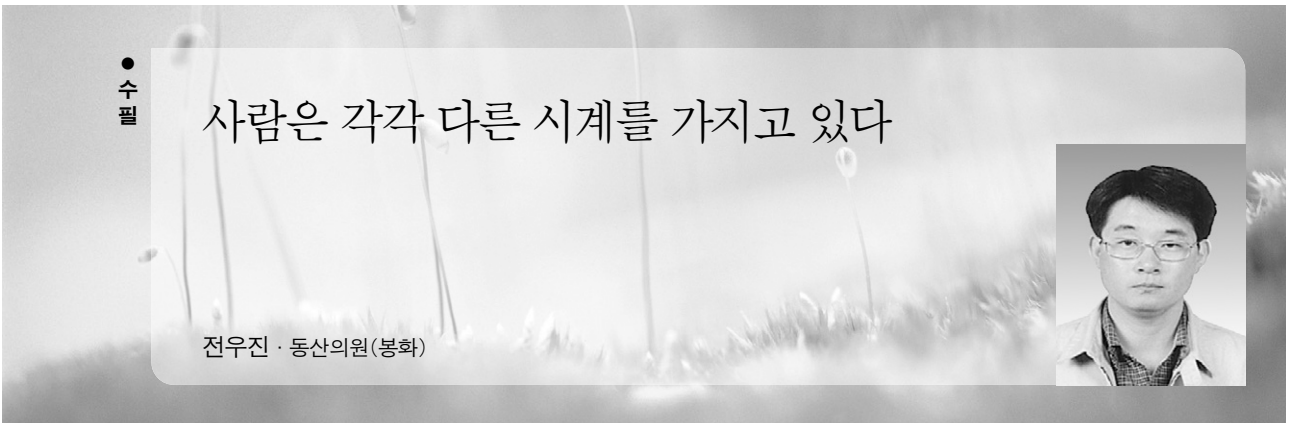
것이다. 어떤 사안을 하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검토하는 태도가말로 다원화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처세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사고는 200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예방접종 바우처제도(병의원에서 무료예방접종 실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마침 담뱃값 인상이 보류되는 바람에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예방접종 바우처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로서는 의료에의 접근성이 높아져 편리해지고, 보건소 입장에서선 전체적인 등록 관리를 할 수 있어 좋고, 병의원측에서도 내원자가 늘 것이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나마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 문제를 두고 공공보건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몇 분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협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개입하고 나름대로 도왔으면 하는 생각이다.

보건소 진료문제도 마찬가지다. 한 번은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보건소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사무관과 대화 중 보건소 진료비 문제를 건의했다. 500원짜리 보건소 진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니 담당자는 수가 산정 당시 사실 100원이 나왔는데 500원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어이가 없었다. 이처럼 보건소의 저가 진료비 문제나 무료예방접종의 문제도 의사 단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에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내년 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 개정 내용의 요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 1항인 보건소장 자격 기준에 '현

행의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 의사가 없을 경우 보건의무직군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내용에서 '의사를 임용한다'는 내용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자격 기준에 대해 얼마 전 국가인원위원회에서 차별적인 제한이라는 판정을 했고, 그에 따라 법개정이 뒤따르게 된 것이다. 개정법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처럼 우리 의사들을 둘러싼 현실은 날이 열악해지나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준비는 어떤가? 그만큼 현실의 변화에 대비할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하지는 않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격언을 되새겨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의사들 스스로 어려움을 늘어놓아도 이에 공감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외에는, 저같이 공공보건에 종사하는 의사는 "도대체 공공 보건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 하나를 가슴에 품고, 공공 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의사로서 보건소에서 일하는 제 몫의 고민으로 안고 살아가듯이, 사랑하는 우리 의사들의 총화인 의협 또한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좀 더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나가면서 일반 사회에는 더 열린 모습으로 참여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수천명, 수억명을 먹여 살릴만한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 평범한 사람, 조금 미흡한 사람,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모두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 이리하듯 다양성이야말로 사회 균형의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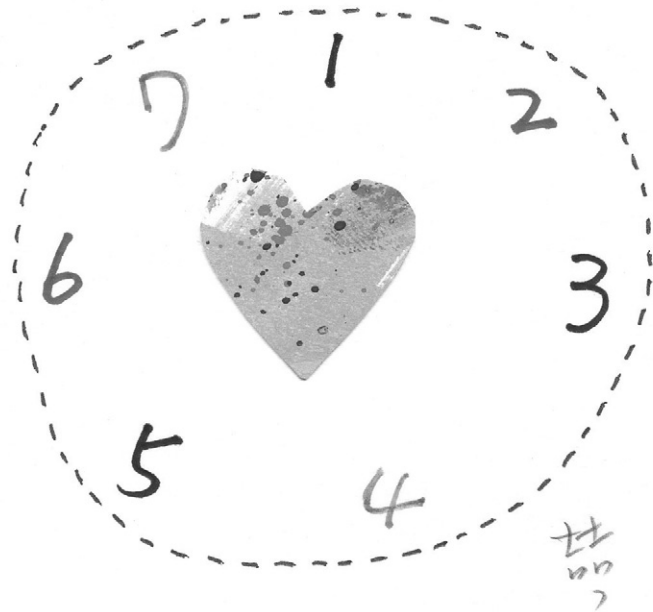
또한 시계도 여러 종류가 있다. 로렉스 등 비싼 가격의 시계부터 싼 중국제까지 많다. 같은 제품이라도 시간 차이는 존재한다.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국가간의 시차에 따른 차이도 있다. 좀 더 보면 이 세상에 시간이 똑같은 시 정확한 시계도 수초는 표준시이고, 아무리 정확해도 영점 몇 초, 영영 초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 시간 차이 만큼이나 사람 생각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의 시계를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틀렸다고

알려주는 게 좋을까? 틀린 것을 알지만 그 연유를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좋을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는 참으로 힘들다.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틀렸다고 지적하고 질책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그 사람이 가지는 생각의 시계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불편을 끼친다면 알아서 알

려주면 되지 않을까한다. 10분 일찍 가는 시진 사람에게 시계가 틀렸다고 질타보다는 10분 늦게 시간을 알려주 않을까? 부부 사이에도 엄연하게 생각의 시계가 존재한다. 신혼 초 "자기의 시계에 끼워 맞추기 위해 "버릇 고친다, 길들인다,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 등의 표현들이 자기 시계는 옳고 상대방 시계는 틀리니까 나에게 맞추라는 식의 중요한 썸인데 이로 인해 작은 항쟁





이 많이 일어난다.

요즘 젊은 세대는 쉽게 갈라선다.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은 남편에게 바가지 굵는 부인이 아름다울 리 없고, 요리 못한다고 밥상머리 앉을 때마다 떠벌리는 남편이 존경받을 리 없다. 오히려 세탁할 때마다 묵묵히 바로 펴 꺼내는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편은 언젠가 자기 시계가 틀렸다고 느낄 때 양말을 바로 벗지 않을까? 비록 입맛이 맞지 않지만 맛있게 먹여주는 것으로 아내 스스로 미안함을 가지고, 요리학원이나 책을 보고 남편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하지 않을까?

얼마 전의 일이다. 늘 머리 외모에 신경을 쓰는 아들이 식탁에 앉길래,

“멋있게 보이려면 이마를 드러내는 게 보기 좋다. 이마가 보이면 시원하고 보기 좋거든. 그러나 이마가 보이게 머리카락을 젖혀봐.”

“난 이게 좋은데”

“그러면 엄마와 지혜에게 물어보자, 어떤 게 멋있고, 똑똑해 보이는지.”

엄마 왈:

“머리를 젖힌 게 보기가 더 좋아, 아주 스마트해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 딸 지혜는

“어, 정말 보기 좋아.”

“자, 봐라. 3대 빵이지.”

아들 천후 왈:

“3대 1이지, 그래도 이건 내 취향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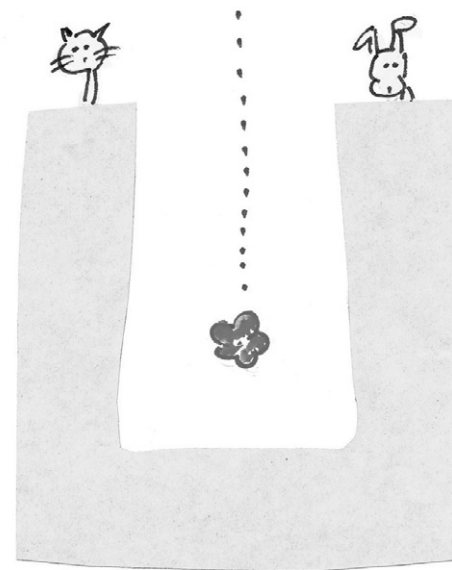
나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1~2년이 지나면 머리를 뒤로 넘기려고 그렇게 애쓸텐데. 내가 보는 아들 천후의 시계와 아들이 자기 머리를 보는 시계가 상당히 다르구나, 적절히 알려주어도 받아들이는 시계가 다르구나, 학교에서 같은 내용을 알

려줘도 이해 정도가 다르듯이 각 학생이 선생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시계가 제 각각이듯이 옆에 딸이 앉아 있길래, “지혜도 머리카락을 옆으로 젖히는 게 보기 좋겠다.”라고 했다. 아내도 동의했다.

다음 날 식탁에 앉았다. 아들 천후의 머리는 여전히 앞으로 드리워져 촌스러웠다.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나와 시간 차이를 두고 있었다. 딸은 머리핀을 하고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 스타일에 대한 시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아들이 나와 시간이 맞으려면 내 시계를 멈추고, 아들의 시계가 나와 같아 질 때를 기다리든지, 아들이 시계를 나에게 맞추든지 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후자는 반발이 심하고 부작용이 심하니, 전자를 택해 기다림이 최선일 수 밖에 없다. 이 작은 사건은 하나의 취향에 불과한 문제이지만, 살다보면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견해의 시간차를 보일 뎨 어떻게 할까?

저녁 9시 뉴스 시간이 되면, “뚜, 뚜, 뚜 우”하며 “정성을 다하는 000 9시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을 보며 “내 시계가 2



분 늦네.”하며 자기 시계를 맞추는 사람이 적다. 근소한 차이를 가진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에게는 자기 시계가 정확한듯이 느끼며 약속시간을 정한다.

시차 때문에 생긴 실수 한 가지를 적어본다. 영주에서 청량리행 기차(PM 3:20 발차)를 예매하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 가족과 인근 PC방에 간 적이 있다.

컴퓨터 정면에 시계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3시 10분경에 나왔다. 모두 하고 있던 게임을 중단시키고 나왔다. 걸어서 1~2분 거리니 당연히 승차한다고 생각했다.

기차소리가 나길래 이제 도착하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서울행 출발 소리였고, PC방 시계는 10분 늦게 가는 시계였다.

이러하듯 무생물, 생물, 사람,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경향, 이 모든 것에도 시간이 늘 존재한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대하는 생각의 시계는 빠른 반면 남을 배려하는 시계는 느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함수에 살고 있다. 동일한 시간에 알려준 사실이라도, 그것을 잘 적응하고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면 남 보다 앞서지만, 늦게 알게 된다면 그 만큼 남 보다 뒤지는 삶을 살지 않을까?

오늘도 내 아들의 머리카락은 촌스럽게 앞으로 드리워져 있다. 내 의견대로 강압적으로 머리카락을 올리라하면 반감이 생길 수 있으니 아들의 시계가 맞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세상에는 자기 시계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가 많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시계가 맞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까지 봉합해 줄 수 있다면

원영준 · 원내과의원(포항)



이 글은 신문 청년의사에서 주관,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6회 한미 수필문학상 우수상'에 입상한 작품을 원영준 회원의 승낙으로 다시 실습니다.

— 편집자 주

거리엔 낙엽이 풀쩍거리고 진료실 창 밖으론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따금씩 보이는 사람들도 옷깃을 여민 채 종종걸음을 쳐서 멀어져만 갑니다. 더 이상 환자도 오지 않을 시간이라 오늘은 조금 일찍 문을 닫고 집에 갈까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간 진료한다고 간판에 붙여놓고 일찍 집에 가면 욱 얻어먹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있다가 집에 가서 집사람이랑 파전이나 부쳐서 술 한잔하고 애들 이랑 놀아야지!’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병원 문이 슬그머니 열리고 한 열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이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서느런 얼굴로 들어 왔습니

다. 다들 그렇겠지만 문 닫기 직전에 들어오는 환자는 ‘아주 죄금’ 귀찮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애구 좀 일찍 오지! 그 참.’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진료는 봐야겠기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왔어?”

“예.”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니?”

“입을 다쳐서요.”

“입? 입이 왜?”

“저녁 먹다가 입천장을 젓가락에 찔렸어요!”

“입천장을? 그래 어디 보자.”

전 약간 굶餓나 보다, 하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아이의 입천장에는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포셉으로 깊이를 재어보니 2~3cm 이상 되는 깊이의 꽤 큰 상처가 생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상악동쪽으로 천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애, 너 이거 어떡하다 다친 거야?”

“젓가락 입에 물고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서요.”

“그런데 너 혼자 왔어?”

“예!”

아이는 약간 겁에 질려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아이 혼자 보내다니 정말 부모가 정신없구나, 하고 말입니다. 솔직하게 좀 짜증이 나더군요. 아이한테 정말 무관심한 부모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툭툭거리고는 아이한테 잠깐만 기다리라한 후 일단 이비인후과 선생과 상의해 보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냥 기워주면 우리가 갈 것 같고, 혹 근처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봐 주실 수 있다면 보내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상처 이야기를 듣더니 괜히 잘못 봉합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응급실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는지라 밤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로 선뜻 병원에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겠죠?

하지만 저도 결론은 섰습니다. 천공이라고 해도 일단 상처는 기워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 곳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시 CT를 찍는대거나 다른 치료를 해야겠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설명도 상세히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보자, 이름이 뭐지? 그래 지은이, 지은아! 집에 엄마, 아빠는 계시니?”

“아뇨. 안계신데요.”

“아니, 어디 가셨는데? 어떡하지? 지금 여기선 힘들 것 같고, 넌 종합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없이 어떻게 가니? 혹 연락처 몰라?”

“…….”

그러자 애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이크, 애가 너무 겁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했습니다.

“울긴 왜 울려고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 큰 문제는 아니고 상처가 나서 기워야 하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너 혼자 응급실에 접수하기도 힘이 들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바로 안 해주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엄마 전화번호만 좀 말해 주렴! 천천히 가도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이 엄마한테 잘 이야기 해 줄게, 응?”

그러나 아이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더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흐느끼더니, 훌쩍거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더군요. 참 황당했습니다. 아이구야! 내가 뭘 어쩔기에? 그때 옆에 서 있던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원장님! 지은이 보호 1중인데요.”

“예?”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은아, 너 엄마 아빠 안 계시니?”

“후후, 예!”

“그럼 집에 어른들 아무도 없어?”

“엉엉! 오빠가 있어요!”

“오빠? 오빠는 몇 살인데?”

“후후! 중학교 2학년인데요.”

“…….”

잠시 말문이 막히더군요!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와서 주워 담기도 뭣하고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자, 지은아. 조금만 진정하고 눈물 좀 그치렴, 우리 다시 이야기 해 보자! 자꾸 울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못하잖아, 그치?”

“후후! 예!”

“그래, 그럼 오빠랑 둘이서만 사니? 어른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예.”

“울긴 왜 우니? 응급실 가라고 하니깐, 무서워서 그래?”

아이는 아직 훌쩍거리면서 발개진 눈을 하고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마 아무 생각없이 상태를 설명하는 내 말을 듣고는 겁도 나고 서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있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이야기 할 때 아무도 없다는 말도 못하고 눈물밖엔 안 나왔겠지요! 갑자기 무척 마음이 아프더군요.

‘내가 아이한테 상처를 주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를 불러서 둘이서 응급실 가라고 하기도 뭇한 상황이었고 내가 데리고 간다고 해도 보호자가 아니라 동의서 같은 것을 쓸 수도 없고, 우선은 그냥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내일 다시 고민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빠를 오라고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다시 찬찬히 하고 우선 내가 치료해놓을 테니까 밤에 잘 보고 혹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거나 구역질이 나가거나 열이 나가거나 하면 바로 전화하라고 제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수간호사와 전 낱끼거리면서 성심을 다해서 기웠습니다. 새는 부분이 없도록 깨끗하게 봉합하고 나니 이미 퇴근시간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수간호사를 시켜서 우선 애들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 1회용 죽 등을 사서 같이 좀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함부로 말한 것이 미안해서라도 그냥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물론 절대 밥해 먹지 말고 내일은 이것만 먹고 짠 음식이나 딱딱한 것은 먹지 말라는 당부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내내 아무 말도 않고 멀뚱멀뚱 저를 보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고맙다고 꾸벅 인사를 하고는 둘이서 손을 잡고 수간호사와 종종걸음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병원 문을 혼자서 잠그고 나오면서도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봉합 수술하기 전에 아이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까? 내가 그 마음도 봉합해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하기 전에 차트를 좀 더 꼼꼼히 보고 주의해서 말했더라면 최소한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지는 않지 않았을 텐데…….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무거워서 집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던 집사람도 마음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수록 X-ray 속에 걸린 하얀 뼈처럼 제 속이 다 드러나 보이듯이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인데 참 오늘 실수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심하게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을 깬습니다. 향긋한 냄새도 났습니다. 뭐지, 아침부터?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아침 내내 무엇을 했는지 향긋한 냄새가 가득 했습니다.

“여보, 뭐해?”

“응, 벌써 일어났어? 너무 시끄러워서 깬구나?”

“음! 냄새 좋은데 뭘 한다고 이렇게 난리야?”

“응, 죽 끓였어!”

“죽?”

“어제 자기가 그 애들한테 죽이라도 끓여주면 좋

겠다고 했잖아. 오늘 올 때 주라고 좀 준비했어. 질릴까봐 우선 해물죽하고 전복죽 두 가지를 끓였는데 많이는 안했어. 상할까봐. 아이들한테는 다 먹고 나면 또 해준다고 그래. 내가 해 줄 테니까!”

“너무 귀찮진 않겠어?”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봐! 그런 상황에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하면 얼마나 서러울지. 사서 줘도 되지만 파는 죽은 조미료도 많이 쓰고 집에서 해주는 게 더 나올 것 같아. 대신 며칠 동안 아침은 죽이다.”

“여보, 고마워!”

아내의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애들 생각이 나서 무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치료하고 나서 겨우 인스턴트식품을 사서 보내는 게 다였는데 아내가 당분간 죽을 끓여 주겠다고 하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침에 죽과 반찬통을 들고 출근하니 웬지 어색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 그건 뭐예요?”

“아~예, 이거! 저기, 이거 죽인데, 가지고 있다가 지은이랑 두진이 오면 좀 줄래요? 집에서 한 거라고 좀 먹어 보라고, 다 먹고 나면 또 해 준다고 말이에요!”

“지은이하고 두진이?”

“왜 있잖아, 어제 야간에 입천장 다쳐서 마지막에 온 아이들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어제 애들 사는 데 냉장고는 있단던가요?”

“예, 냉장고는 있어요!”

“그럼 좀 있다 애들 오면 집에 갈 때 이것 좀 주실래요?”

“사모님이 하신 거예요?”

“예.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오늘 아침에 준비해 놔더라고요. 마침 집에 재료가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은 들던데, 아침에 저희 집 애들 준비하기도 엄두가 안 나서 못했는데, 사모님 참 대단하세요!”

“아니예요, 저희 집사람은 수간호처럼 출근하지는 않잖아요!”

“어휴, 그래도 이렇게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릴 텐데.”

“여하튼 제가 진료실에서 주긴 좀 그러니까 수간호가 좀 챙겨 주세요!”

“호호, 그러죠!”

오전 내내 진료하면서 아이들이 기다려졌습니까. 지은이가 밤새 많이 아프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 또 와서 얼른 아내가 만든 죽을 받아 갔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은이는 점심시간이 지날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서너 시가 되어서야 발간 볼을 한 채 지은이와 두진이가 들어 왔습니다. 혼자 오기가 무서워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나 봅니다.

“왜 이제 왔어?”

“…….”

“그래, 어제 많이 아프진 않았니?”

“예.”

“불편하진 않고?”

“실이 먹을 때마다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좀 참아야지? 어디 한번 보자. 음, 괜찮네! 열은 안 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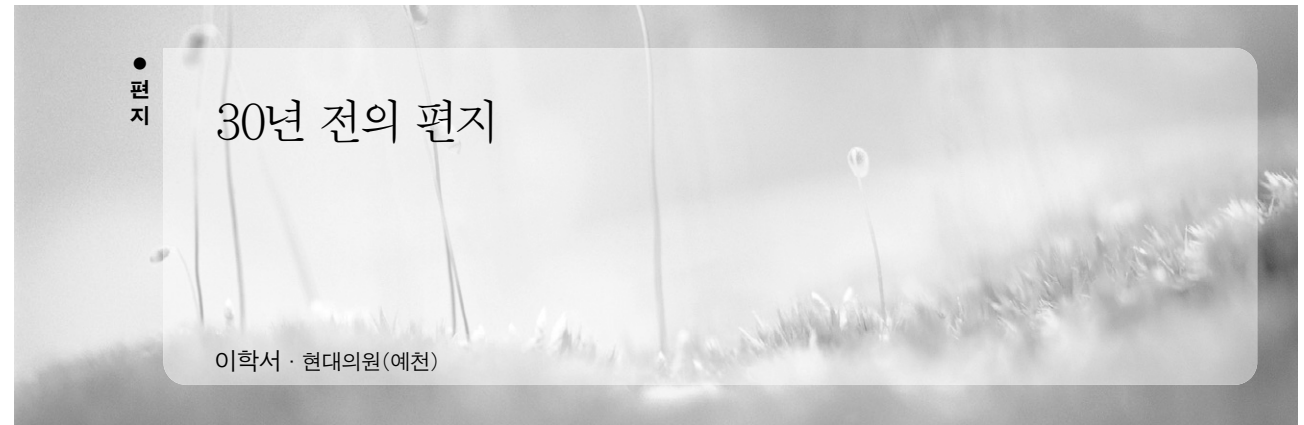
“예!”

“약은 잘 챙겨 먹었지? 항생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꼭 챙겨 먹어야 된다.”

“예.”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 먹었어요!”
 “왜? 어제 사간 죽은 안 먹고?”
 “그냥, 나중에 저녁에 아껴 먹으려구요.”
 “...우선 당분간은 매일 치료하러 나오고, 간호사 언니가 갈 때 죽을 챙겨 줄 테니까, 지금은 학교 급식 먹지 말고 집에 와서 죽을 먹어라. 알았지?”
 어리둥절하게 저를 바라보는 지은이를 보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충분히 사준다고 사주었는데도 바보 같이 아이들 마음에 그 밥 한 끼가 아까웠나 봅니다.
 이후에 하늘의 도우심인지 지은이는 정말 잘 나았습니다. 염증 소견도 전혀 없고 봉합 부위는 쉬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던 날에는 실밥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밥을 풀던 날 저는 왠지 아쉬워서 지은이와 두진이에게 저녁을 사 줄 테니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치료 후에 정말 아빠처럼 아이들한테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뭘 먹고 싶니? 한번 말해 봐?”
 “.....”
 “괜찮아, 말해봐? 오늘은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사 줄게!”
 “스파게티요!”
 “두진이는?”
 “자장면요!”
 “애개, 뭐 고기 같은 것이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자장면하고 스파게티라고! 정말이야?”
 “예!”
 “음, 그럼 오늘은 지은이가 주인공이니 두진이가 양보해라! 알았지?”
 “예!”

“근데 왜 하필 스파게티니? 그게 좋아?”
 “학교 급식에 가끔 나오는데요, 제일 맛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선생님이 스파게티 전문점에 가서 스파게티를 사 줄게!”
 그날 저녁 전 스파게티를 맛나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일년에 단 몇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이런 식사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되어 줄 수는 없겠지만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착한 두진이와 말이 없고 부끄럼을 잘 타는 지은이를 보면서 옆에서 지켜주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게 다가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뒤에도 몇 번 같이 식사를 하였지만 두진이나 지은이는 무언가 어색해하는 모습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입천장만 봉합하고 다 봉합해 주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더 봉합해 줄 수 있다면 가끔씩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지켜 주고 싶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게 올 수 있도록.....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낼까, 같이 식사를 하러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날 이후로 가끔씩 진료실에 들어와서 멀뚱거리는 녀석들이 이번에는 좀더 명랑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처럼 가끔은 내게도 찾아와서 투정을 부리더라도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진아! 지은아! 사랑해, 힘들면 망설이지 말고 찾아와, 알았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신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상실(loss)했을 때, 그 아픔의 정도를 대상에 따라 등급을 매겨보면 그 최대치인 10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상배(喪配)의 아픔이라고 한다. 그랬다. 졸지에 아내를 잃은 사내의 아픔이 그랬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아들 둘 낳아 기르면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숨을 맞대고 살아오다 이제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최상급의 상실감과 아픔을 반복하여 겪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1972년 군의관 시절 포항에서 처음 만나 서로 사랑을 키워 오다 제대 후 1976년 2월에 결혼할 때까지 잠시 잠깐 떨어져있는 동안에도 참 많은 편지를 주고 받았다. 아내는 감성이 굵고 여렸으며 미당 서정주 시인의 시를 좋아했을 뿐 아니라, 편지를 참 잘 썼다. 우리 둘 사이의 사소한 일도 그녀의 편지에 담겨지기만 하면 진기하고도 아름다운 하나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리는 용한 재주를 아내는 가지고 있었다.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다들 장성하여 애비의 슬하를 떠나 있으니, 그녀의 손때 묻은 가재 도구들과 주고 받은 그 많은 편지들, 그리고 그것들을 읽을 때 마다 생생하게 떠오르는 지난 날의 추억들만이 아내와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다. 나는 아내가 그리운 날이면 빛바랜 편지들을 꺼내 읽기도 하고 손으로 매만지기도 하는 순간에는 아내가 내 곁에 오롯이 살아있는 것만 같다.

아직은 아내에게 편지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대신 연애 시절에 그녀가 보냈던 편지 몇 편을 회지에 보내어 내 마음을 전한다. 못난 사람이라고 욕이나 하지들 말아 주셨으면.....



사랑하는 당신께.

옛날에 구름을 타보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산허리에 매여달린 숙소.

마당에 서서 강물을 내려다 보고 있노라니까 꼭 제가 구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숲한 나무들은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의 권태를 이겨내고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말예요.

주말이 다가오니까 당신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 억제하기 힘들군요.

당신 전체가 커다란 지남철이 되어 몇 백리나 떨어져 있는 저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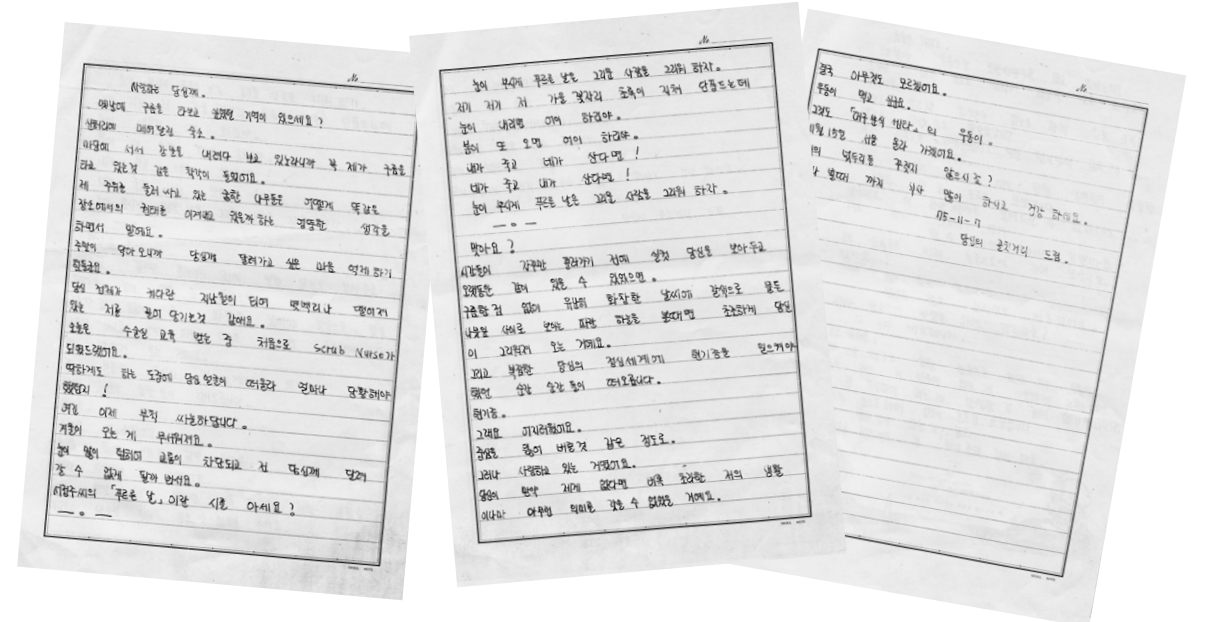
오늘은 수술실 교육 받는 중 처음으로 Scrub Nurse가 되었더랬어요. 딱하게도 하는 도중에 당신 얼굴이 떠올라 얼마나 당황해야 했던지!

여긴 이제 무척 싸늘하답니다. 겨울이 오는게 무서워져요. 눈이 많이 덮히어 교통이 차단되고 전 당신께 달려 갈 수 없게 될까봐서요.

서정주씨의 「푸르른 날」이란 시를 아세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 하리야.
봄이 또 오면 어이 하리야.
내가 죽고 네가 산다면!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하자.

맞아요? 시간들이 자구만 흘러가기 전에 실컷 당신을 보아두고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
구름 한 점 없이 유난히 화창한 날씨에 갈색으로 물든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볼 때면 초조하게 당신이 그리워져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당신의 정신세계에 현기증을 일으켜야 했던 순간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현기증. 그래요 어지러웠어요.
중심을 잃어 버릴 것 같은 정도로.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거였어요.
당신이 만약 제게 없다면 비록 초라한 저의 생활이나마 아무런 의미를 갖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우동이 먹고 싶군요. 그것도 「대구분식 센타」의 우동이.
11월 15일 서울 올라 가겠어요.
저의 뉘두리들 꾸짖지 않으시죠?
만나 볼 때까지 식사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75. 11. 7
당신의 골치거리 드림

첫눈이 왔어요.

조금 전에 진옥이랑 포항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눈으로 변하여 하얗게 산을 덮어오는 거였어요.

나이도 잊은 채 달려나가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곤 차가운 눈을 맛 보았답니다. 혀가 시리도록 차가우면서도 탁한 먼지 냄새 같은 게 있었어요. 올해는 늦추위라 하지만 대신 한번 쏟아지기 시작한 눈들은 그칠 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당신께도 이 하얀 세계를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그리고 같이 어린애가 되어 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높은 산끝 들은 이제 눈줄기들에 가려 보이지도 않아요.

이대로 많이 와서 쌓인다면 당신을 닮은 눈사람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착각하여 뽀뽀를 하면 안되겠죠? 다 녹아 버릴테니까.

보고 싶어요.

시아 가득 메우는 술한 눈송이들 보다 더 많이. 지금은 제가 이산 속에 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며 꼭 당신 옆에 있는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든답니다.

갑작스런 눈으로 하여 정신이 혼돈된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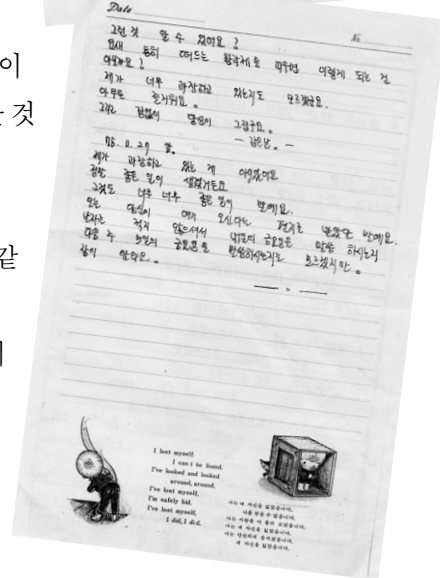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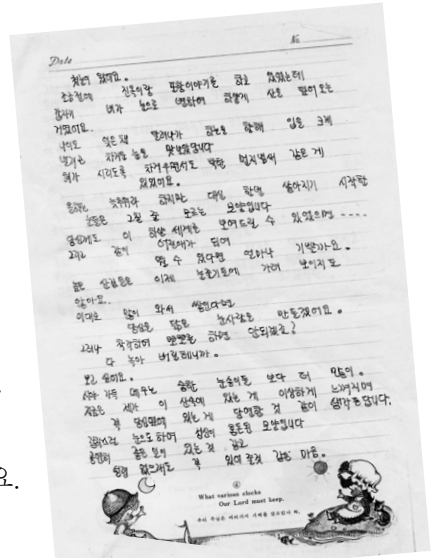
공연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설령 없더라도 꼭 있어줄 것 같은 마음.

그런 것 알 수 있어요? 요새 흔히 떠드는 환각제를 피우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무튼 즐거워요. 그리고 끝없이 당신이 그림구요.

75. 11. 27 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너무 너무 좋은 일이 말예요. 오늘 당신이 여기 오신다는 편지를 받았단 말예요. 날짜를 적지 않으셔서 내일의 금요일을 말씀하시는지 다음 주 5일의 금요일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이 안와요.



사랑하는 당신께.

오늘 무사히 도착했어요. 떠나올 때 보여드린 추태로 해서 도저히 당신을 이해할 줄 모르는 여자라고 슬퍼하시진 않으셨나요. 용서하세요. 이렇게 당신과 떨어져 오랫동안 외로워야 하니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 시간, 일본 이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이겠어요. 점점 당신과 떨어져 생활해나갈 자신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지, 전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긴장되고 힘들게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요. 흔히들 젊었을 때 고생이라고 하지만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적당히 살기로 해요. 네?

돈만 벌어 놓고 몸은 엉망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와 또 앞으로의 당신 이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해요. 곧 대구 어머님께 편지 올려야겠어요. 당신의 말씀이 없으셨더라도 송금할 계획이었어요. 앞으로 달마다 어머님 용돈은 적으나마 제가 책임지고 보내드리기로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저도 당신에게 뒤지지 않는 효도를 해드려야 할텐데 이렇게 떨어져서 마음 뿐이라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다시 당신을 뵈을 때까지의 긴 시간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메꾸어나가야 할는지 암담할 뿐이에요. 당신을 떠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초조하다니요. 며칠내로 오전 시간을 내어 서울 광화문집에 다녀와야겠어요. 갖다 놓을 짐이 있거든요.

그땐 금방이라도 당신께서 대문을 열고 나타나실 것만 같아 가슴 두근거리고, 또 그만큼 우울해야겠지만 인내로 이겨내야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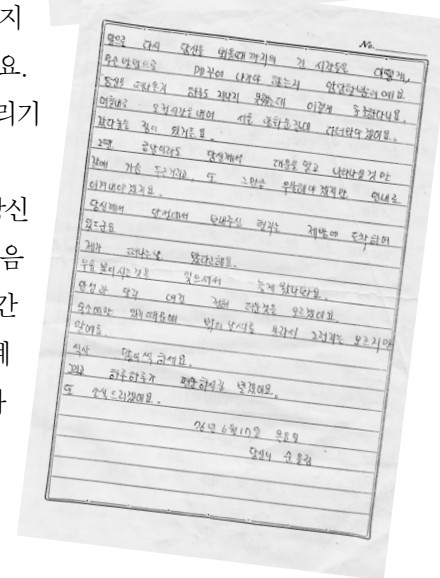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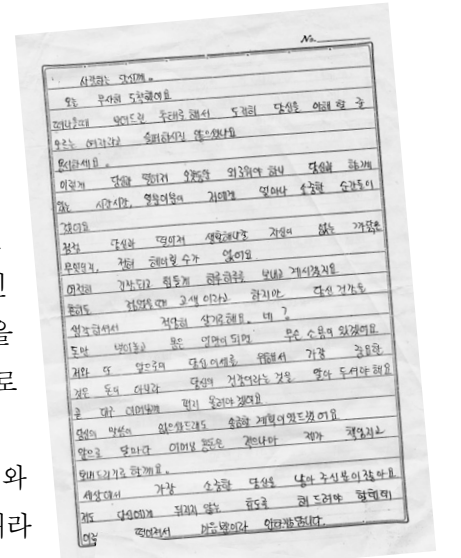
당신께서 안성에서 보내주신 편지는 제 방에 도착하여 있더군요.

제가 떠나는 날 왔다고 해요. 우표 붙이시는 것을 잊으셔서 늦게 왔나봐요. 안성과 달리 여긴 전혀 더운 것을 모르겠어요. 숙소에만 있기 때문에 밖의 날씨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말예요.

식사 많이씩 하세요.

그리고 하루 하루가 편안하시길 빌겠어요. 또 소식 드리겠어요.

76년 6월 17일 목요일
당신의 순 올림



히말라야에 간 딸에게

전민 · 전민신경정신과의원(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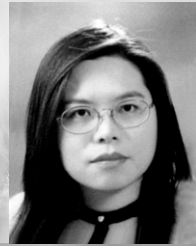
나의 사랑스런 딸 선영아!
 지금쯤 카트만두(네팔)에 가 있겠지. 출지는 않은지, 음식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네가 처음 히말라야 칼라파트라(5545m)로 트래킹을 가겠다고 했을 때 아빠는 솔직히 믿지 않았단다. 그런데 정식으로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것을 보고, “이놈이 정말로 가기는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빠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 더군다나 후배 여자애와 단 둘이서 한 달간 트래킹을 떠난다고 하니 큰 걱정이 될 수밖에.
 너는 기말고사 시험 친다고 별 준비도 못하는 것 같았고, 출발예정일인 1월 2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아빠는 네 대신 준비하느라 마음이 무척 바빠졌단다. 등산을 즐겨하는 아빠지만 겨울철 고산 트래킹 경험은 없는지라, 필요한 장비나 고소증 대처방법 등을 잘 모르기에 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단다.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다행히 최근에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녀 온 분들을 알게 되어 그 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 원래 등산장비는 남에게 잘 안 빌려주는데도 고맙게 비싼 장비를 선뜻 빌려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셔서 그러저럭 준비를 할 수 있었단다.
 기말시험 보느라 지친데다가 3일간 금식기도한다고 얼굴이 반쪽이 된 네가 대구로 내려왔을 때 아빠와 엄마는 솔직히 가는 것을 말리고 싶었다. 금식 후유증 때문에 음식도 잘 못 먹는 너를 보고 이제 출발일이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저런 몸으로 어떻게 그 험한 데를 갈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 되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가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고소증 대처방법을 설명을 하는 아빠의 마음은 편치 않았단다.
 그렇지만 선영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도 타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행 경비를 혼자 힘으로 모으는 너를 보고, 아빠는 무척 대견스러웠다.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해서 아빠가 등산갈 때면 항상 따라 다니면서 다람쥐처럼 잘도 오르던 네 모습, 초등학교 5학년 때던가 백두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천지의 모습을 한

없이 바라보던 너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아빠는 잊을 수 없단다.
 아빠도 늘 가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못가 본 히말라야에 네가 가 있다니,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은근히 샘도 나는구나. 아빠의 마음도 지금 너와 함께 히말라야에 가 있단다.
 한번 보면 죽을 때까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히말라야의 하늘과 눈 덮인 산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을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구나.
 모든 것을 잊고 히말라야에 폭 파묻혀서 지내거라.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정해년 1월 4일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킬리만자로의 눈을 그리며

이경숙 · 한동대선린병원 정신과(포항)



2006년 9월 29일 오후 1시 의료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케냐에 가기 위해서 국내선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무사히 짐을 부치고 숨을 몰아쉬는데 검색대에서 짐에 이상이 있다고 하여 억지로 포장한 짐을 다시 풀어 그것이 치약임을 확인한 후에야 통과할 수 있었다.

중간 기착지인 인도 뭄바이공항까지 10시간 여의 비행은 지루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견딜만했다. 그러나 새벽 1시 뭄바이공항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갈 비행기 수속을 하는 데는 어찌나 힘이 들던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이 멀미의 징조가 나타나더니 5시간의 비행 후 막상 케냐 나이로비공항에 내리고 나서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릿속은 빙빙 돌고 결국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마음은 아닌데 몸이 힘드니 괜히 기분도 울적해지고 다른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어 정말 속상했다.

입국 수속을 받는데 마르고 키가 훌쩍 큰 까만 피부색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드디어 내가

아프리카 땅에 첫발을 내디뎠음을 느끼게 하였다.

● 첫째날



입국장 너머로 치맛자락 휘날리며 서있는 환한 미소의 김신미 선교사님을 만나니 진짜 케냐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시내로 향하는 길가는 어느 도시나 다름없는 고층 건물에 길게 늘어선 자동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콧속과 목구멍을 자극하는 매연 또한 내가 생각했던 아프리카와는 달라서 실망이 되었다.

멀미로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너무 심해 오후

에는 절반을 SIM 소속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연립주택에 누워서 지냈다. 연립주택은 양옆으로 장미넝쿨이 늘어서 있어서 ROSE STREET로 이름 지어진 길가에 있었다. 어쩔 줄 몰라해하는 선교사님께 걱정거리를 드린 것 같아 너무나 미안했지만 내일의 일정을 위해 체면 불구하고 쉬기로 했다.

오후에는 소말리아 형제·자매들이 모여 성경 공부하는 곳을 방문하였다. 약 2시간 정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으로 무척 진지하게 공부하는 그들의 열정과 먼 이국 땅에서 오신 몇 분의 선교사님들의 겸손하면서 진지한 태도는 존경스러웠다. SIM 소속 독일인 마틴은 소말리아어를 공부하여 유창하게 말하였고, 또한 다른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 학교도 열었다. 이처럼 자신의 가진 것들까지 내어놓으면서 이곳에 온 그들의 복음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열정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캐런 하우스를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영화 'Out of Africa'의 실제 인물이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Karen Blixen은 20세기 초 덴마크 여성으로 부유한 상인과 결혼하여 케냐에 정착해서 커피 농장을 하며 살았다. 후에 이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Out of Africa'라는 자전적 소설을 써서 작가로 데뷔하였고, 이후 여러 편을 더 발표하였다.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여 케냐로 이주해 와서 '캐런'가를 이루고 사는 백인들이 많다고 한다.

테라스에 서서 사파리 복장의 여주인공 매릴 스트립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니 이 지적이고 도도하던 여성 캐런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곳곳이 무너지고 사람은 간 곳 없고 전시물만이 남아 관광객들의 발자국만이 남겨진 관광지로서의 그 집을 만약 캐런이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 둘째날



가리사 가는 길에

주일이라 시내 순복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있었다. 노래도 열정적으로 부르고 춤도 추며 어찌나 진지하고 뜨겁던지 그 민족의 기질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것이 뻗뻗한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목사님 설교에서 성경의 여러 예화를 들었는데 그 중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메시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오후에는 6시간 정도 차를 타고 소말리아 사람들이 이주하여 모여 사는 가리사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가는 길에 소말리아 난민을 위한 2박3일 일정의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한 현지 정보를 듣게 되었다. 소말리아인이 동네에 들어가면 쓰레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위생이나 환경은 고사하고 특히 어린이나 약자들은 더욱 살기가 힘이 든다고 하였다. 종교적으로는 모슬렘이 강한 지역이며 더욱이 9월 24일부터 약 1달간 라마단 금식 기간이므로 더욱 주의해서 다녀야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나라도 잃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그림자에 놀려 삶의 소망을 잃고 강박해져 그런 것은 아닐까하고 나름대로 추측해보았다.

가도 끝없는 풀 한 포기 없는 황토 먼지길
 앞도 없이 서 있는 우산 모양의 가시나무
 붉은 개미집
 줄지어 지나가는 낙타 무리
 질푸른 코발트 블루 하늘
 후두둑 지나가는 톱슨 가젤
 그리고 삶의 무게에 눌린 무표정한 검은 눈동
 자의 차도르 속 여인들

가리사의 life ministry 소속의 현지 사역자인 20대 중반의 피터와 레이첼 가정에 저녁초대를 받아 갔다. 단촐하지만 성의있게 차린 음식은 주부의 알뜰함과 배려가 느껴졌고 블레싱(은총)이라는 세 살 난 딸은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숙소로 돌아오는 거리는 가로등 하나 없고, 풀벌레 소리와 극성스럽게 달려드는 모기떼는 말라리아에 대한 공포로 돌아볼 여유조차 생기지 않았다.

해가 지면 식사를 해도 되는 율법에 따라 흐느리게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로 식당은 왁자지껄하여 낮 시간과는 정반대의 느낌이었다. 선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라마단 기간에 소비되는 고기의 양이 일년의 1/3정도이고 위장병 환자가 속출한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닌가?

게스트 하우스에서 모여 내일의 일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니 밤은 깊어졌는데 찌는 더위와 낮은 곳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 셋째날

아침, 성경공부 시간 중에 소말리아 케냐인으로 회교도인 압디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었다. 성령님의 은혜로 개종하고 그 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가문에서 쫓겨나는 등의 고초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그의 간증은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와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미안함이 들 정도였다. 이후 영국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신실한 자매를 만나 현재 7년째 가정을 꾸리며 3남의 아빠로 가리사 내 가정사역을 통한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C.C.C. 소속의 life frontier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생충약 복용과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으로 함께 하였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반짝이는 눈동자 속에서 희망의 불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선생님들의 끝없는 헌신에 존경스러운 마음이었다. 반 아이 중 유일하게 백인 소녀가 눈에 띄었는데 남아공에서 온 선교사님 딸이었다. 이 분이 총책임자로 계시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만나고 보니 온화하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큰 딸을 말라리아로 잃은 상처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듣고서 너무 놀랐다. 사랑스런 큰 딸을 가슴에 묻은 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 곳에서 다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가리사를 사랑하시는지 감동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평안함의 비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한 압디 부부의 점심 초대를 받아 방문하였 다. 부인 헬렌은 정감 있고 친절하며 넉넉함이 우

리의 가정주부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하는 대목 대목은 깊은 신뢰와 평안함이 배어나오는 것이었다. 특히 어려운 살림에도 자신이 직접 모든 일을 하고 아이들의 간식도 만들어 먹이며 공부도 직접 가르치는 등 힘겨운 가사 노동에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3년 동안 자신의 손으로 벽돌 한 장씩 준비해서 집을 지었다고 했는데 곳곳에 주인의 정성이 배어 있었고, 3남의 아이들은 예의바르고 활기차 보여 기존의 가리사 사람들의 공포에 눌린 얼굴과는 사뭇 비교되었다.

오후에는 고아원을 방문하여 준비한 선물을 주고 아이들과 놀면서 지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특히 영양상태가 불량하여 작고 파리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것도 답답했지만 복음을 모른 채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인지?

이후 공립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유니세프 등의 원조를 받아 건물은 깨끗하고 비교적 쾌적하였다. 그러나 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도시나 외국으로 떠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하셨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문제는 있는가보다. 병원을 둘러보다가 중앙에 갈대로 세워진 건물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난민들을 위한 병동이라고 하였다. 몸도 아픈데 나라 없는 설움까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그들의 공허한 눈빛이 내내 걸려 시선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스웨덴에서 온 정형외과, 마취과 의사 남매가 휴가를 이용해 자비로 방문하여 진료하고 계셨다. 이런 귀한 손길을 통해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은

아닌지!

현지 사역자 가정을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시내 호텔 뷔페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복음성가를 재미있게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호텔 문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돌맹이가 날아와 앞서 나가던 팀원의 얼굴을 스쳐 선교사님 차 백미러가 깨지는 사고가 생겼다. 순간 '라마단 기간에 하나님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다니...'라는 아차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고 두려움과 함께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숙소로 돌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현명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반성으로 기도회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현지 사역자 가정들과 선교사님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사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처리되게 해주셨다.

감사! 또 감사!

● 넷째날

오전 6시, 어제의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가리사를 뒤로한 채 우리는 나이로비 시내로 향했다. 올 때는 여유가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길가의 풍경을 좀더 넉넉하게 즐기며 우리 일행은 재미있게 6시간의 여행을 하였다.

오후에는 내일이 추석이라 한식으로 준비할 겸 반찬거리도 사고 선교사님께 필요한 프린터도 사느라 여러 곳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시장은 어디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력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오는 길에 김선교사님이 소속한 S.I.M.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한적한 동네에 2층짜리 건물 3동이 모여 있었고 중앙에는 열대식물들이 잘 정돈되어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여 이방인이라도 부담없이 반겨주는 듯 했다. 중앙의 사무실 1층에는

아프리카 지도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진들이 붙어있는 메모판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한 가정과 김선교사님도 보았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로 파송 전에는 전문 직종을 가지고 부러울 것 없이 사신 분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복음의 빛진 자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곳 아프리카를 품고 오신 그분들의 사랑을 막상 대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러웠다.

우측에는 소말리아 지역을 품고 그곳 주민들의 자활사업을 위해 만든 수공예품 판매장이 있었다. 마사이족들의 생활이나 동물들을 일일이 수놓아 만든 셔츠, 테이블보와 쿠션 커버, 그리고 장식초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것들을 판 수익금으로 소말리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든다고 하시는 담당 선교사님의 자세한 설명에 나도 몇 가지 구입을 하였다.

저녁은 선교사님이 준비하신 양고기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하였다. 게스트 하우스 정원에서 숯불로 구운 양고기는 참 맛이 좋았다. 한국에서 먹던 삼겹살만 생각했는데 색다른 맛으로 즐거운 저녁한 때였다. 해가 지고 난 뒤 올려다본 하늘에서는 머리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상쾌한 풀냄새는 자연이 주는 최상의 선물을 받은 듯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 다섯째날

아침 일찍, 케냐 최대 빈민가인 키베라에서 HIV 양성 여성들을 위한 복지관에서 무료 진료를 하였다. 현지 간호사에 의하면 90% 이상이 타지에서 살다가 HIV에 감염되어 경제적인 문제로 이곳으로 와서 죽음을 준비한다고 한다. 서부아프리카 최대의 빈민가인 이곳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여름 장마철이면 집 앞에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둥둥 떠다니고 도로가 없어 맨 중앙으로 들어가면 초행자들은 길을 잃고 헤맨다고 한다. 주로 피부병, 결핵환자, 그리고 떨어지거나 다친 부위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불구가 된 채로 사는 장애인들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힘겨워 보였다.

한편에서는 극성스럽게 달라드는 파리떼에도 아랑곳 않고 영양실조로 배만 볼록하게 나온 채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비닐봉지로 장남감 삼아 떠돌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를 생각하니 답답함이 몰려왔다.

그런 중에도 우리나라가 60~70년대 배고프고 어렵던 시절 복음의 물결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된 것처럼 이들에게도 복음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려는 힘'이 생긴다면 희망이 있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커다란 울림으로 되돌아왔다.

슬럼가 중앙에 위치한 중학교에 가서 준비해간 구강교육 및 AIDS 교육을 실시하였다. 비록 여기 저기 허물어지는 황토로 지은 건물에 전기시설이 없어 낮인데도 어둑하기만한 교실이지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강한 열기만은 대단하였다. 외부인에게 너무 친절한 이들은 손만 잡아도 부끄러워 배시시 웃고 뒤로 숨어버리는 이들의 순박함이 새로움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바뀌기를 기도해본다.

● 여섯째날



킬리만자로—유행가 가수가 불렀던 그 곳, 그래서 '정말 그 곳에 굶주린 표범이 있을 까?'라는 막연한 동경심을 가졌던,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그 곳으로 드디어 향했다.

'동물의 왕국' 시간 마지막 자막에 항상 등장하던 세레벤키 국립공원, 사자 심바, 한가로이 물가에 서있는 코끼리떼들, 그리고 붉은 망토를 두르고 나무막대기 하나에 황량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던 마사이족 전사 등이 생각나는 그곳을 버스를 타고 6시간만에 도착했다.

킬리만자로는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3개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으로 5000피트이다. 부끄러운 듯 구름에 가리어 정상은 보이지 않고 먼지만 수북히 선물하여 내리고보니 온 몸이 황토가루를 뒤집어 쓴 모양이 되었다. 암보셀리 호텔에 여장을 풀고 석양의 사파리를 하기 위해 지붕을 열어 개조한 봉고를 타고 노을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

군데군데 뿌연 회오리가 지나가면 야생 들소떼가 무리를 지어 숨가쁘게 달려가고, 톱슨가젤이 놀란 듯 귀를 쫑긋 세운 채 통통 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다. 저 멀리서 얼룩말들이 사이좋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은 일대 장관이었다. 나 역시 그들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멋진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절로 '우와—'하는 감탄사를 연발하였다.

녁살 좋은 가이드 아저씨는 간간히 입담 좋은 소개로 우리의 마음을 한층 들뜨게 하였고, 1150미터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은 도무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었다. 포항에서 바다를 볼 때는 망망대해를 생각했는데 여기서 바라본 땅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막연함 그 자체였다.

● 돌아오면서

약 7일간의 여행을 하면서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에서 시작하여 동시대에 정반대의 곳에서 사는 이들을 만나고 웃고 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 가끔씩 하늘을 보며 멍해지곤 한다.

너무나 멋진 킬리만자로의 숨결이 그렇고, 쓰레기장에서 뛰놀던 눈망울이 초롱하던 키베라의 이름 모를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슴 아파서 눈물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추억으로 그 일들을 회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본다.

파키스탄 단기선교 보고

정용석 · 한동대선린병원 내과(2006년 파키스탄 단기팀)



이번 단기선교는 준비과정부터 순탄치 않아 뭔가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가? 일이 잘 안될 것이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던가? 처음 단기선교를 위한 팀 모집에 응한 사람들은 대여섯명에 불과했다. 이래 가지고 단기선교 가겠나? 생각을 한 나는 결국 다시 병원게시판에 직원들이 보면 혹하는 마음이 들게 글을 올린다. —사막의 아름다운 밤을 그리며— 그러니 이제는 사람이 지원을 한다. 대부분은 처음 단기선교에 참가하는 직원들... 팀원 중에 어떤 지체는 중간 리트릿까지 왔다가 참석을 못하게 되고, 어떤 지체는 마지막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 여권 만기일이 지나 급행으로 신청을 해서 결국 팀 전체의 비자수속이 늦어진 일도 있었다.

단기선교의 일정이 너무 길다는 말도, 김해공항까지 버스를 안 보내주면 안되겠냐는 말도 들었다. 많이 섭섭했다. 이럴 거면 그냥 안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한 번 해봤지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님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인내하기로 하며 팀원들과 모임을 지속해 나갔다. 어쨌든 주님이 인도해 주신

17명의 용사들.

준비과정에 있었던 많은 모임들... 우리는 매주 수요일 모여서 강의도 들었고, 함께 기도도 했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중간 리트릿을 벨엘기도원에서 하며 함께 교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일찍 모임을 시작한 게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든다. 팀원 중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내 진료실에서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는 너무 잦은 준비모임으로 팀원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생각은 우리의 기도를 통한 준비가 이번 단기선교의 성패를 좌우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주 모여서 기도한 건 정말 잘한 일인 것 같다.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매일 기도회에 와서 함께 기도한 팀원들에게 감사.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박종상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출발을 한다. 버스는 팀원 중 한 명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대절하여 참 감사하게 구한 관광버스. 잘 달리던 버스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남부순환로를 타게 된다. 뭔가 심상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모든 사실을 깨달은 시점에 버스는 이미 성산대교를 향하고 있었고, 저녁 9시 비행기 출발인데 저녁 7시가 넘도록 우리는 서울의 가장 막히는 도심에서 가장 막히는 시간에 그렇게 마음을 줄이며 길을 더듬거린다.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든다. 불평도 든다. “그냥 포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걸... 아니 왜 이 기사 아저씨는 네비게이션도 없는 거야?” 다급한 우리의 소식을 들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기다리시던 서병호 과장님의 제안을 따라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차로 호위를 받으며 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도 해본다. 물론 사전 공문이 없어 못해주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속이 타들어 가는 걸 느낀다. 앞이 캄캄하다. 팀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석천형제가 옆에서 위로한다.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찌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의 말처럼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너무 귀하게 간섭하신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정말 절묘했다. 성산대교를 건너려고 하던 기사 아저씨는 석천형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우리의 말을 따라 올림픽대교쪽으로 방향을 잡으신다. 그렇게 공항로로 들어선게 7시 40분. 거의 신호도 무시하고 인천공항쪽으로 내달린다. 8시 10분까지는 무조건 도착해야 된다는 말을 지키지 못하고 8시 15분경에 도착을 한다. 그래도 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뛰어내려 짐을 챙기고 있는데 도성에 선생이 토하기 시작한다. 착잡하고 미안한 마음.....

짐은 준비할 때 초과되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하는 통에 오버차지도 없이 그냥 바로 출국장으로 모든 팀원이 뛰기 시작한다. 미안해하는 기사아저씨의 멧적은 웃음을 뒤로 하고.....

출국장의 직원들도 서류를 보는 등 마는 등하며

도장을 찍어준다. 그렇게 비행기에 뛰어든 시간이 45분인가? 다른 탑승객의 눈치를 보며 서과장님이 부탁해서 마련한 비즈니스 10 좌석과 뒤의 이코노미 7좌석에 나눠 타고 우리는 한국을 떠난다.

이번 비행기 티켓을 준비한 여행사에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티켓팅을 해놓아서 더 빨리 할 수 있었지만 중간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선린병원 단기선교팀 사상 처음으로 출발 날짜에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첫 팀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을 것이다. 출발에 관계된 이 사건은 나와 팀원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만 의지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오히려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도 되었다.

방콕에 도착하니 새벽 1시. 방콕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수안 선교사님의 게스트하우스 ‘미션홈’에서 약 12시간을 보내기로 되어 있어서 새롭게 지은 방콕의 신공항을 그렇게 빠져 나와 새벽에 숙소로 도착하여 잠을 청한다. 아침에 일어나 모임을 한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8절. 나눔 속에 이제는 단기 선교에 임한 팀원들의 마음 가짐이 느껴진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그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주심에 그 때를 기다리자는 나눔으로 기도하며 모임을 마친다. 사모님이 준비한 아침식사를 같이 하는데 도성에 선생의 상태는 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전에 팀원들은 선교사님의 인도를 따라 여러 군데를 보고 오는 사이 나는 도선생의 상태도 좋지 않아 같이 남기로 하여 나는 어제의 긴장도 좀 풀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다. 도선생의 상태도 조금 나아지는 듯.

다시 카라치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또 5시간을 가니 드디어 카라치의 지나 국제공항에 도착. ‘선한 사마리아 병원’ 조원장님 내외분과 임

대식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다. 조금 뒤에 나타난 정용식 선교사님, 근데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인도할 버스가 어찌 좀 심상치 않게 보인다. 30년은 죽어 보이며 보이는 현지인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 대중버스! 타보니 역한 기름냄새. 병원이 있는 '오랑키 타운'에 들어서니 좋지 않은 도로의 요철이 그대로 몸에 전해진다. 정용식 선생님의 고향에 가까운 카라치 소개를 들으며 고맙기도 했지만 정말 힘든 한 시간... 정선생님은 정말 미안해했다. "이 버스가 아닌데 왜 이게 왔지?"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도착하니 팀원들의 반이 멀미를 한다. 도선생도 다시 상태 악화... 간신히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 팀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불평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처음 참석한 팀원들이라 이런 부분은 더 잘 견디는 것 같기도 하다.

11월 3일 아침. 지난 밤의 아픈 기억과 덥기도 하고, 모기도 있어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밤새 틀고 자서 그런지 팀원들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말씀을 놓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기에 아침 모임을 가진다. 사도행전 4장 23~35절 말씀. 교회가 박해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기도한 말씀이다. 그때의 그 모였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고난을 곱어보시는 하나님...

우리 병원과 동일한 시각에 드러지는 직원 예배에 참석한 후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클리닉을 열기로 했으므로, 나는 심장초음파 검사 및 심장진료, 김명진 선생은 소아과, 서병호 과장님은 정형외과, 변진명 선생은 내과, 최세진 과장은 스트레스 클리닉으로 현지인과 선교사님, 사모님들을 진료하고 상담하기로 하고 진료를 시작한다. 조금 있으니 변진명 선생이 자꾸 나에게 이것 저것



진료중인 나

묻는다. 조금 생각해 보니 변선생은 선교 나와서 진료를 해본 적이 없는 지라 당연히 약처방이나 영어로 뭘 물어봐야 할 지 모르겠다 싶어 대화를 조금 나누고 나니 이제 열심히 진료에 임한다. 중간에 우리 병원에 파견왔던 인드리아스를 만나 교제를 나눔. 오늘 심장 진료는 25명을 했다. 그 중에 병이 있는 사람은 3명, 우리나라에서 준비한 심장약을 처방을 해주고 진료를 마치니 오후 4시.

오늘은 또 작년에 와서 처음 만났던 중국 선교사들을 만나는 날이다. 작년 두 자매님들이 '베틀와리사' 심한 간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정선생님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약도 같이 조금 드렸던 그 분들, 다시 만나니 건강한 모습이다. 나를 보고 너무 반가와하며 웃는다. 나도 참 기쁘다. 이들은 파키스탄에 처음 온 개척자들이다. 그들이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하며 현재는 다른 중국 선교사들을 안내하며 열심히 살고 계시다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적은 수고가 이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다. 간증중에 눈물을 흘린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네 명중 하나인 베틀는 40일 전에 럭샤(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간이택시)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목과 허리 등이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녀의 이마에 6.7cm 정

도 되어 보이는 상처가 있다. 그때 생긴 상처란다. 살아 있는 게 기적이라고... . 우리는 우리의 장기인 '벌떼식 기도'를 하기로 한다. 네 명의 중국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린다.

네 명중 한 명은 현지 직장에 취직이 되어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카라치에 남고 나머지 세 명은 우리와 함께 사막진료를 간다. 중국 선교사와 그 밤을 함께 보낸다.

젊은 남자 중국선교사는 나이가 24세이다. 이름은 데이빗. 그나마 나이가 비슷한 변선생과 친하게 지낸다. 그래도 비슷한 또래니 많이 통하나 보다.

11월 4일 아침 모임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0장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오전은 무슬림 지도자인 몰비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이 되어서 파키스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개종자인 Siddique Paul 목사님을 만나 강의를 듣는다. 그는 강한 어조로 이슬람교에 대해 공부를 해야 무슬림에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도 수입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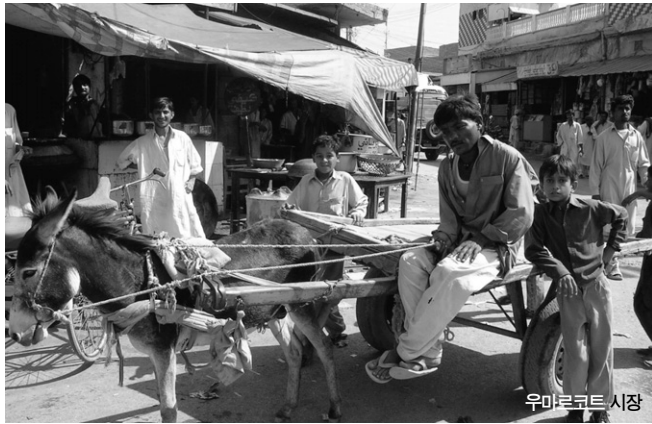
이 없어 어려운 삶을 살지만 이 땅의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는 개종자들을 위한 쉼터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작은 동서는 빠뜨라스 형제로서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다. 무슬림 지도자의 아들이며 훌륭한 직장을 버리고,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그의 모습에 모두들 숙연해진다. 그를 위해 다시 한번 '벌떼식 기도'를 하며 모두들 눈물을 보인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준비한 잔치인가? 오늘은 또 딸 선회의 생일이다. 팀원 몇 명이 케익을 준비하고, 축복송을 불러 주며 선회가 잇을 수 없는 사막에서의 생일축하가 벌어졌다. 사랑하는 딸 선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길 기도한다.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 사진이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있다. 오늘도 여김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팀원과 함께 단체사진을 찍고 우마르코트에서 보내준 버스(이번엔 에어컨이 되는 대형 버스다.^^)를 서둘러 탄다. 병원에 훈련은 스티트순장(STINT: short-term internship training) 4명과 이전 CCC간사였던 유명미 간사, 그리고 북쪽지역으로



호텔아이들과 딸 선회



우마르코트 시장



우마르코트에서 보내준 에어컨이 되는 대형 버스

홀로 정탐여행을 떠나버린 정용식 선생님 대신에 우리의 사막진료를 도우시기로 한 정은영 선생님과 함께 총 27명으로 갑자기 불어버린 팀. 부담감도 같이 커진다. 모든 팀원들이 타고 우마르코트로 출발하니 1시가 다 되었다.

버스는 말 그대로 에어컨만 좋았다. 승차감은 도로의 울퉁불퉁한 곳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버스였다. 여기는 경적 제한도 없나보다. 차안에서 들어도 귀가 아픈 경적을 수도 없이 뽕뽕거린다. 팀원들은 경적소리에 자다깨다 한다. 당연히 팀원들의 상태는 또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고, 힘들어하는 도성에 선생옆에 윤석천 선생이 앉았다. 둘은 95학번으로 학교는 달랐지만 동기이다. 어느새 말을 트고, 열심히 대화를 나눈다. 아마 멀미에는 열심히 말하는게 좋다고 누가 조언을 한 모양이다. 팀장이 챙기지 못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챙겨주고, 불평하지 않는 팀원들이 다시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렇게 멀고도 먼 길을 달려 6시간을 꼭 채워서 우리는 드디어 우마르코트의 호스텔에 당도한다.

깜깜해진 저녁 7시에 팀원들의 눈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쉽지는 않은 여정이지만. 밤에 호스텔아이들의 환영식이 있었다. “웰컴, 웰컴~~” 불러주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목에 걸

어주는 향기로운 꽃들... 갑자기 피곤이 짝 가신다. 눈물이 나려고 한다. 팀원들도 감격해 한다. 감사하다. 너무나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아이들을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우마르코트의 모든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다. 원선희 선교사님은 내일 오전 일찍 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신다. 난소에 종양이 생기셨다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걱정이 된다. 팀원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지 못해 미안한 생각이 든다.

숙소가 장난이 아니다. 형제 숙소는 호스텔 맞은편에 간이식으로 짓고 있는 건물 1층이고, 자매는 떨어져 있는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자야 된단다. 말하자면 야외에서 지는 셈이다. 내 안에는 불평의 마음이 고개를 든다. 팀 인원이 많아져서 할 수 없는 상황인긴 했지만 고생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변진명 선생은 젊은 남자 중국 선교사인 데이빗과 같은 방을 따로 쓰기로 하고, 서병호 과장님과 문성봉 차장님은 유 토마스 목사님의 숙소에 기거하기로 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형제는 같은 방을 쓰기로 했다. 방 옆에서 나는 화장실 냄새가 힘들게 하고, 날아드는 모기가 신경쓰인다. 요즘은 땡기열도 유행이란다... 물리면 안된다는 생각에 모기향 피우고, 바르기도 하

는 호들갑을 떠다. 그렇게 우마르코트 첫 밤이 지나간다.

11월 5일, 주일이다. 오전에 호스텔 아이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예



기도중인 윤옥숙사모님

배를 드린다. 말씀은 한국의 온누리교회에서 교육받으시고, 부목사로 1년동안 계셨다던 모세 목사님이 증거해주신다. 파키스탄 현지인으로 한국까지 와서 훈련받으셨으니 이곳에서는 많이 배우신 분이 라 할 수 있겠다. 한국말도 꽤나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합시다.” 등등 예배를 마치니 주위의 현지인들이 몰려온다. 영문을 몰라 몰렸더니 오늘 오후에 심장진료가 있는데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민간사님이 트럭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온 시가지를 돌아다니셨다니 많이 올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지인들 때문에 진료를 서둘러 시작한다. 근데 심장환자만 오는 게 아니다. 다른 쪽이 아파도 일단 와서 약이라도 타려는 마음에 몰려든 현지인들. 덕분에 내과, 소아과 등도 오픈하고, 나는 나대로 도성에 선생과 심장초음파를 시작한다. 다른 팀원들은 윤옥숙 사모님, 유토마스 목사님, 오금효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도전받으며 또 호스텔 아이들과 축구경기를 하며 즐거운 오후를 보낸다. 근데 우리는 해도해도 끝이 나지 않는 진료..... 주일 오후에 할 일치고는 좀 많다는 생각을 하며 검사를 저녁 7시까지 한다. 총 65명 검사, 그나마 한 20명은 수요일에 다시 해주겠다고 돌려보낸다. 다른 진료를 받은 사람까지 하면 1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다. 첫날부터 지친 하루.

저녁에는 민간사님의 댁에서 한인에배를 드린다. 유 토마스 목사님의 말씀과 오금효 선교사님의 기도. 그래도 한국말로 예배드리니 참석자는 편한 마음이다.

11월 6일, 드디어 사막진료를 출발하는 날이다. 카라치 공항에서 타보았던 현지인 버스. 30년은 되어 보이는 듯한, 트럭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버스에 우리는 몸을 싣고 먼지 날리는 사막으로 향한다. 근데 오늘은 사막의 입구에 처음 있는 읍내 같은 곳인 차차로라는 곳에 선교병원을 짓기 위한 기공예배를 드린단다. 신드사막의 약 100만명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산기 사망률이 높은 이곳에서 여성을 위해 병원을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땅을 구입하고 오늘 기공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 인도를 하라는 말씀을 도착 10분 전에 듣는다. 허둥지둥 준비를 하고 내려보니 사막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약 1000평정도의 땅이 보이고, 위치는 주유소가 가까이 있다. 찬송을 하고, 유토마스 목사님의 말씀이 있을 후 축사를 맡으신 서병호 과장님, 지난 53년에 포항에 작은 진료소로 시작했던 선린병원과 김종원 원장님의 얘기를 하시며 “이 차차로의 선교병원도 50년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좋은 병원이 되기를 바란다.”는 중



기공예배 시삽식



선교병원기공예배에서

나인 정신에 자매가 하고, 소아과는 김명진 선생, 내과는 나와 변선생, 최세진 과장이 두 테이블에서 돌아가며 진료를 하였고 서병호 과장님은 한번씩 있는 외과 환자를 봐주신다. 문성봉 차장님은 약국 중간에서 기생충약을 나눠 주신다. 중국 선교사들과 스탠트 순장들은 안내와 약 나눠주기를 분담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 딸 선희도 약국에서 스티커를 붙이며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

은 말씀을 하신다. 과장님도 감정이 북받치는 듯 중간중간에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하신다. 조그마한 오두막 같은 건물 밖에 없어서 그 그늘에서 웅기종기 모여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지만 병원이 완공되었을 때 오늘 기공예배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를 한다. 병원 건축의 책임자인 이필주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특기 '별떼식 기도'를 드린후 다시 버스에 올랐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약 한 시간을 가서 드디어 첫 마을에 도착. 오늘 진료를 할 마을은 2002년에 고수진과장님이 속한 선린병원팀이 와서 진료를 하고, 호스텔 아이들을 보냈던 마을이며 사막 전체에 있는 3개의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 현지식으로 지은 건물 하나 위에 십자가가 보인다. 우리는 모두 그 교회로 들어가 교회와 그 마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진료를 시작하니 이미 오후 2시 30분. 돌아가며 식사를 하면서 진료를 한다. 포항에서 준비해온 약품은 종류가 많지 않아 결국 현지에서 산 약을 쓰기도 하며 바쁘게 진료를 한다.

여자 환자는 정은영 선생님과 스탠트 순장중 하

딸... 의료진이 비교적 충분하여 진료가 비교적 빨리 되어 지지만 도착시간이 늦어 빨리 준비를 한 통에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결국 진료는 약 330명 정도 하였고, 작년 수준으로 준비한 약품중 기침약 시럽이 모자란다. 호스텔 현지인 사역자중 간호사 출신인 자비드를 시켜 차차료에 기침약을 사오라고 하고, 이미 어두워져서 정리를 하고 간단한 진료 평가회가 열린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약 종류가 부족하다. 중보기도팀 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 외 유포마스 목사님은 치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중국 선교사들은 처음 참석해보는 의료 선교에 많은 걸 느꼈고,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좋았으며 내년에도 단기팀이 온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변진명 선생은 사막에서 이렇게 약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민간사님은 이 곳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우리의 진료가 생애 처음인 사람도 많으며 이런 적은 섬김을 주님은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도마 같은 변신생에게 격려하신다. 일단 급한대로 필요한 것을 의논하고, 정미 자매가 포항에서 사온 양식을 즐겁게

먹으며 사막의 밤을 맞는다. 근데 오늘은 보름달이다. 밝은 보름달 덕분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 팀원들에게 사막의 별이 너무 아름답다고 꼬셨는데 어찌지. 그래도 밤이 워낙 밝아 발전기를 통해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자매들은 현지인 두 집에 나눠 자고, 형제는 짜르바이(간이 접이식 침대)를 펴서 그 위에 침낭을 펴서 눕는다. 잠은 잘 오지 않고, 여기 저기서 밤 늦게까지 소근소근하는 소리가 들린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서과장님과 문차장님은 달빛 가운데 사진을 열심히 찍으신다. 다른 날이면 팀장으로서 빨리 자라고 통제를 해야 하지만 오늘은 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다. 사막에서 보내는 특별한 밤에 조금 늦게 인도하심을 위해 까지 얘기하고 즐기는 것도 괜찮으리라.

얼마나 잤을까. 눈을 떠보니 새벽 4시. 아직도 달이 밝고, 별은 보이지 않는다. 출다. 역시 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배낭에 넣었던 후드티를 꺼내서 덮고 다시 자려고 하니 추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역시 사막의 밤은 춥다.'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의 기도를 드린다.

11월 7일 아침 6시에 일찍 일어나 마을 옆에 있는 동산에 오른다. 민간사님이 동산에 오르면 주위 사막이 다 보이니 아침에 뜨는 해도 보고, 기도도 심고 오자고 하시며 준비하신 시간이다. 말이 동산이지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한 정도다. 신드사막은 모래가 많아서 낮은 산이라도 오르기가 쉽지는 않다. 다 올라가니 정말 주위가 다 보인다. 개인적으로 사막의 고요함과 깨끗함을 좋아하기에 너무나 황홀한 시간이었다. 모두 모여 이 신드사막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30만명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눈물이 난다. 모두 함께 찬양을 시작한다. 기타

반주도 없이 가사도 썩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국 한국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침을 느낀다. 구름이 있어 안타깝게도 일출을 보지 못하지만 저 멀리서 염소떼를 이끌고 가는 목동을 보며 그 옛날 다윗을 떠올리기도 하고, 성경의 광야는 이런 곳일까 생각도 해본다.

다시 내려와서 출발 준비, 세수는 물이 없으니까 물티슈로 대충하고, 양치는 가글린으로 한 다음 준비한 식빵을 먹고 다음 마을로 출발한다.

두세 시간의 먼지 날리는 울퉁불퉁한 사막길을 달려 도착한 두 번째 마을. 여기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곳이란다. 민간사님의 요청으로 모든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린다. 예배가 한번도 드려지지 않은 마을.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이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간단하지만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료를 시작한다. 오늘은 어제 잘 하지 못했던 중보기도 사역을 하자고 단단히 준비를 하고, 기도사역을 이상호 집사님과 유포마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제보다 많은 인원을 진료했는데도 일은 더 수월함을 느낀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이 많이 나는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가지 병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기도팀의 사역도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 같다. 단기 의료 선교팀에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은 그 대상 지역이 무슬림 지역이라 하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번 마을은 힌두 마을인데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손길을 그 어떤 사람이 마다 하겠는가.

오후 4시가 되니 진료가 거의 정리되어 간다. 오늘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약 370명. 이틀동안 700명을 진료한 것이다. 버스에 짐을 싣고 출발하니 5



사막의 전경

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거름이 질 무렵이다. 차차로에서 지나서 아스팔트길에 들어서자마자 최세진 과장과 함께 버스의 지붕에 오른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빨리 달리는 버스 위에서 위험을 느끼기도 했지만 조금 지나니 괜찮아진다. 버스 위에서 보는 사막의 전경은 버스 안과는 정말 다르다. 참으로 아름다운 경이로운 곳이다. 해가 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석양과 또 어두워진 뒤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내 마음을 녹이는 듯하다.

앞에 계신 이필주 선교사님의 찬송소리를 따라 찬송을 하고, 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2시간 30분을 달려 우마르코트에 도착. 예상보다 빨리 복귀를 한 덕에 포항팀만 따로 모여서 평가회를 가질 기회가 되었다. 그중에 정은영 선생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가야할 지역에 많은 질병을 먼저 조사하고, 그에 맞는 약을 준비해주시면 좋겠어요. 소아과는 항생제시럽, 부루펜시럽, 비타민, 항생제연고 등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여성병은 영양제 특히 임

산부에게 줄 철분제가 있으면 해요. 그리고 안약, 인공누액등도 있으면 좋겠어요. 이곳의 여성들은 학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었다. 그 외 사탕 같은 것들을 좀더 준비해야 한다.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고, 처음 사막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며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지만 여기에도 식물이 나며 여러 동물들이 산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팀원들의 얘기가 있었다. 두 시간여만에 모임이 끝나서 비교적 늦게 마쳤지만 참 귀한 팀모임 시간이었고, 팀원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11월 8일, 수요일. 이제 단기선교가 막바지에 이른 느낌이다. 오늘 오전은 쉬는 시간이다. 아침 모임도 없고, 팀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래도 다들 8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식사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고 있다. 식사후 이곳 시장

에 가서 구경도 하고, 이곳에 있는 성 구경도 한번 해보라고 보냈다. 나는 팀원 몇 명과 함께 숙소에 남았다. 민간사님이 지난 주일 나 혼자 가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여자 호스텔 건축현장으로 데려가신다. 신종균 집사님이 현장에 계시고 여러 현지인 인부가 일을 하고 있다. 신집사님의 눈에는, 아니 한국사람의 눈에는 제대로 일하는 모습이 아니지만 그래도 현지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란다. 호스텔 앞에는 열기설기되어 있지만 신드에서는 보기 힘든 잔디 축구장이 있고, 여기서 팀원들과 축구를 했다고 하신다. 이곳 만여 평되는 땅에 우리 아이들의 호스텔이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완공되고, 게스트하우스도 완공될 것이다. 호스텔 건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바랐던 것들을 이제 내 눈으로 보니 참 감개무량한 마음이 든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곳 신드에서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곳을 변화시키는 귀한 씨앗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12시가 다 되어 돌아온 팀. 근데 정미가 더위를 먹었다. 내가 일을 많이 췌는데 묵묵히 따라주고 옆에서 도와줬던 부팀장으로 섬겼던 정미인데 그간의 피로와 오늘 강한 햇빛 속에서 그만

한계를 넘은 것이다. 마음이 다시 힘들어진다. 그래도 비교적 빨리 회복이 되니 감사하다. 내가 더 걱정할까봐 힘들어도 참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오후에 팀원들은 호스텔 아이들과의 시간을 가지기로 되어 있다. 양영애 자매를 필두로 준비하여 여러 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으로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나와 도선생을 비롯한 몇 명의 지체들은 나의 심장 진료를 도와주어야 했다. 오후부터 시작된 심장진료도 60명을 검사하여 7시가 다 되어 끝이 났다. 이곳 사람들은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병, 특히 허혈성심질환의 빈도가 한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음을 검사를 하면서 느꼈다. 거의 마지막에 아이들만 연속으로 3명을 검사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선천성 심질환의 일종인 심실중벽결손증(VSD)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스플랑 케니조마이... 북부 교회의 김희식 목사님이 10월



2일 리트릿 시간에 말씀하신 단장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민선교사님택에서 모인 우마르코트 마지막 밤 모임. 민간사님의 말씀은 학생 때부터 유명하다. 오래하기로도 유명하고, 또 두서가 없는데도 말씀을 듣는 순원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다. 오늘도 예의 두서 없이 시작해서서 기쁨으로 팀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본질을 추구하라는…… 그리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한국에서 들었다면 별 느낌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곳, 선교지 중에도 열악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곳, 자녀들을 보낼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이곳,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힘겹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민간사님은 이 호스텔 사역이 이제 카메룬과 케냐에서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우리도 이 사역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다. 정말 강력한 요청이다. 어제 진료를 했던 마을에서도 두 명의 아이를 호스텔에서 교육시켜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하신다. 우리 팀원들도 이 호스텔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선교사님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그들을 위해 ‘별폐식 기도’를 한다. 함께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린다. 이곳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아프고, 이곳 현지인들의 삶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다.

11월 9일, 이제 카라치에 복귀해야 하는 날이다.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카라치에서 타고

왔던 바로 그 버스를 타고 오전 7시에 다시 카라치로 향한다. 갈 때는 5시간(올 때보다는 훨씬 빨리 갔다)이 걸려 도착하여 도시 중심부를 지난다. 카라치가 왜 파키스탄의 경제의 중심지인가를 말해주는 듯한 건물들과 거리가 도착했던 날 더럽고, 어두웠던 그 카라치의 이미지와는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 같다. 중심부를 지나서 우리가 향한 곳은 파키스탄 현지인 교회인 트리니티 교회다. 그 옆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는 김탁균 목사님의 사택이 있다. 김탁균 목사님은 91년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 멤버이다. 그때는 임상병리사로 사역을 하셨지만 현지인 교회를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현지인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파키스탄을 위해 사역하시는 정말 베테랑 선교사님이시다. 지난 5월에는 선린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셨고, 이경자 사모님은 또 성대 결절 수술을 받으셨다. 5월에 7층에 가서 목사님을 뵈고, 함께 위해서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한데 오늘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만나 강의를 듣게 된다. 목사님은 파키스탄의 교회의 유래와 또 현재의 사역 방향에 대해 비교적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다. 이전에 예수님 시절 제자였던 도마사도가 AD 48년에 왔던 나라라는 사실도 언급하시면서 이곳이 참으로 역사적인 곳이라는 것도 알게된다.

파키스탄 교회는 1980년대에 연합을 하게 되어 여러 교단이 독자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하나의 파키스탄 교회로 사역하는 좋은 부분도 있다. 트리니티 교회는 1880년경에 영국 성공회에서 세워진 교회로 참으로 이곳도 역사가 깊다. 성공회의 영향으로 예배가 카톨릭식으로 기도문 낭송등 개신교 교회의 예배와는 조금 다른 너무나 정숙하고, 고요한 예배가 드러지는 곳이라고 하신다. 요즘은 성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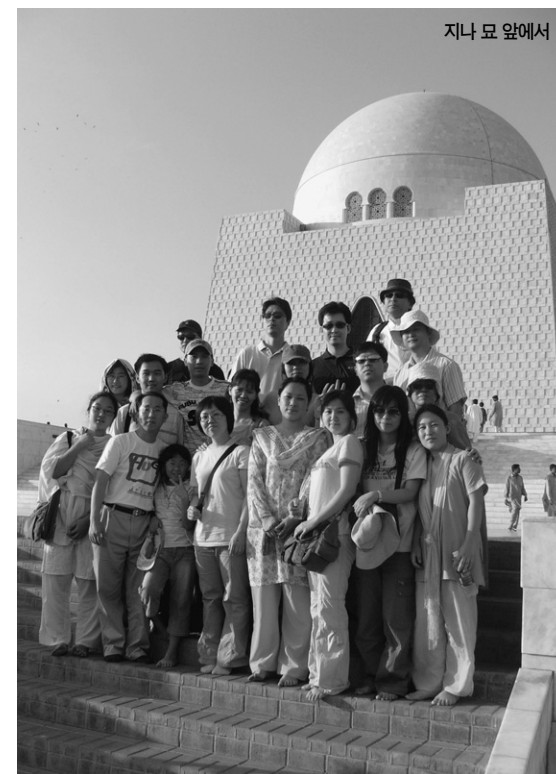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교회가 모여 함께 크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등의 집회를 1년에 두 번하신다. 이번 11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리는 성령집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신다. 사모님은 자녀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신다. 세 아들을 모두 파키스탄에서 낳으신 가정이다. 이 귀한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파키스탄에 헌신하는 목사님의 가정이 참 아름답다. 목사님과 자녀들, 그리고 트리니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 교회는 이전에 유럽에서 많이 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 그리고, 성령 집회를 위해 찬양팀으로 생각되는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그 속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들어보니 빠른 곡조, 느린 곡조의 찬양곡들이 현지인의 음색으로 아름답게 연주되고 있다. 퍽박받고, 억눌리며 사는 이곳의 크리스천들이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의 여느 교회 청년회의 모습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점심식은 교회 주위에 새로 생긴 피자헛에서 돼지고기가 없이 닭고기가 들어간 콤비네이션 피자와 치즈피자를 먹는다. 김목사님 아이들이 피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다. 오후는 시내 투어이다. 먼저 간 곳은 파키스탄의 국부 Muhammad Ali Jinnah가 묻혀있는 묘소에 간다. 인도의 힌두교에 맞서 무슬림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야심을 성공시켜 결국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Jinnah. 모든 거리에 또 모든 화폐에 얼굴이 붙어있고, 화폐도 그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으면 쓰지 못한다고 하니 가히 국부라 할 만하다. 웅장한 건물. 신도 벗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함께 지나 묘 앞에서 통성기도 대신에 묵상으로 이 나라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와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다.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교대식을 하는 광경도 양념으로 구경하며…….

오늘은 파키스탄의 유명한 시인의 죽은 날이어서 공휴일이라 기념품을 파는 시장이 모두 문을 닫는 날이라고 한다. 그래서 메리어트호텔의 기념품상에 가서 대충 간단히 사고, 해변으로 향했다. 아라비아해가 보이는 카라치의 해변. 이곳은 서해처럼 갯벌로 이뤄져 있다. 이곳에서 모두 낙타를 타며 즐거운 한 시간을 보낸다.

저녁식은 카라치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만찬을 나누기로 되어있다. 우리는 약속 장소인 ‘바비큐 투나잇’이라는 해변에서 가까운 레스토랑으로 이동하여 선교사님들을 만난다. 마지막 식사도 닭고기, 파키스탄에 와서 정말 닭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다. 처음 현지인 식사를 먹었던 것도 닭고기였던 것 같다. 질릴 만도 하지만 팀원들은 잘 먹는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이 닭고기는 제대로 바비큐가 되어 제법 육질이 좋은 것



같다. 만찬에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의 선교사님들이 모두 오셔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레스토랑에서 중국 선교사들과 아쉬운 작별을 한다. 적은 금액이나마 그들에게 헌금도 했다.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씌여질 것이다. 리사, 베티, 데이빗 이렇게 우리 캠프에 참여한 세 명 모두 팀원들의 별폐식 기도를 받으며 눈물을 흘린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고 확신한다. 아니 근데 딸 선희의 울음보가 터졌다. 한번 울면 크게 우는 선희, 그만큼 마음도 여리고 순한 것 같다.

식사 이후 조재선 원장님택에서 선교사님들과 더 깊은 시간을 가지길 원했지만 임대식 선생님 가족만 오시는 바람에 많은 교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임대식 선생님과 그 사모님의 나눔과 기도제목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아직 4시간이나 남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공항으로 향한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셨던 정은영 선생님이 자신의 자동차에 나와 이미 잠든 선희를 태워주신다. 가는 길에 처음 파키스탄에 왔을 때의 힘들었던 얘기를 하신다. 북쪽의 도시 머리까지 이 국산차를 3박4일 동안 몰고 갔던 얘기, 또 차가 그 중간에 고장났던 얘기등 도저히 믿기 힘든 어려웠던 얘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정선생님 가족을 위해 섬기고 열심히 기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공항에서 정은영 선생님의 눈물을 또 뒤로 하며 늦은 새벽인 3시 40분에 우리는 7일간의 파키스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다.

11월 10일. 드디어 비행기는 방콕에 오전 10시 30분에 착륙하고, 우리는 다시 김수안 선교사님의 미션홈에 간다. 지친 몸을 좀 쉬다 점심식사를 하

고, 단기선교의 마지막 평가회를 시작한다. 평가회에서는 재정을 맡은 신윤영 약사의 재정 보고와 한 사람씩 돌아가며 이번 선교를 통해 느낀 점과 기도 제목등을 나누게 했다. 그리고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다. 한 사람씩 정말 진지하게 나누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말 진지했고, 아쉽게도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얘기한 지체도 있었지만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자고 약속하며 3시간 반정도로 오래 걸린 평가회를 마쳤다.

평가회후 선교사님의 소개로 태국식 식사를 하러 갔다. 팀원들의 말을 빌리면 '어묵 샤브샤브'에 가까운 음식이다. 데워서 먹는데 한국의 그것과 거의 똑 같은 맛이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과 붙어있는 TESCO—한국의 대형마트와 거의 같은—에 가서 몇 가지를 사서 공항으로 향한다.

방콕 공항에 도착하니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주말인 관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Group ticket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앞의 타이항공 직원의 우리 앞 단체손님의 티켓팅이 한 명당 3~4분 걸리는 걸 알고 당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인의 기지를 살려 짹싸게 다른 줄에서 티켓팅을 시도한다. 잘 되어 나가던 티켓팅은 중간에 에러가 발생한다. —끝까지 끝까지 자신을 의뢰하지 마라는……! 우여곡절 끝에 티켓팅에 약 두 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출발하는 게이트에 모인 우리는 이정미 자매의 생일이 11월 11일이라 몰래 준비한 케익과 몰래 준비한 성냥으로 한국시간 11일이 되자마자 생일 축하를 한다. 슬쩍 눈치를 채고 있었던 정미, 그래도 좋아 하는 모습이다. 맨날 다른 지체들 섬긴다고 바빴던 정미가 이렇게 또 섬김을 받는 기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작년에는 부족한 자를 들어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는 준비기간 10월 2일 있었던 리트릿 때 김희식 목사님을 통하여 또 다른 도전과 목상으로 인도하셨다. “세가지 마음을 잃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 첫번째는 스플랑케니조마이, 예수님이 병자를 보며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즉 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단장의 마음’, 두번째는 엑수시아, 즉 예수님의 권세이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인 헤게모니아와 반대를 이루는 것으로 나를 위한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뒤나믹스’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주셔서 생기는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내 생각을 지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 파키스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목상이 되어졌다.

파키스탄에서 두번째로 사역하면서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긍휼의 마음을 여러 심장환자들을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며 많이 느꼈던 것 같고, 팀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엑수시아를 가지고 일을 해야한다고 계속적으로 생각했다. 두번째인 엑수시아는 아직도 헤게모니에 가까운 나를 보며 회개하는 마음이 든다. 세번째인 뒤나믹스는 팀장으로 일을 하며 많이 두렵고, 팀원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나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오히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라고 하셨던 작년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준비 모임 때 팀원들이 더 많이 나누며 기도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과 약품의 부족한 준비, 그리고

일정을 비교적 길게 잡아서 이동 때 지체되는 시간이 많았던 점등 내가 이끌고 준비했던 부분들의 미숙함이 많이 드러난다.

우마르코트에서 민간사님이 심장검사를 해서 호스텔의 평판이 좋아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게는 큰 힘이 된다. 이제껏 사막 진료를 많이 준비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우마르코트의 사람들을 그나마 섬기는 데 도움이 되어 앞으로의 호스텔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본다.

팀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기도를 아끼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팀원들에게 감사를 돌린다. 또 이번 단기선교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 모임들을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시고, 또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이후 파키스탄 단기선교는 치과나 한방과, 그리고 특별히 검사기구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팀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막진료는 비교적 다양하게 일반 진료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전문적인 진료도 가능하다면 실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기팀의 사역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쪽 지역의 의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팀의 사역도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사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처음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시고, 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독도를 다녀와서

엄철 · 전북 군산시의사회 총무이사, 은혜산부인과의원

경북·전북의사회 상호 친선 방문 21회째를 맞아 경북의사회의 초청을 받아 2006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 동안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전날부터 우리나라 태풍 후쿠의 영향으로 군산을 출발하는 금요일 저녁 무렵부터 적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행을 좋아함에도 사실 이번 방문지인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일대는 처음이었다.

일 년 전 처음으로 경북 의사 선생님들과 군산에서 만난 새내기 멤버이지만 작년에 보았던 경북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기대로 사뭇 흥분되기도 하였



다. 하여간 우중에도 불구하고 전주팀들과 25일 오후 7시 전주 도청 앞에서 합류하였는데 모두 약 30여명이 경북을 향해 출발하였다.

첫 목적지인 포항까지 약 5시간 걸려 지루 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들 처음 방문하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경북 선생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생각하며 소풍 떠나는 소년들처럼 마냥 들떠있는 듯하였다.

버스에서는 양형식 전북의사회장님의 사회로 방문의 취지 및 의사회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저녁은 도시락을 먹으며 간단하게 해결하였다.

밤 12시가 다 되어 생전 처음 우리나라 지도에 호랑이 꼬리로 표시되어 있고, 세계 최고의 제철회사가 있는 포항시에 도착하였다. 인구가 50만의 중소도시로서 포항시의 인상은 전반적으로 다이내믹하며 활기차 보이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도착해보니 이원기 경북 회장을 비롯하여 변영우 직전 회장님 등 경북의 임원진 여러분이 그 밤늦은 시간에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영호남을 떠나 의사로서의 끈끈한 형제애를 느끼기에 충

분한 환대였다.

일단 내일 행사를 위해 빨리 잠자리에 들라는 도 회장님의 명을 어기고 군산팀 4명은 주변 횃집에 가서 동해안의 싱싱한 회에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삼오오 주변으로 전북 회원들이 모여 들었다. 원로 회원분들을 빼고 양회장님까지 약속도 안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모이게 되었다. 첫날부터 즐거운 시작이었다.

26일 아침 일찍 포항시 선착장에서 10시에 출발하는 선플라워호를 타고 울릉도를 향해 출발하였는데 선플라워호는 2500톤급 유람선으로 약 1000여 명의 사람과 20여 대의 자동차를 태우고 약 3시간을 달려 울릉도에 도착하였다. 울릉도에 도착하여 정만진 울릉보건의료원장님의 친절환 안내로 다시 배를 갈아타고 2시간을 더 달려 독도에 도착하였다. 정만진 선생님의 재밌는 설명을 들으며 독도에 도착하였는데 독도는 서도와 동도로 나누어져 있고, 약 30여 개의 주위 바위로 이뤄진 바위섬이었다. 독도에 가까워지면서 갑판 위에서 독도를 가깝게 지켜보며 입도할 수 있었는데 섬을 보는 순간 웬지 뜨거운 가슴이 몽클하게 느껴졌다. 이 감정이 —말로 표현하긴 어려웠지만— 바로 애국심인 듯하였다.

독도는 잘 알려져 있듯이 원래 신라시대부터 우리의 영토로 되어 있었는데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하여 외교권을 박탈당한 후 일본이 자기 나라의 시마네현으로 편입해놓고 지금도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

경북·전북의사회원 60여명은 KBS 포항방송국의 취재 아래 한 목소리로 독도의 일본 망언을 규탄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는데, 이는 8월 26일 9시 KBS 뉴스에 영호남 의사의 독도 사랑이란 타이틀로 방송되기도 하였다.

이후 우리는 저녁 6시경 울릉도에 도착하여 대아리조트에 여장을 풀고 리조트 내 회의실에서 경북-전북 의사 친선대회 21번째 행사를 울릉 군수님을 비롯한 내외빈들과 함께 치루고 밤 8시부터 만찬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저녁 메뉴로는 울릉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콩치물회, 오징어 삼합 불고기 등이 인기가 높았다.

새벽 1시까지 노래방에서 서로의 우의를 다지며 여흥을 즐기고 늦게 잠에 들었는데 27일 아침 한사람도 늦지 않고 오전 7시경 아침을 먹고 관광팀과 산행팀 두 팀으로 나누어 울릉도 여행길에 나섰다. 울릉도는 인구가 약 1만 여명으로 신라시대까지 우산국으로 독립 국가였으나 신라장군 이사부의 점령이후 한반도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한다. 울릉도의 울(鬱)자가 답답할 울자라 하는데 돌아올 때 태풍의 영향으로 주위 사람들 모두 어찌 멀미가 심했던지 울릉도의 울자하면 답답할 울자라기 보단 꼭 울렁거릴 울자가 생각난다. 하하하 ~ 울릉도의 성인봉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오후 3시 선플라워호를 타고 울릉도를 떠나와 오후 6시경 경북 선생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포항을 떠나왔다.

멀리서 벗이 찾아 왔다고 즐겁게 맞아주는 따뜻한 경북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우정에 고마운 마음 금할 길 없었다. 또한 우정어린 선물 그득 안겨주며 손 흔들어주던 우리 경북 선생님들의 정감어린 눈망울을 좀처럼 잊지 못할 것 같다. 진정 우리 모두에게 좋은 추억으로 각인될 것이다.

이 행사를 통해 양도 의사회의 친목과 화합에 또 하나의 초석을 쌓았음을 누구라 부정할 수 있겠는가. 내년 전북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또 기대해 본다.

비단같은 금강, 금강같은 사람들

— 금강 도보순례 대장정 참관기

변영우 · 선린의원(경주)



지난 여름 정말 우연하게 금강 도보순례 대장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천안에서 개최한 의사협회 워크숍에 참가했다가 이원보 회장의 갑작스럽고 집요한(?) 제안에 넘어갔다. 당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지 3개월 남짓 되었고 후유증으로 왼다리에 힘이 없어 오래 걷는 것도 꽤 힘이 들어 망설였다. 그러나 평소 국토 도보순례를 해보고 싶어 머리 속에 그림만 그리다가 실천에는 옮기지는 못했던 터라, “에라, 한번 부딪쳐 보자!” 하는 마음으로 겁 없이 따라 나섰다. 쪽 경상도에서만 살아온 나로서는 고속도로 이용 때 금강 휴게소에서 내려다보는 금강이 고작이었다.

천안에서 무주로 향하며 경주에서 집사람이 챙겨온 옷가지와 신발을 건네받고 이회장과 함께 88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무주 뒷섬마을 큰손식당에 도착했다. 무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 지역이 아닌가? 잠깐 소나기가 지나간 뒤의 무주는 산, 나무, 풀잎, 거리의 아스팔트까지 씻겨져 더 파랗고 깨끗했다. 가슴을 짹 펴고 폐 깊숙이 맑은 공기를 들이 마셨다. 새로운 도전에 약간의 긴장이 되

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대장정은 여당의 국회환경노동위 간사이신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금강보전 네트워크 시민단체가 함께 주최하며 금강 발원지 뜬봉샘부터 철재도 래지인 금강 하구둑까지 400km를 순례하면서 강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 정화와 지역 환경 지킴이 들로부터의 여론 수렴이 그 목적으로 작년 섬진강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금 기다리니 3일 전부터 대장정을 시작한 순례단이 별로 지친 기색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줄을 이어 들어왔다. 가슴에 ‘2006 금강, 강과 사람’의 표식을 달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나이 든 분은 보이지 않아 처지지 않고 잘 따라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얼핏 든다. “내일부터 나도 저 표식을 달고 함께 걷고 달려야지”라며 다시 마음을 다잡기도 하면서...

다음 날 아침 8시경, 간단한 미팅을 하고 순례길에 올랐다. 탁 트인 산하, 명경 같이 고요한 수면 위에 산세가 비치면서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 놓은 듯 저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금강은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물살이 빠른 곳은 서로 손을 잡고 이끌고 끌어주며 모두 떠를 이루며 건넌고, 초등학교 대원들은 물이 마른 웅덩이 속의 죽어가는 피라미들을 두 손에 담아 강물 속으로 살려보내 주었다. 방생(放生)의 공덕이 자연스럽게 행해진다.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충남 금산군을 지나 충북 영동쪽으로 3개 도를 거치면서 강변을 따라 달렸다. 내 힘없는 다리는 자꾸 쉬어가자 나를 유혹하지만 지금 낙오하면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걷지 못할 것 같아 아픈 다리를 야멸차게(?) 몰아 세웠다. 강변 옆 숙소에 도착하니 전망이 탁 트여 시원하다.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으니 상쾌한 피로감이 젖어든다. 저녁 먹고 다들 모여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우의원님이 흥에 겨워 소주병에 손가락 끼워 만든 즉석 마이크 들고 멋들어지게 한 곡하니 자연스럽게 합창으로 이어지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금강의 밤은 깊어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작년에 섬진강 도보순례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지 환경운동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서로 형제 같고, 친구 같고 한 가족 같았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분들이라 모두 착하고 순박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철학을 가졌고 생명사랑에 대한 열정이 몸에 서부터 우러나왔다.

선진국이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시설과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정도가 그 척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도 선진국이 되려면 환경에 대한 인식 고취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시대를 앞서가는 환경 운동가들의 활동과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날은 우중(雨中) 속의 강행군이었다. 따가운 햇빛은 피했지만 우의 속의 몸은 무겁고 부자유스럽다. 힘들게 걸으니 아픈 다리가 절뚝거리진다. 선두 대열과 너무 쳐져 걷는다 싶어 헉헉거리며 반쯤 뛰다시피 걸어 가깝스로 후미에 따라 붙었다 싶으면 어느새 또 그만큼 뒤쳐진다. 뒤따라오는 행사 차량에 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오후 내내 걷고 또 걸었다. 숙소인 옥천신문사 사장님의 예쁜 전원주택에 도착했다. 신발을 벗어보니 발바닥 여기저기서 큰 피물집이 잡혀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었다 싶어 기분 좋은 저녁이었다.

4일째 오늘은 우리가 계획한 마지막 날이다. 날씨가 활짝 개였다.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방문하고 살아계시는 것 같은 선생님의 밀랍상에 인사를 드리고 ‘향수’ 노래도 흥얼거리며 도보길에 올랐다. 여기서부터 강수량은 빠르게 흘렀다. 대하의 모습을 띠는 강변을 따라 고속도로 밑을 통과해 금강유원지 휴게소를 지나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오후에는 일을 점검하며 휴식이 계획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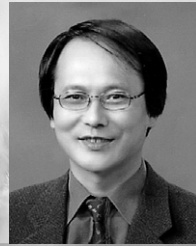
점심 후 헤어지려하니 더 걷고 싶은 아쉬움이 남는다. 아름다운 금강을 만나 그 품에 안기고 좋은 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으니 아픈 다리도 힘이 더 생겼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솟아났다.

강물은 아래로 아래로 흐르며 모든 것을 감싸안는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물줄기 따라 나도 같이 유유(悠悠)해지고 넉넉해졌다. 다음 도보순례길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꼭 연락 바란다며 신신당부하고 모든 대원들이 무사히 대장정을 마치고기를 기원하면서,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동지들을 뒤로하고 이회장과 함께 차에 몸을 실었다.

금강— 비단내,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 권창운 선배님을 기리며

이봉구 · 이피부과의원(경주)



권창운 선배님!

선배님이 슬하게 오르시던 남산 자락은  
오늘도 어김없이 넉넉한 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신다니  
저희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짙 짙 웃으시며 선배님께서 나타나실 것만 같은데……

선배님은 저희 후배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언제나 직설적인 선배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밝히는 의사가 되지 마라.”

누구나 쉽게 생각하는 말이었지만 실천하기는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선배님 눈 밖에 나면 언젠가 호되게 당할 날이 두려워서라도  
우리 후배들은 스스로 정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주 아래시장 터에 5일장이 들어서는 날이면

선배님 병원 화장실은 장터 사람들의 공동 화장실이 되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팔다 남은 채소는 그대로 진료비 대신이었습니다.

항상 한복차림에다가 백발까지 성성했던 선배님은

동네할아버지처럼 언제나 푸근하게 환자를 대하셨고, 특히 노인분들과 자연스레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뿐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도 항상 술선수범이셨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과 폭 넓게 사귀셨습니다.

특히 우리음악에 조예가 깊으셔서 국악계 분들과도 깊은 친분을 쌓으셨고

그 인연으로 인해 저희는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분들의 즉흥연주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행운도 얻었습니다.

지내면서 어쩌다 의료사고 등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면 후배들은 선배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고,  
선배님은 백방으로 뛰면서 모든 걸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후배들은 이렇게 큰형님처럼 항상 마음 든든했던 선배님을 영영 떠나보내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은 너무나 허전하기만 합니다.

선배님은 이 시대에 참 보기 드문 기인이셨습니다.

어제, 그제 선배님을 추모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선배님과 얽힌 슬한 에피소드를 나누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선배님의 행적을 들으면서 슬픈 자리인데 서로 웃기도 했습니다.

참 자유인으로, 세상을 거침없이 살아오신 선배님 삶의 역정은

소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내면 깊숙이 흐르는 삶의 중심에는 바로 “이웃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희 후배들은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해서 선배님의 호의에 별생각 없이 풍성히 받기만 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저 받기만 하느라고 선배님 깊은 속을 살피지 못한 것이 너무 마음 아픕니다.

하나같이 이기적인 이 시대를 살아 오시면서 어쩌면 참으로 외로웠을 선배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도 후회됩니다.

권창운 선배님!

여기 선배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사모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들 용환이, 용현이도 있고,  
그리고 늦둥이라 더욱 이뻐하셨던 막내딸 유아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가족들을 다시 한번 품에 안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선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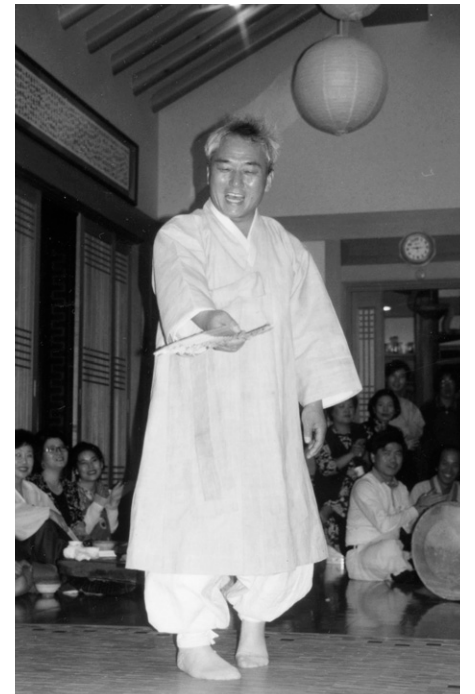
그리고 한 말씀 하십시오.

정말, 정말로 사랑했었다고…….

이제 선배님을 떠나 보낼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 여기 많은 사람들은 선배님을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떠올리시며 웃음 지으소서.  
선배님! 고이 잠드소서.



# 회무소식

2006년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집행부**  
대의원회 의장단  
중앙대의원  
중앙(의협) 임원  
**법률·세무고문**  
윤리위원  
시·군 의사회장  
사무 직원

## 경상북도의사회 | 집행부

### ● 임원(제40대)

(2006. 4. 1~2009. 3. 31)

| 직 위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 회 장 이 원 기 | 이원기외과의원 | (054) 272-1919 | 249-2820       |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                         |
| 부 회 장     | 김 종 국   | 경북정형외과의원       | (054) 452-1985 | 452-1986         | 구미시 원평1동 1064-4         |
|           | 백 승 인   | 백승인소아과의원       | (054) 746-0002 | 746-0002         | 경주시 성건동 340-1           |
|           | 권 세 홍   | 안동병원           | (054) 821-1101 | 820-1567         | 안동시 용상동 1592-31         |
|           | 이 규 춘   | 동국대학교의과대학      | (054) 770-2397 | 770-2447         | 경주시 석장동 707             |
| 기 획 이사    | 최 을 임   | 최소아과의원         | (054) 281-8788 | 281-8788         | 포항시 북구 득량동 155-2 반도상가2층 |
|           | 김 광 만   | 지곡그린의원         | (054) 221-4950 | 278-4950         | 포항시 남구 지곡동 949          |
| 학 술 이사    | 한 형 원   | 한형원내과의원        | (054) 272-5700 | 272-5730         | 포항시 남구 효자동 253-130      |
|           | 이 경 섭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054) 770-8265 | 771-0769         | 경주시 석장동 1090-1          |
| 재 무 이사    | 서 영 진   | 항구외과의원         | (054) 282-7752 | 282-7754         | 포항시 북구 죽도2동 95-2        |
| 법 제 이사    | 황 석 순   | 황석순내과의원        | (054) 246-1977 | 246-1978         |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1         |
| 보 험 이사    | 신 명 준   | 신명준외과의원        | (054) 285-8001 | 285-3579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
| 의 무 이사    | 서 보 균   | 포항교도소부속의원      | (054) 262-1100 | 262-3901         |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 95-1   |
| 공 보 이사    | 이 봉 구   | 이피부과의원         | (054) 742-1494 | 742-1494         | 경주시 동부동 141(2층)         |
| 정 책 이사    | 김 장 희   | 김장희산부인과의원      | (054) 749-4592 | 749-4382         | 경주시 동부동 113-10          |
|           | 장 기 호   | 사랑애의원          | (053) 814-8071 | 814-8072         | 경산시 옥산동 731-1           |
|           | 이 석 주   | 녹십자의원          | (054) 331-7071 | 331-7071         | 영천시 야사동 182-6           |
|           | 백 두 현   | 고령백의원          | (054) 954-3669 | 956-3669         |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
|           | 이 원 석   | 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 (054) 973-1147 | 974-4201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0-2       |
|           | 성 후 식   | 한동대학교선린병원      | (054) 245-5818 | 245-5311         |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
|           | 권 규 돈   | 권&오연합내과의원      | (054) 536-5757 | 531-2193         | 상주시 서성동 117-5           |
|           | 정 원 모   | 영주진단방사선과의원     | (054) 634-7655 | 634-7655         | 영주시 가흥1동 1381-505       |
| 감 사       | 정 만 진   | 울릉군보건의료원       | (054) 791-0010 | 790-6479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
|           | 정 능 수   | 동산연합의원         | (054) 861-0076 | 861-1675         | 의성군 안계면 용기4리 849        |
|           | 천 종 옥   | 천내과의원          | (054) 771-0503 | 771-0503         | 경주시 동부동 113-3           |

## 대의원회 의장단

### ● 의장단(제13대)

(2006. 4. 1~2009. 3. 31)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의 장   | 이 석 균 | 청십자의원      | (053) 815-7077 | 814-8877 | 경산시 중방동 538-3       |
| 부 의 장 | 이 웅 렬 |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054) 555-4797 | 555-4759 | 문경시 점촌동 245-9       |
|       | 허 석   | 김천X-선과의원   | (054) 432-3314 |          | 김천시 평화동 245-27 (2층) |

### ● 중앙대의원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정대의원      | 이 원 기 | 이원기외과의원    | (054) 272-1919 | 249-2820 |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
|           | 변 영 우 | 선린의원       | (054) 743-2645 | 743-5516 | 경주시 사정동 101-27       |
|           | 이 석 균 | 청십자의원      | (053) 815-7077 | 814-8877 | 경산시 중방동 538-3        |
|           | 김 종 국 | 경북정형외과의원   | (054) 452-1985 | 452-1986 | 구미시 원평1동 1064-4      |
|           | 권 영 철 | 권영철정형외과의원  | (054) 274-3636 | 272-5439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5-8     |
|           | 김 재 왕 | 김재왕내과의원    | (054) 856-7111 | 856-7109 | 안동시 동부동 74           |
| 교 체 대 의 원 | 이 웅 렬 |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054) 555-4797 | 555-4759 | 문경시 점촌동 245-9        |
|           | 허 석   | 김천X-선과의원   | (054) 432-3314 |          | 김천시 평화동 245-27 (2층)  |
|           | 김 동 욱 | 조은i의원      | (054) 455-4080 | 455-4080 | 구미시 봉곡동 387-9 현대빌딩2층 |
|           | 신 명 준 | 신명준외과의원    | (054) 285-8001 | 285-3579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55   |

### ● 중앙(의협)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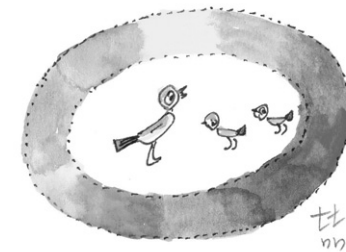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의협부의장 | 변 영 우 | 선린의원    | (054) 743-2645 | 743-5516 | 경주시 사정동 101-27 |
| 중앙이사  | 장 기 호 | 사랑애의원   | (053) 814-8071 | 814-8072 | 경산시 옥산동 731-1  |

## 법률·세무고문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위 전 원 화        | F A X    | 주 소                         |
|------|-------|----------|----------------|----------|-----------------------------|
| 법률고문 | 김 인 수 | 김인수법률사무소 | (053) 742-3100 | 742-3031 |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174-1 성광빌딩 401 |
|      | 김 상 윤 | 김상윤법률사무소 | (054) 246-0300 | 246-0390 | 포항시 북구 덕산동 118-4            |
|      | 정 연 경 | 정연경법률사무소 | (054) 742-9222 | 742-9223 | 경주시 동부동 141                 |
|      | 서 한 규 | 서한규법률사무소 | (054) 437-7447 | 435-9669 | 김천시 삼락동 1243                |
|      | 김 희 수 | 김희수법률사무소 | (054) 859-0710 | 858-9336 | 안동시 정하동 242-5               |
| 세무고문 | 박 경 운 | 박경운세무사무소 | (054) 244-1006 | 247-1008 | 포항시 북구 덕수동 54-4             |

## 윤리위원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위 원 장 | 신 은 식 | 신정형외과의원    | (054) 247-3397 | 247-3379 |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
| 부위원장  | 최 유 근 | 최유근안과의원    | (054) 854-5775 | 854-5775 | 안동시 남문동 202-2     |
| 위 원   | 변 영 우 | 선린의원       | (054) 743-2645 | 743-5516 | 경주시 사정동 101-27    |
|       | 안 길 룡 | 안외과의원      | (054) 432-9999 | 432-0009 | 김천시 남산동 16-5      |
|       | 손 병 욱 | 손병욱내과의원    | (053) 815-7900 | 815-7977 | 경산시 중방동 862-3     |
|       | 이 웅 렬 | 이웅렬이비인후과의원 | (054) 555-4797 | 555-4759 | 문경시 점촌동 245-9     |
|       | 김 종 국 | 경북정형외과의원   | (054) 452-1985 | 452-1986 | 구미시 원평1동 1064-4   |
|       | 김 대 환 | 베드로내과의원    | (054) 331-5522 | 331-5524 | 영천시 금노동 584-3     |
| 간 사   | 황 석 순 | 황석순내과의원    | (054) 246-1977 | 246-1978 | 포항시 북구 대신동 68-1   |



## 시·군 의사회장

(2006. 3. 현재)

| 구 분 | 성 명 | 근 무 처 명    | 전 화            | F A X    | 주 소                           |
|-----|-----|------------|----------------|----------|-------------------------------|
| 포항시 | 권영철 | 권영철정형외과의원  | (054) 274-3636 | 272-5439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5-8              |
| 경주시 | 김장희 | 김장희산부인과의원  | (054) 749-4592 | 749-4382 | 경주시 동부동 113-10                |
| 김천시 | 김영권 | 김영권정형외과의원  | (054) 439-2166 | 439-2166 | 김천시 황금동 34-7                  |
| 안동시 | 최현욱 | 동산정형외과의원   | (054) 858-8151 | 853-8083 | 안동시 태화동 205-5                 |
| 구미시 | 김동욱 | 조은의원       | (054) 455-4080 | 455-4080 | 구미시 봉곡동 387-9 현대빌딩2층          |
| 영주시 | 이찬응 | 이찬응산부인과의원  | (054) 631-2011 | 633-0150 | 영주시 하망동 145-28                |
| 영천시 | 이석주 | 녹십자의원      | (054) 331-7071 | 331-7071 | 영천시 야사동 182-6                 |
| 상주시 | 김용환 | 용한이비후과의원   | (054) 536-8575 | 535-3272 | 상주시 남성동 7-6                   |
| 문경시 | 김규태 | 김규태신경정신과의원 | (054) 552-1072 | 553-2072 | 문경시 점촌동 244-17                |
| 경산시 | 장유석 | 장유석외과의원    | (053) 851-7007 | 851-7007 |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133-5             |
| 군위군 | 김교준 | 성누가의원      | (054) 382-9911 | 382-9913 |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390-2             |
| 의성군 | 한성탁 | 한사랑의원      | (054) 834-8275 | 834-8275 |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7-17             |
| 청송군 | 정철  | 대구신경과의원    | (054) 873-1407 | 873-2407 |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
| 영양군 | 류수영 | 영남의원       | (054) 683-3465 | 683-6166 |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32-1             |
| 영덕군 | 권영대 | 권외과의원      | (054) 734-4663 | 734-4663 |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655-8            |
| 청도군 | 이상헌 | 현광의원       | (054) 372-2277 | 372-2277 |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562               |
| 고령군 | 백두현 | 고령백의원      | (054) 954-3669 | 956-3669 |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
| 성주군 | 방종경 | 덕산의원       | (054) 933-0644 | 933-0645 |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
| 칠곡군 | 이태규 | 왜관정형외과의원   | (054) 974-8811 | 973-8815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20-20            |
| 예천군 | 차광국 | 제일의원       | (054) 652-2989 |          | 예천군 예천읍 노하리 67-46             |
| 봉화군 | 조진만 | 조가정의학과의원   | (054) 673-2332 | 674-0740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19-30            |
| 울진군 | 임호식 | 누가의원       | (054) 782-4979 | 782-4979 | 울진군 북면 부구리 150-12 철보프라자 B-102 |
| 울릉군 | 정만진 | 울릉군보건의료원   | (054) 791-0010 | 790-6479 |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571-24            |

## 사무 직원

| 구 분     | 직 책  | 성 명 | 전 화            | F A X    | 휴 대 폰         | 주 소                     |
|---------|------|-----|----------------|----------|---------------|-------------------------|
| 경상북도의사회 | 사무처장 | 박재영 | (053) 941-7785 | 941-5557 | 011-512-0435  |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
|         | 대리   | 권순길 | (053) 941-7785 | 941-5557 | 011-9365-7268 |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
|         | 대리   | 김태희 | (053) 941-7785 | 941-5557 | 016-520-8200  |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
| 포항시의사회  | 사무국장 | 김두중 | (054) 281-0990 | 281-0992 | 016-502-9786  |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
|         | 간사   | 김은명 | (054) 281-0990 | 281-0992 | 010-3128-1250 |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
| 경주시의사회  | 간사   | 이지형 | (054) 774-9991 | 774-9986 | 017-530-9992  | 경주시 서부동 255-31 (3층)     |
| 안동시의사회  | 간사   | 윤진영 | (054) 857-6911 | 852-5356 | 011-9578-6406 | 안동시 송현동 298-5 (2층)      |
| 구미시의사회  | 간사   | 박민희 | (054) 457-7646 | 457-7645 | 011-9589-2280 | 구미시 원평동 534-8           |
| 영천시의사회  | 간사   | 김명숙 | (054) 337-8022 | 337-8021 | 010-8213-1116 | 영천시 창구동 1(영천문화원 2층)     |
| 경산시의사회  | 간사   | 김세경 | (053) 812-0030 | 812-1801 | 011-9568-6704 | 경산시 중방동 538-18(열린약국 2층) |

# 회무소식

— 2006년 경북의사회 이모저모

##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에서는 회원단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할 새 회장단 및 의장단을 구성하고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 5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006년 3월 29일(수) 오후 6시 대구 제이스호텔에서 개최하고 제40대 회장에 이원기 회원을 선출하는 한편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3억6000만원의 새해예산과 부서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재정 의협회장과 이의근 경상북도지사, 이병채·신은식 전 회장, 윤호정 경상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서상기 국회의원 등 내빈 다수와 대의원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건의 △의대 입학정원 감축 추진강화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 촉구 △약사 임의조제 근절방안 강구 △약대 6년제 찬반투표결과에 대한 해명 △의학·한의학 의료일원화 추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대책 △대국민 및 언론 홍보대책 △공제회 활성화 및 배상공제 가입과, 기타 안건으로 △성분명 처방 입법화 반대등을 중앙회 상정안건으로 의결하였으며, △본회 회장 직선제 채택과 관련해서는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기총회에서 의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석균 회원이, 회장에는 이원기 회원이 대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변영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의사회의 중요한 시기였던 2000년 경북의사회장에 취임한 이래 6년간 여러 회원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으며, 이제 새로운 회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자랑스런 경북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원기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오늘 회무를 맡는 것은 35년간의 의사생활에 있어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알고 지난 25년간 지역·도의사회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모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회원들은 기본 의무인 회비 납부를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을 내 가족같이, 환자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될 것이며, 동료들과 이해와 관용으로 서로 존경하자.”고 하였다.

### ■ 임원 명단

#### △ 회장단

- 회 장 : 이원기(포항)
- 부회장 : 김종국(구미), 백승인(경주), 권세홍(안동), 이규춘(경주), 최을임(포항)

#### △ 의장단

- 의 장 : 이석균(경산)
- 부의장 : 이웅렬(문경), 허 석(김천)

#### △ 감사단 : 정만진(울릉), 정능수(의성), 천종욱(경주)

#### △ 의협 대의원

- 정대의원 : 이원기(포항), 변영우(경주), 이석균(경산), 김종국(구미), 권영철(포항), 김재왕(안동)
- 교체대의원 : 이웅렬(문경), 허석(김천), 김동욱(구미), 신명준(포항)

#### △ 의협 중앙이사 : 장기호(경산)

### ■ 시상자 명단

#### △ 의협회장 : 김재왕(안동), 천종욱(경주)

#### △ 대외시상 : 진한석(의협 학술국장), 김선택(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이석영(의협신문)

#### △ 회원표창 : 최경자(포항), 황병욱(경주), 김도형(안동), 김철기(구미), 김대현(경산)

#### △ 모범분회 : 경주시의사회

#### △ 직원표창 : 김태희(경상북도의사회)

## 2006년도 춘·추계 학술대회

본회에서는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생애교육 차원의 보수교육을 2006년 5월 27일(토), 28일(일)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11월 26일(일) 오후 2시 경북대학교병원 10층 대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하





었다.

춘계종합학술대회는 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 회장의 인사로 시작하여 주요회무보고가 있었으며, 전여옥 국회의원의 특강, 학술연제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과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회원들이 의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화합해야 강한 의협을 만들 수 있으며, 내부적인 불신을 조장하기 보다는 회원들간에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성분명 처방, 간호사법 제정, 소아과 명칭 개정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계학술대회 첫날 학술강연에는 대사증후군을 강의로 경북의대 내분비내과 김정국 교수 등 2편의 학술연제가 발표되었고, 둘째날에는 비부비동염 치료의 최근 경향에 대해 계명대의대 이비인후과 안병훈 교수의 2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전여옥 국회의원의 ‘세계화 속의 뉴프런티어 한국’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장동익 의협회장의 ‘의료현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연수교육 12평점이 주어졌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곳은 날씨 속에서도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실제 진료실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제를 엄선하여 진정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했는데 최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의협 시도회장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하고 의사윤리교육과 의료현안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시작된 학술강연으로는 동국의대 서정일 교수의 ‘간염의 최신지견’ 외 4편 등 총 5편의 학술연제로 구성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졌다.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곳은 날씨 속에서도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실제 진료실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연제를 엄선하여 진정한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했는데 최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11월 28일 의협 시도회장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하고 의사윤리교육과 의료현안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시작된 학술강연으로는 동국의대 서정일 교수의 ‘간염의 최신지견’ 외 4편 등 총 5편의 학술연제로 구성되어 발표되었으며, 이날 참석한 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 6점이 주어졌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5월 27일(토) 14:00

△의사윤리 및 회무보고 -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 △대사증후군 - 김정국 경북의대 내분비내과 △잘나지 않는 감기와 호흡기 질환의 정복 - 김명성 효성아동병원 소아과 △개원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통증질환의 치료 - 김용철 서울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세계화 속의 뉴프런티어 한국 - 전여옥 국회의원 △의료현안 -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

• 5월 28일(일) 09:00

△당뇨병 - 시청각(비디오) △비부비동염 치료의 최근 경향 - 안병훈 계명대의대 이비인후과 △증거에 근거한 만성기침의 진단과 치료 - 이관호 영남의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전립선비대증 환자 관리, 진단과 치료의 최신 경향 - 이경섭 동국의대 비뇨기과 교수 △비만관리 - 시청각(비디오)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의사윤리 및 의료현안 보고 -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 △간염의 최신지견 - 서정일 동국의대 소화기내과 △개원가에서의 경구용 항생제 사용과 의료기구의 소독 - 장현하 경북의대 감염내과 △오십견(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의 치료 - 최창혁 대구가톨릭의대 정형외과 △방사선 치료의 최신 경향 - 김현정 동국의대 방사선종양학과 △고혈압의 진단 크라이테리아와 치료 - 허승호 계명대의대 심장내과

회원 화합의 장 제28회 경북의학제 개최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 증진을 위해 도내 4개 지구별 대항전으로 열리고 있는 제28회 경북의학제가 2006년 5월 28일(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야외경기로 펼쳐진 의학제 행사에는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신은식, 최종두 원로회원 등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지구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이날 의학제에서는 참석한 전 회원들과 가족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꼭지점 댄스를 배우고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바둑, 탁구, 윗놀이,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경기와 번외경기로 파도타기, 어린이경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족구, 골프 피칭, 줄다리기에서 우승한 서부지구가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동부지구, 3위 북부지구, 4위 남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항생제, 건강백세」의 시제로 진행된 삼행시에는 60여 편의 출품작중에서 이은현(포항성모병원 정철 회원) 가족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다.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자전거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에는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켜 참석자들의 희비를 가렸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28회 경북의학제를 폐막하였다.

- 종합우승 : 서부지구
- 준우승 : 동부지구
- 3위 : 북부지구
- 4위 : 남부지구



〈종합점수표〉

| 경기 종목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
|-------------|-----|-----|-----|-----|----|
| 제26회 바둑대회   | 50  | 30  | 20  | 40  |    |
| 제25회 탁구대회   | 30  | 40  | 20  | 50  |    |
| 제20회 윗놀이    | 회원  | 50  | 40  | 20  | 30 |
|             | 가족  | 50  | 40  | 20  | 30 |
| 제5회 족구대회    | 40  | 50  | 20  | 30  |    |
| 제5회 2인3각릴레이 | 20  | 40  | 30  | 50  |    |
| 제5회 골프피칭대회  | 30  | 50  | 20  | 40  |    |
| 제5회 줄다리기대회  | 40  | 50  | 30  | 20  |    |
| OX퀴즈        | 30  | 50  | 40  | 20  |    |
| 종합 점수       | 340 | 390 | 220 | 310 |    |

경북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제28회 경북의학제 전야제 행사로 진행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2006년 5월 28일(토) 오후 7시 경주 코오롱호텔 화랑홀에서 개최되었다. 각 권역별로 사전 신청받은 펜플룻, 기타, 대금연주, 남성중창 등의 장기자랑으로 선보인 친선의 밤 행사는 바쁜 직업중에서도 갈고 닦은 숨은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정만진 심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회원의 취미활동으로 같고 닦은 훌륭한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그 자체가 모두 대상감이며, 의사들도 많은 경험과 변신이 필요한데 오늘은 좁은 진료실이 아닌 많은 회원분들 앞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하였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남성중창단(안동시의사회)이 지난해에 이어 대상의 영광

을 안았으며, 가족으로 구성된 성악과 바이올린·피아노 연주를 한 김경훈(영주, 중앙의원)가족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 장기자랑 시상내역

- 대 상 : 남성중창단(안동시의사회) - 중창
- 우수상 : 김경훈(영주, 중앙의원) - 가족음악
- 장려상 : 박화중(포항, 에스페로내과의원) - 팬플룻 연주
- 표민아(구미, 형곡정형외과의원) - 무용
- 김도권(구미, 조은연합정형외과의원) 기타연주, 노래
- 서상철(경주, 미래연합의원) - 대금 연주
- 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기타연주, 노래

**제5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대둔산에서 개최**

2006년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충남 논산군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에서 제6회 대한의사산악회 총회 및 등반대회와 더불어 경상북도의사회 제5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등반대회는 대한의사산악회 주최로 전국에서 산을 좋아하는 350여 회원들과 더불어 본회에서는 포항, 경주, 안동지역에서 관광버스 3대로 출발하여 오전 10시 30분을 전후해 수락리 대둔산 주차장 모여 개회인사와 더불어 임원 소개후 대둔산 878m의 산행이 이루어졌다.

본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락계곡 주차장을 출발하여 화랑·수락폭포, 군지계곡, 220계단을 거쳐 마천대 정상, 금강구름다리를 지나는 3시간 30분여간의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산하여 인근 한밭식당에서 점심식사와 더불어 뒤뜰



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둔산 산행을 모두 완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회원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였으며, 본회에서는 등반대회에 쓰여진 관광버스티켓과 석식비를 지원하고, 기념품으로 야외용 물통을 증정하였다.

이날 산행한 대둔산은 충남 금산군·논산시와 전북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878m의 도립공원으로 노령산맥 북부에 속하는 잔구 가운데 하나로, 침식된 화강암 암반이 드러나 봉우리마다 절벽과 기암괴석을 이루고 있다. 특히 정상의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길이 81m, 너비 1m의 금강구름다리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이다.

- 산행코스 : 수락계곡 주차장 → 승전탑 → 화랑폭포 → 수락폭포 → 군지계곡 → 220계단 → 마천대(정상) → 구름다리 → (케이블카 이용 하산) 정상 삼거리 → 삼선암 → 육각정 → 집단시설지구
- 등반대회 참석 인원(98명)
  - 포항 : 35명, 경주 : 18명, 안동 : 35명
  - 구미 : 6명, 경산 : 1명, 사무곡 : 3명

**제5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열린 제5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5월 28일(일) 오후 2시 경주 현대호텔 테니스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테니스대회는 경북의학제와 병행하여 별도경기로 진행되었으며, 개회식에서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수 있는 테니스 경기를 통해 같고 닦은 실력을 한껏 발휘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경상북도의사회 테니스대회는 복식 풀리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선수 모두 훌륭한 기량을 과시하며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서상철·김성연 선수조가 우승을, 허준호·이태우 선수조가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 경기 성적(복식조)
  - 우승 : 서상철(경주, 미래연합의원), 김성연(문경, 김성연산부인과의원)
  - 준우승 : 허준호(포항, 여성아이병원), 이태우(포항)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21주년 기념 친선행사**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맞이하는 옛 우산국으로 아득한 태고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원시림, 기묘묘한 형상의 이름모를 암석, 수시로 변하는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룬 신비의 섬으로 유명한 울릉도에서 2006년 8월 26일(토)~27일(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제21회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친선행사에서는 양도의사회 회원과 의협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한국의정회 박희백 회장, 정윤열 울릉군수, 김태웅 부군수, 박현욱 118전대 대대장, 서일 KBS울릉중계소장 등 내·외빈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원기 경북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멀리 울릉도까지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친선행사의 모임은 사람간의 정을 나누기 위한 행사인 만큼 마칠 때까지 많은 추억의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양형식 전북도의사회장은 “서해 끝에서 동해 끝까지 달려왔으나 따뜻하게 환대해주신 경북의사회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답사가 있는 뒤,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만찬과 더불어 회원들은 친선의 밤 행사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회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인 8월 27일(일)에는 등산팀과 관광팀으로 나누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등산팀에서는 산의 모양이 성스러운 사람을 닮았고,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등 희귀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984m의 성인봉 산행으로 회원간의 우의를 다졌으며, 관광팀은 울릉도 일주를 한후 나리분지에서 등산팀과 합류하여 삼선암, 공암, 관음동 등 비경이 숨막힐 듯 펼쳐진 울릉도 내륙관광으로 진행되었다. 포항에 도착한 양도의사회 회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선물을 교환 후 내년에 다시 전북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는 1987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상호 격년제 초청행사로 개최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현안문제 논의와 더불어 회원들간의 상호 친선을 도모하는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 경북·전북의사회 독도 수호 결의대회 개최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 땅’이라며 목청껏 외치는 양도의사회 회원들의 구호 제창으로 독도가 떠들썩했다. 친선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경북·전북의사회 독도 수호 결의대회’에서 직접 독도땅을 밟고 ‘일본은 독도 침탈을 꾀하는 책략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 기도를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독도는 영원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을 선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원기 경북도의사회장은 “경북·전북의사회 회원들이 모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이며, 우리 어민들의 생활 터전임을 만방에 알리고자 왔다.”고 하였으며, 양형식 전북도의사회장도 “독도에 두 발을 딛고보니 뜻깊은 자리가 되어 매우 기쁘고, 이제는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되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꼭 지켜내야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정만진 보건의료원장(본회 감사)도 지속적인 의료후원을 약속했다.

이어 독도 수호에 여념없는 독도 경비대에 각종 의료품이 들어있는 구급함과 위문품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독도를 사랑하고 아끼자는데에는 양도 의사회 누가 먼저랄게 없이 모두가 뜨겁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찬 구호와 함성으로 뜻깊은 하루를 마감하였다.

### 2006 대구·경북의사회 무료개안수술 시행

경북·대구의사회와 함께하는 ‘2006 TBC 특집 무료개안수술’이 2006년 11월 11일(토) 오전 7시 45분과 11시 5분에 각각 1, 2부로 나뉘 ‘밝은 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집 5원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장이 패널로 출연하였다.

이날 생방송에는 대구·경북지역 안과 의료기관 4곳을 선정하여 환자들의 개안수술 장면과 표정들을 전하였으며, ‘고령화 사회의 현주소’, ‘새로운 빛, 다시 찾은 희망’이라는 내용으로 VCR 상영등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이원기 회장은 “앞을 못보는 사람, 즉 눈먼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바로 환하고 밝은 세상을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나며, 흐려진 자기 눈 안의 수정체를 들어내는 백내장수술이야 말로 오늘 신의 손이 되신 안과선생님은 물론, 2500여 경상북도의회 회원 모두가 의사로서 봉사함에 긍지를 갖게 되고 또한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라며 참여 의미를 밝혔다.



이번 무료개안수술은 올해 여섯번째로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무료개안수술에 참가하는 안과의원 및 내과의원에서는 전액 무료로 봉사하게 된다.

또한, 올해에는 경북 186명, 대구 44명(총 230명)이 참가 신청 접수를 하여 안과 및 내과적 술전검사를 거쳐 2006년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각 의료기관별로 무료개



안수술을 진행하였다.

이날 특집방송에는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 이경호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사무관, 장보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장, 이인혜 대구동구노인복지회관 관장이 패널로 출연하였다.

〈무료개안수술 참여 의료기관〉

| 시군 | 안 과 |          |               | 내 과 |          |               | 인원 | 비고 |
|----|-----|----------|---------------|-----|----------|---------------|----|----|
|    | 성명  | 의료기관명    | 전 화           | 성명  | 의료기관명    | 전 화           |    |    |
| 포항 | 조재학 | 삼상안과의원   | (054)249-8275 | 천병도 | 존메디칼내과의원 | (054)230-7600 | 15 |    |
| 경주 | 조수호 | 조수호안과의원  | (054)777-0067 | 박완섭 | 삼성의원     | (054)741-0003 | 8  |    |
| 김천 | 민성기 | 민안과의원    | (054)436-3121 | 정세주 | 정세주내과의원  | 054)437-6622  | 10 |    |
| 안동 | 서의태 | 제일안과의원   | (054)855-7582 | 박무영 | 박무영내과의원  | (054)857-6651 | 14 |    |
|    | 이종관 | 연합성모안과의원 | (054)859-0072 | 최영환 | 최영환내과의원  | (054)855-7881 | 15 |    |
| 구미 | 박철호 | 현대안과의원   | (054)441-0880 | 황종현 | 황종현내과의원  | (054)458-1155 | 8  |    |
|    | 송효철 | 밝은안과의원   | (054)455-9559 | 이용원 | 이용원내과의원  | (054)455-0793 | 9  |    |
| 영천 | 김현수 | 김현수안과의원  | (054)331-8885 | 이지옥 | 이내과의원    | (054)333-5203 | 8  |    |
|    | 박남규 | 박안과의원    | (054)332-0017 | 이지옥 | 이내과의원    | (054)333-5203 | 6  |    |
| 경산 | 서형덕 | 경산제일안과의원 | (053)811-5463 | 이석균 | 청십자의원    | (053)815-7077 | 7  |    |
|    | 우경호 | 우경호안과의원  | (053)854-7582 | 김병훈 | 김병훈내과의원  | (053)852-7987 | 7  |    |
| 칠곡 | 박성열 | 우리삼성안과의원 | (054)975-7581 | 이원석 | 박외과이내과연합 | (054)973-1147 | 4  |    |
| 의성 | 석환주 | 서울중앙안과의원 | (054)833-8302 | 김일환 | 김일환내과의원  | (054)834-5102 | 10 |    |
| 대구 |     |          |               |     |          |               | 65 |    |

〈무료개안수술 결과〉

| 구 분       | 참여 안과의원 | 접수 인원     | 수술 인원   | 비 고 |
|-----------|---------|-----------|---------|-----|
| 경상북도의사회   | 13      | 186명(121) | 52명(43) |     |
| 대구광역시시의사회 | 30      | 44명(109)  | 23명(32) |     |
| 계         | 43      | 230명      | 75명     |     |

**의료법 개악 저지 쫓기대회 개최**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회원 쫓기대회가 지난 2월 11일(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 의협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회 회원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의료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쫓기대회가 열렸다.

전국회원 쫓기대회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악을 강행



할 경우 의대 교수·전공의·병원의사·개원의 등 모든 지역의 9만 의사와 2만여 의과대학생 및 의료인 가족이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대정부 및 대국회 요구안에서 △의료법 개악을 주도해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 사퇴 △합리적 의료법 개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절차 보장 △국회 차원의 '의료법 개정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복지부장관 탄핵안 상정 등을 촉구하는등 정부의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비대위 위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갈 것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 병의원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한국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전국 모든 의사의료인이 대동단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본회 시군의사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 등 900여명과 버스 19대가 상경하여 의료법 개악 저지 쫓기대회에 동참하였으며, 붉은 색 털모자와 흰장갑으로 일체감을 주어 의협과 더불어 강력한 투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참석한 모든 회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쫓기대회에 임하였다.

**신구 집행부 회무 인수 인계 및 임원 간담회 개최**

2006년 4월 4일(화) 오후 7시 30분 포항 가양산장에서 신구 임원진과 신은식 윤리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회무 일체에 대한 인수 인계와 더불어 임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회무 인수 인계에서 이원기 회장은 전임 변영우 회장을 위시한 임원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임 집행부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회원들의 단합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집행부 임원진에게 선임장을, 상임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등 제40대 회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회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경과보고등의 회무보고와 2006년 춘계학술대회와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행사는 5월 27일~28일 양일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개최기로 하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등반대회, 회원 명부 발간 등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하였다.

**의협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의협에서는 2006년 4월 22일(토) 서울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회 총회를 열고 2006년도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116억2651만4000원의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의협은 사이버의료·불법의료 척결을 포함하는 한국의료일원화 추진을 비롯 사회주의식 건

강보험체계 개편, 민간의료보험 및 노인요양보험대책 수립, 보건의료 관련정책의 주도권 확보, 적극적인 홍보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회원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금년에는 회비인상 없이 회원수 증가등으로 지난 해 보다 8억1395만9000원 인상해 편성한 116억2651만4000원의 고유사업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한국의료의 앞날을 위한 층정에서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엄단해 근절시켜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김재정·한광수 두 의료계 지도자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모든 회원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며, 의사에게 면허취소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였다.

신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는 유희탁 대의원이 재석대의원 229명(재적대의원 242명) 중 216명이 투표한 결과 김승환 후보를 5표 차로 누르고 110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의협 부협회장·대의원회 부의장·감사는 전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협 부협회장은 김성덕·경만호·이현숙·박희두·홍승원·이용재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상근부협회장에는 이승철 회원이 총회에서 인준되었다.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김익수·최종상·김병천·변영우 회원이 선출되었고, 감사는 김완섭·이원보·김학경·조국현 회원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본회에서는 이원기·변영우·이석균·김종국·권영철·김재왕 중앙대의원과 박재영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소아과 개명 보류, 오진암 회동, 의협 예산 유용 등으로 의협회장 불신임안 처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 1) 의협회장 불신임안 처리의 건

- 일 시 : 2006년 10월 28일(토) 16:00 / 의협회관
- 주요내용 : 재적대의원 242명중 2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찬성 123대 반대 107, 기권 1표로 불신임안 부결

#### 2) 의료법 개정에 관한 대책의 건

- 일 시 : 2007년 2월 3일(토) 16:00 / 의협회관
- 주요내용 : 242명의 대의원중 186명이 참석하여 의료법 개정시안 전면거부

### 제34회 보건의 날 행사에서 본회 이원기 회장 축사

제34회 보건의 날 및 제58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의 건강증진 의식을 고취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7일(금) 보건의 날을 맞아 영천시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다함께(working together for health)'라는 주제로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이원기 회장, 보건관련단체장, 지역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립국악단 공연등의 식전행사와 기념식, 부대행사로 모자보건, 저출산대책과 기타 건강증진 관련 홍보물을 전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본회 이원기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만성질환이나 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잘못된 생활습관이 질병발생의 중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보건의료관계자들은 300만 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우리 300만 도민 모두 마음도 몸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고 하였다. 또한, 이 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방종경(성주)·김광만(포항) 회원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 5·31 지방선거 출마자 격려 방문

2006년 5월 20일(토) 본회 이원기 회장은 5·31지방선거에서 영주시장에 출마한 박시균 회원(68세, 성누가병원 이사장, 무소속)과 영천시의회에 출마한 최영하 회원(47세, 로즈산부인과의원, 무소속)을 방문하고 반드시 당선되기를 기원하였다.

이 날 두 후보자를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이원기 회장은 “현재까지 지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쓴만큼 반드시 당선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 바로 지역의 경쟁력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야 한다”며 격려했다.

또한, 소속 의사회에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독려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시균 후보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제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성누가병원 이사장이며, 최영하 후보는 영남의대 졸업하고 영천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로즈산부인과의원 원장이다.

### 경북의사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본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고문단간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2006년 6월 16일(금) 오후 7시 포항 에도일식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병채 고문을 비롯한 이원기 회장, 이석균 의장등이 참석하여 고문 위촉장 수여와 김광만 기획이사로부터 본회 제40대 집행부 구성과 각종 행사등에 대한 개최 보



고가 있었다. 이원기 회장은 '본회 회무에 많은 조인과 격려를 해줄 것을 요청' 하는 당부의 인사 말씀과 아울러 고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 고문 위촉 : 이병채, 남주현, 신은식, 최중두, 변영우 고문
- 임원 참석 : 이원기 회장, 이석균 의장, 권세홍 부회장, 김광만 기획이사

### 결혼이주여성 임신부 모성 검진 실시



결혼이주여성 임신부들의 모성건강을 위하여 산부인과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은 임신부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2006년 7월 15일(토) 오후 1시부터 경주 현대호텔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대구경북연구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가족캠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본회 및 유관단체가 후원하여 국가별 전통문화체험, 건강검진, 생활 지원, 자녀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결

혼이주여성, 배우자, 자녀별로 상호이해증진 프로그램등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본회에서는 이날 검진에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초음파와 각종 여성질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소아과에서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육아상담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 임신부 및 자녀 등 70여명을 진료하였다.

- 본회 임원 : 이원기 회장
- 소아과 : 백승인(경주 백승인소아과의원, 본회 부회장), 최을임(포항 최소아과의원, 본회 부회장)
- 산부인과 : 김장희(경주 김장희산부인과의원, 본회 정보이사), 장원연(포항여성병원), 김승만(경주 김용탁산부인과의원)
- 행정지원 : 본회 사무국 3명, 간호사 2명등

### 심평원 대구지원과 간담회 개최

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본회에서는 2006년 7월 26일(수) 오후 7시 30분 인터블로그 동보성에서 본회 주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사회와 심평원과의 조화와 더불어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였으며, 최철수 대구지원장은 “심평원도 회원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변화하려고 노력중이며,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에서 의료급여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한된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재정관리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심평원 업무현안과 의료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협력키로 하는 등 의견을 나누었다.

### 신임 심평원 대구지원장과 간담회 개최

2006년 11월 21일(화) 오후 7시 포항 바다원회식당에서 심평원 대구지원 신임 오장영 지원장과의 상견례를 겸하여 2007년도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사자 설명회와 더불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진료 청구상 유의사항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단체의 허심탄회한 고충을 알아가며 서로 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하였으며, 오장영 대구지원장은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 2006 회원명부 발간위원회 개최

본회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과 교류증진을 위하여 도내 전체 의사회원의 사진 및 인적 사항이 수록된 2006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하기 위해 제반사항 검토와 발간경비 조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06년 8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호텔제이스 자미정에서 발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발간위원회에서는 본회 이원기 회장과 백승인 위원장(본회 부회장)과 이봉구 공보이사,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승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진료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부 발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이어 이봉구 공보이사로부터 회원명부 발간과 관련하여 주요보고사항이 있는 후, 오는 10월경 발간(등재기준 9월 1일자)키로 하고 각시군의회 및 병원급에 교정중인 상태임을 보고하였으며, 발간경비는 전액 광고료등으로 충당되어야 하나 현재 접수가 미미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을 통해 광고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토의사항으로 회원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편집방향 설정과 아울러 의료기관의 광고는 의료법에 준하여 실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차고 정확한 명부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하였다.

본회 2006년도 회원명부는 의사회원 및 의료기관 상호간의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는 귀중한 책자로 매 3년마다 발간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도에 발간된 바 있다.

**동국대 경주병원 전공의 쾌유 금일봉 전달**



2006년 9월 7일(목) 오후 7시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뇌출혈로 입원중인 박수환 회원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규춘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이원기 회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본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국대경주병원 비노기과 박수환 회원(레지던트 4년차)이 뇌출혈로 입원가료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본회와 경주시의사회에서는 금일봉을 전달하는 등 빠른 쾌유를 빌었다.

이날 본회에서는 이원기 회장, 백승인 부회장, 이경섭 학술이사, 김장희 정보이사(경주회장)가, 동국대경주병원에서는 이규춘 병원장, 강석 진료부장이 배석하였다.

**본회 윤리위원회 개최 및 징계심의**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은식)에서는 2006년 11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국에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상견례를 가졌으며, 이어 박정하(서울 상계보람신경외과의원) 회원이 요청한 박도회(포항성모병원 내과 2년차)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가 열렸다.



윤리위원회에서 신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진료업무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 주실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원기 본회 회장은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윤리문제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진료과의 위원들로 구성되었기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윤리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하였다. 이어 신은식 윤리위원장 주재로 중앙 윤리위원회 규정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박정하 회원이 청구한 박도회 회원에 대한 회원 징계심의가 있었다.

이날 박도회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간의 경과설명과 더불어 소명 기회를 가졌으며, 본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상담자료 추가제출과 사과문 발송 후 징계를 결정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 징계사유 및 결정**

| 구분 | 대상  | 징계사유                          | 징계결정      |
|----|-----|-------------------------------|-----------|
| 내용 | 박도회 | 중앙윤리위원회 및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4조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

**본회 윤리위원회 구성**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여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협 정관 제57조 제1항, 본회 회칙 제35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 윤리위원명단**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지 역 | 비 고 |
|------|-----|------------|-----|-----|
| 위원장  | 신은식 | 신경형외과의원    | 포항  |     |
| 부위원장 | 최유근 | 최유근안과의원    | 안동  | 신임  |
| 위원   | 변영우 | 선린의원       | 경주  | 신임  |
| 위원   | 안길룡 | 안외과의원      | 김천  |     |
| 위원   | 손병옥 | 손병옥내과의원    | 경산  |     |
| 위원   | 이용렬 | 이용렬이비인후과의원 | 문경  | 신임  |
| 위원   | 김종국 | 경북정형외과의원   | 구미  |     |
| 위원   | 김대환 | 베드로내과의원    | 영천  | 신임  |
| 간사   | 황석순 | 황석순내과의원    | 포항  | 신임  |

• 위원회구성 : 위원장 1인, 위원 8인(임기 3년)

• 위원선출 :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위원 중 간사는 법제이사)

**법률고문 및 세무고문 위촉**

보건의료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제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권역별로 법률 및 세무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고문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고문을 위촉하였다.

**• 법률 및 세무고문 명단**

| 직 위  | 성 명 | 근 무 처    | 지 역 | 전 화           | 비 고 |
|------|-----|----------|-----|---------------|-----|
| 법률고문 | 김인수 | 김인수법률사무소 | 대구  | (053)742-3100 |     |
|      | 김상운 | 김상운법률사무소 | 포항  | (054)246-0300 |     |
|      | 정연경 | 정연경법률사무소 | 경주  | (054)742-9222 |     |
|      | 서한규 | 서한규법률사무소 | 김천  | (054)437-7447 |     |
| 세무고문 | 김희수 | 김희수법률사무소 | 안동  | (054)859-0710 | 신임  |
|      | 박경운 | 박경운세무사무소 | 포항  | (054)244-1006 | 신임  |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 개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경북의학제 행사에 앞서 2006년 4월 23일(일) 오후 2시 포항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종목 선정 및 경기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경기종목**

- 단체 : 바둑, 탁구, 윗놀이(임원조·선수조), 족구, 2인3각, 골프피칭, 줄다리기, OX퀴즈
- 친선 : 단체줄넘기, 파도타기, 훌라후프, 투호, 어린이경기(배점없음)
- 별도 : 테니스대회

**• 시조 및 3행시**

• 기타 : 몸풀기 체조(꼭지점댄스), 경기별 진행위원 선정, 상품의 다양화, 각 권역별 천막설치 및 조끼 제공(색상구분)

• 전야제 및 장기자랑 : 5. 27(토) 석식행사와 병행 실시하여 권역별 참가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워크숍 개최**

본회 사무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의료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간 일체감 형성 및 이해증진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9월 2일(토)부터 3일(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한 교육으로 회원정기신고, 문서처리 사항, 신규개원회원 입회절차 안내, 공제회 가입등의 교육과 사무직원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친목 행사등으로 이루어졌다.

**신규개설 요양기관 청구 설명회 개최**

심평원 대구지원에서는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표자 및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 요령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의약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대 상 : 신규개설 요양기관 대표자 및 청구담당자
- 일 시 : 매월 둘째주 수요일 19:00~21:00
- 방 법 :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진행
- 내 용 :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 요령(종별), 착오청구 사례(종별), 구비서류 및 각종 신고서식 등

**건강보험 정책설명회 개최**



의협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회원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설명

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본회와 대구시의사회 공동으로 2007년 2월 1일(목) 오후 7시 동산병원 마펫홀에서 개최하였다.

- 주제 발표
  - 건강보험 제도개선 추진방향 :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
  - 의원급 적정 환산지수 산정 제언 : 정두채 교수

**의협 최종 이사회 참석**

의협에서는 2006년도 4월 8일(토) 오후 3시 동아홀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년 고유사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5%가 증가한 116억원을 심의 의결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에 김동준 원장(김동준내과의원장)과 10명의 위원들을 의협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추천기로 결정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이석균 중앙이사가 참석하였다.

**공직선거법위반 항고심서 변영우 전회장 무죄 선고**



경기 성남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중이었던 변영우 전회장이 2006년 5월 2일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항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항고심 선고에서는 변영우 전회장과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이 개인의 자격으로 조직의 의결기구(대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조직의 명의를 이용하여 선거를 벌였다는, 선거사무소의 유사조직 이용금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이었으나 변영우 전 회장은 무죄를,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은

항소기각, 원심유지(벌금 50만원,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선고이유에서 신상진 후보자에 대한 지지는 전회원의 여론이었으며, 전국지사결의대회에서 의사정치세력화 선언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선거 지원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결절차를 거쳐 행한 선거운동이었으며, 따라서 변영우 전회장의 선거운동은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나 노광을 전 성남시의사회장의 경우는 이의 없음을 선고이유로 밝혔다.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결성**

재난관리에 있어 유관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정, 협력 등을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 활동을 수행하여 안전한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북 지역재난안전네트워크가 발족하였으며, 본회를 비롯하여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등 10개 정회원과 더불어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활동중이다.

- 회원단체 : 대한적십자사경북지사 등 10개 단체
- 주요업무 : 재난시 상황실 운영, 구호품·이재민 관리, 의료구호, 인명구조, 응급복구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9차 평의원회 참석**

2006년 6월 24일(토) 대한개원의협의회 제19차 정기평의원회회가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평의원회에서는 신임회장 선거에서 총 평의원 59명이 투표한 가운데 김종근 회장은 43표를 획득하여 연임에 성공했으며, 올해 예산으로 1억1809만원을 확정하고 조제위임제도 문제점 및 개선 대책,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조사 연구 및 개선, 의료일원화 대책, 1차 의료기관 운영활성화 대책,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관련 대책 등을 사업계획으로 의결하였다.

본회에서는 김종국 부회장(구미, 경북정형외과의원)과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회원이 평의원

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저출산 극복 혁신토론회 참석**

경상북도는 저출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06년 9월 21일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저출산 극복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처음으로 개최한 저출산 극복 혁신토론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최성정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국회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대표 안명옥 국회의원과 전국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공무원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극복 무엇이 문제인가'와 '출산장려정책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해 토론회로 진행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 및 공동 대응 방안을 가지고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본회 이원기 회장, 김장희 경주시의사회장, 유관단체등이 참석하였다.

**장동의 의협회장 자진사퇴요구 성명서 발표**

본회에서는 2006년 10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의료현안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의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 의협회장 면허취소와 국립 한의학전대대학원 설립문제, 의협 특별감사 및 임시총회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으며, 이석균 의장은 "이번 의협 사태를 지켜본 결과 의협회장의 지도력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격려사를 대신하였으며, 전북·경북

의사회 친선행사 및 회원명부 발간등에 대한 회무사항 전반에 대해 김광만 기획이사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토의사항으로 김재정·한광수 전회장 면허취소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기로 결의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본회로 제출기로 하였고,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에 대해 김재왕 회원으로부터 경과설명을 듣고, 설립반대 서명을 실시해 그 뜻을 전달기로 하였다.

의협 특별감사 보고 및 의견개진의 건에 대해서는 백승인 부회장으로부터 감사보고서에 대한 요약경과설명을 듣고 열면 토론이 있은후 본회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하는 등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성명서에서 경상북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장, 의장단, 중앙회대의원, 감사, 임원 등이 모여 '의료현안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현 의협 사태를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백척간두에 서있는 대한의협을 살리려는 충정으로 회원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대내외적으로 신의를 잃은 장동의 협회장은 대한의협을 살리기 위하여 자진사퇴하라고 하였으며, 임시 대의원총회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경상북도의사회는 불신임안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날 확대연석회의에 본회 의장단, 감사단, 시군의사회장, 임원등 35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면허취소 반대 서명운동 결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권투쟁으로 인해 9월 14일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에 대한 의사면허취소가 확정됨에 따라 의협 및 6개 보건의료단체와 더불어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의 면허취소가 부당하며 이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건의료단체장 공동명의로 전달하고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본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면허취

소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044명분의 서명지를 의협에 제출하였다.

### •서명결과

| 시군별 | 서명수  | 시군별 | 서명수 | 시군별 | 서명수    |
|-----|------|-----|-----|-----|--------|
| 포항시 | 263명 | 문경시 | 31명 | 고령군 | 7명     |
| 경주시 | 97명  | 경산시 | 96명 | 성주군 | 12명    |
| 김천시 | 74명  | 군위군 | 3명  | 칠곡군 | 27명    |
| 안동시 | 68명  | 의성군 | 31명 | 예천군 | 15명    |
| 구미시 | 215명 | 청송군 | 2명  | 봉화군 | 5명     |
| 영주시 | 10명  | 영양군 | 1명  | 울진군 | 4명     |
| 영천시 | 45명  | 영덕군 | 6명  | 울릉군 | .      |
| 상주시 | 10명  | 청도군 | 22명 | 계   | 1,044명 |

###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본회에서는 회무안내와 회원들의 문예지 역할을 하고 있는 2007년도 경북의사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편집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의사회지 편집방향 및 발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권세홍 편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임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거 전통을 살려 금년에도 훌륭한 회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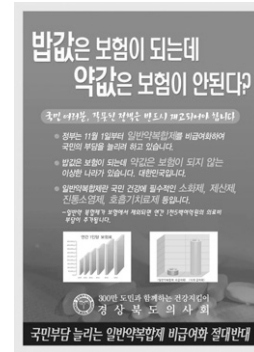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도 제30호 의사회지의 편집 및 발간 경과보고에 이어 제31호 경북의사회지 발간계획을 수립하고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원고청탁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집과 관련해서는 의사라는 직업과 더불어 다양한 방면에 관심과 재능을 보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집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편집위원회 개최>

- 2006년 11월 3일(금) 19:30 제이호텔 자미정
- 2006년 11월 17일(금) 19:30 본회 사무국
- 2007년 1월 11일(목) 19:30 본회 사무국
- 2007년 1월 25일(목) 19:30 본회 사무국
- 2007년 3월 22일(목) 19:30 본회 사무국

### 포스터 제작 배부

본회에서는 '국민부담 늘리는 일반약복합제 비급화에 절대반대' 한다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시군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일제히 배부하였다. 포스터의 주요내용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일반약복합제를 비급여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으며, 일반약 복합제가 보험에서 제외되면 연간 1천5백여억원의 의료비 부담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밥값은 보험이 되는데 약값은 보험이 되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다.



### 본회 2006 회원명부 발간



경상북도의사회 2500여 회원 상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06년도 회원명부'가 2006년 10월 발간됐다. 본회는 신규 회원의 증가와 연락처 변경 등에 따라 새로운 회원명부의 발간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간위원회를 구성, 발간사업을 진행해 왔다. 총 256쪽 분량인 2006 회원명부는 A4 크기의 판형에 회원들의 사진·성명(한글 및 한자)·생년월일·의료기관명·주소·병원전화·팩스·자택전화·휴대폰·이메일·면허번호 등을 수록했으며 게재 순서는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 순이며, 도의사회 집행부·의장단 명단을 비롯해 각시군의사회 임원진 연락처를 함께 수록했다.

부록에서는 회칙 및 세칙, 의협 및 시도의사회, 행정·유관기관, 시군보건소, 전국의과대학, 정부부처 및 보건의료관련 사이트 등의 정보를 담았다.

### 의료 현안 관련 긴급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본회에서는 국제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의 일환으로 소득공제 대상 진료비내역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26일(일) 오후 7시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날이 어려워지는 의료환경과 더불어 국제청의 진료비내역 자료제출에 회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가 있었으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어 김광만 기획이사가 의협 임시대의총회 결과, TBC 무료개안수술, 회원명부 발간, 심평원간담회 등의 주요회무보고가 있었으며, 토의사항으로는 2006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회비납부에 시군회장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소득공제 대상 진료비내역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중임에 따라 의협에서는 2006년 11월 28일(화) 개최되는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최 결과에 따르기로 하였다. 또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와 더불어 환자비밀노출, 전산처리 문제 등을 꼬집었다.

### 소득세법 개정관련 지역신문 광고

본회와 대구광역시의회는 2006년 12월 5일 매 일신문과 영남일보에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에서 의사회는 '환자의 동의 여부, 의료 혹은 정보 비밀 노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으며,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와 착오, 수기 혹은 자료 누락으로 인한 지연은 졸속 강제시행에 있는 만큼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과거처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말정산 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당부했다. 의사회는 또 <미디어다음> 자유토론방의 '어느 산부인과 의사의 편지'라는 내용을 통해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자칫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 예고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기획현지조사 대상 5개 항목을 발표하였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 청구형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 사전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은 수진자당 상병명갯수가 많은 기관 실태,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실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비만진료 요양기관 실태, 무자격자 진료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이다.

### 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 참석

심평원 대구지원 초청으로 2006년 4월 25일(화) 오후 7시 사랑채 식당에서 대구·경북 지역내 의약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및 파트너쉽 조성을 위하여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업무와 관련한 제반사항과 주요업무 등 최근 의료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였다.

###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방문

경상북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베트남 타이응우엔성 시범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이떠군라방면 룡반마을 현지에 보건진료소 및 초등학교사 준공식을 2006년 4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개최하였다.

준공식에는 이철우 정무부지사, 변영우 전 회장등 경북도 방문단과 타이응우엔성 진티푹 부성장을 비롯한 공무원, 현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현지 보건진료소는 6개월의 공사 끝에 부지 200평, 연면적 107평의 2층 규모를 갖췄다.

본회에서는 2006년 3월 8일(수) 경상북도에 심전도기, 기초의료장비 등 29종(5백만원)을 기증하였으며, 경북약사회에서도 기초의약품을 지원한바 있다.

###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 성금 모금

2006년 5월 27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지역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및 의약품은 구입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전개하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지진피해 성금을 시군 의사사회별로 할당하여 모금하였다.

• 본회 할당액 : 5,100,000원

### • 시군별 모금액

| 시군별 | 모금액        | 시군별 | 모금액        |
|-----|------------|-----|------------|
| 포항시 | 1,120,000원 | 청송군 | 20,000원    |
| 경주시 | 560,000원   | 영양군 |            |
| 김천시 | 280,000원   | 영덕군 | 80,000원    |
| 안동시 | 340,000원   | 청도군 | 80,000원    |
| 구미시 | 950,000원   | 고령군 | 50,000원    |
| 영주시 | 230,000원   | 성주군 | 80,000원    |
| 영천시 | 270,000원   | 칠곡군 | 230,000원   |
| 상주시 | 210,000원   | 예천군 |            |
| 문경시 | 200,000원   | 봉화군 | 20,000원    |
| 경산시 | 560,000원   | 울진군 |            |
| 군위군 | 20,000원    | 합계  | 5,390,000원 |
| 의성군 | 90,000원    |     |            |

### 2007년 환산지수 산정자료조사 실시

2007년도부터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계약함으로 합의됨에 따라 의협에서는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의과위원의 객관적 환산지수를 도출하고자 의과위원의 수입과 비용에 대해 전국 500개 표본 추출된 조사대상 의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본회대상 : 표본 추출된 40개 의과위원
- 조사방법 : 조사표(응답),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수집
- 연구책임 :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 연구책임원 정두재 교수

###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건정심은 가입자단체의 퇴장 속에 공익대표의 수가 2.3% 인상 및 보험료 6.5% 인상안을 상정, 2007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였다.

###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비고    |
|--------------|-------|-------|-------|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 60.7원 | 62.1원 | △2.3% |

### • 외래진료료(의원급 의료기관)

|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
| 초진 | 11,120원 | 11,380원 | 260원 인상 |
| 재진 | 7,960원  | 8,140원  | 180원 인상 |

### • 건정심 부속 의결사항

-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유형 분류안 및 적용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포함한 연구를 2007년 6월까지 완료
- 이를 바탕으로 2007년 9월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

### 현지 자율지도 점검

의료단체 현지도 대상기관 및 1차 자율시정 고득점 기관 중 현지도 방문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의협 보험국에서 의료기관을 출장 방문하여 잘못된 청구형태 등 지도 및 안내를 실시하였다. 자율점검에서는 대상기관의 문제점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실사시 대응책 수립등에 대해 자율지도 하였다.

### 소신진료를 위한 법률지원

의협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와 관련된 소신진료환경조성을 위한 법률지원협약에 따른 계약체결로 인하여 법률지원서비스 제공으로 회원들이 소신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협약기관 : 의협과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 지원대상 : 당해연도를 제외한 직전 2년간 연회비 완납회원 중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회원
- 지원내용
  - 의료기관의 법적 권리 및 실사 대응 요령 자문
  - 의료기관 요청시 법률지원 변호사 현장 파견 지원
  - 의료기관 요청시 실사결과에 대한 소송 지원
- 소요비용 : 변호사 현지출장 자문시 회원부담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3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협회장이 부담

### 의료용 기기의 멸균·소독 철저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멸균·소독 실태와 관련하여 내시경을 비롯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의협에서는 의료용 기구·기기들은 멸균·소독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의 발생 등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멸균·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회원들의 이행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였다.

의협에서는 의료용 기구·기기관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반 회원에 대해서는 자율징계활동을 전개하였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증 확인

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긴급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7일 이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자가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외의 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본인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 등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료기관을 통해 안내하였다.

### 진료 관련 불법 상품권 유통금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진료와 연계한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문화일보 2006. 6. 21)와 관련하여 복지부로부터 불법상품권 등 유통금지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본회에서는 불법 상품권 유통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 의료법 관련규정(제25조제3항)
  -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

###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의협 및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사본을 보험회사등에 교부하여 개인정보

및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요청이 있음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을 안내하였다.

-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지침 요약(2003. 9. 1 복지부 시행)
  - 환자 본인 :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신분증을 확인 복사)
  - 가족 또는 대리인 : 발급 신청서를 작성, 환자가 직접 작성·날인한 위임장 첨부(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 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
  -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하며, 진찰료 별도 징수(단,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진찰료를 징수 아니함)
  - 열람은 의료인과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며, 진료기록을 복사하여 사본발급이 된 경우에는 열람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기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에 대하여 타법령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바에 따름
- 사본발급비용 : 실비로 환자가 부담

###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조사 보고 의무 준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하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상북도에서는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일선 병원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식중독 환자 및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으니 식중독 의심 환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 한방병원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동의서 작성주의

한의사(한방 의료기관)의 CT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행위는 불법이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의료기기 사용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법의 한계점을 교묘히 피해 해당 의료기관과 별도로 영상의학과위원을 개설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특수의료장

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시설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관할 구역내의 다른 의료기관의 공동활용 동의를 구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시지역의 경우 200병상을 채우기 위해 관할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의 동의서를 받고 있음).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명백히 구분되어 있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위라 볼 수 없으며, 해당 한방 의료기관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공동활용 동의를 구할 경우 회원들이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부적합 판정 의약품 사용금지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의약품에 대한 사용금지 안내를 협조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에서는 부적합 판정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유효성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여 부적합 판정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환자에게 투약을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행정처분 : 의료법에 의거 시정명령,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 및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

### 국가암 조기검진비의 조속한 청구 안내

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기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를 대상으로 5대 암중(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암 조기검진 사업의 효율적 예산확보 및 환자에 대

한 적절한 사후조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암 조기검진비를 조기 청구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검진의료기관이 암 검진비를 조속히 청구하여 이상이 발견된 환자의 추가 검사와 조기 치료 등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의협 공제회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 안내

의협에서는 회원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구현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회와 삼성화재가 제휴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회와 삼성화재는 회원에게 양질의 보상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있다.

- 공제회 : 제26기 사업부터 (주)에스텍시스템과 경호협정을 맺고 경호서비스 제공
- 의료배상공제 : 내과 및 외과계열중 B1의 공제료가 회원의 적극적인 가입으로 신규 및 갱신계약분부터 10% 인하
- 가입문의 : 의협 공제회 및 본회 사무국(053-941-7785)

### 병원단위급 의료배상공제사업 시행

의협 공제회가 삼성화재와 제휴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공제상품으로서, 회원은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행하며 공제회와 삼성화재는 회원에게 양질의 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이다.

- 가입대상 : 의협 회원 및 병원(단, 병상기준 300병상 미만으로 수련의가 없는 병원 및 종합병원)
- 판매개시 : 2006년 4월 10일부터
- 가입기간 : 가입후 1년
- 효력발생 : 은행계좌로 해당 공제료의 입금이 확인된 익일 0시부터
- 가입절차 :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진료유형, 가입조건(보상한도액, 면책금 및 각종특약) 선택 → 가입신청서 송부 → 공제 청약서 및 입금계좌 안내 → 지정은행계좌 입금(병원명 기재) → 공제가입 증서 및 영수증 발급

### 연수교육 질 관리를 위한 운영관련 시행

회원 연수교육 질 관리를 위하여 연수교육 시행규정 의거 연수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따라 연수평점을 차등화할 수 있다에 의거 평점을 차등화하였으며, 방대한 서류로 인해 누락 및 각 교육기관의 연수교육업무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온라인화를 시행하였다.

- 연수교육 질 관리
  - 태반주사요법 : 제6차 교육위원회(2005. 10. 10)에서 논의(효과 검증될 때까지 평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함)
  - 과학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그 효과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영양요법 및 기능성 식품 등 보완대체요법과 관련한 교육 내용
  - 제약광고, 의료제품 설명회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교육내용
  - 교육내용의 10% 이상 교양과목 개설가능 : 의료정책, 의료사회학, 의료정보 등

### 2006년도 연수교육 이수자 및 평점카드 제출

현행 의료법 제28조 제2항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임상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은 연간 의무평점(의협 권장 12평점)을 이수토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연수교육 이수대상자 명단을 취합하여 의협에 제출하였다.

- 보고대상 : 임상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
- 행정사항 : 이수평점은 교육기관에서 보고되므로 자동처리되며, 면제대상자는 소정양식에 의거 면제신청, 평점카드를 회수하여 본회 제출
- 회원 개인별 평점이수 확인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접속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연수교육(본인 이수 평점 확인)

### 2005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증빙자료 제출

의협에서는 의료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의거, 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거 매년 연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2005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165명중 57명의 면제대상자를 확인하여 증빙 서류와 함께 의협에 제출하였다.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는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 의료법 개정 : 2006년 12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 대표발의)
- 주요개정 내용(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2)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3)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등
  - 6) 의료광고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심의(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단체에서 실시, 수수료 납부)
  - 7) 의료광고금지규정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에서는 2006년 12월 8일(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소독약 묻은 탈지면, 일회용 환자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몸통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었으며, 감염성폐기물의 명칭이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대상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다. 또한, 소독약 묻은 탈지면, 일회용 환자 기저귀, 일회용 주사기 몸통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별도 배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 폐기물관리법 개정 :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 주요개정 내용(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
  -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현행과 같이 규제하고 감염 우려가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자유롭게 배출(단순히 알코올만 묻은 탈지면이나 거즈, 피·고름 등이 묻지 않은 붕대, 일회용 기저귀, 바늘을 제외한 주사기 몸통 등)

### 의협 창립 100주년기념 행사 관련 안내

의협에서는 2008년 5월 2일(금)~4일(일)까지 COEX에서 개최예정인 제32차 종합학술대회는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의사 명인, 달인 100인 100색'이라는 뛰어난 특기 및 독특한 취미를 가진 회원을 발굴하여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예정이다.

- 프로그램 : 의사 명인, 달인 100인 100색(가칭)
- 추천방법 : 개별 응모 및 단체 추천
- 추천대상 : 의사 본업 이외에 뛰어난 특기 및 취미를 가진 회원 (예 : 산악인, 와인매니아, 판소리, 도예가, 문학가 등)
- 추천기간 : 2007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천
- 선정방법 : 조직위원회 심사위원단의 심사 및 선정
- 기타 : 선정된 회원은 의협신문 게재 및 학술대회시 강연·시연

### 정부의 보건소장 임용자격개정 추진 반대

복지부에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업선택자유와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위배된다는 지적하에 보건소장 임용 자격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려함에 따라 의협 및 본회 반대입장을 전달하였다.

- 반대 요청 내용
  - 보건소 기본업무에 충실
  - 보건소장직만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직렬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과 합리성에 어긋나는 일
  - 개정안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하며,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실패
  -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많은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재촉구
- 본회입장 전달 : 2006년 12월 26일(화)

- 복지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등

###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계획 철회 요청

김천시에서는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사업을 계획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전면 철회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철회 요청 내용
  - 의료체계의 왜곡 현상 및 1차 진료의료기관의 몰락 가속화 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감 팽배, 선심성 행정 유지 수단
  - 부실한 건강보험재정에 더욱더 부담
  - 의사 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정책입안시 보건의료전문가 단체의 참여를 독려
- 철회요청 전달 : 2006년 12월 15일(금), 김천시 및 보건소

### 의료접점기관 관계자 해외연수 참석

양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홍보와 더불어 주변 국가간 의료서비스 체계 상호비교를 위한 의료접점기관 관계자의 해외연수에 2007년 1월 6일(토)부터 11일(목)까지 참석하였다.

- 연수내용 : 의료서비스체계 및 의료정책 비교
- 참석대상 : 의료계 인사, 의료원장, 유관기관 단체 등 21명

### 2006 개원회원을 위한 세금가이드 책자 배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금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참조하도록 전문을 검토, 수정하여 『2006 개원회원을 위한 세금가이드』를 발간하였다. 이에 개원회원들의 세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가이드 책자를 개원회원을 대상으로 각시군의사회를 통해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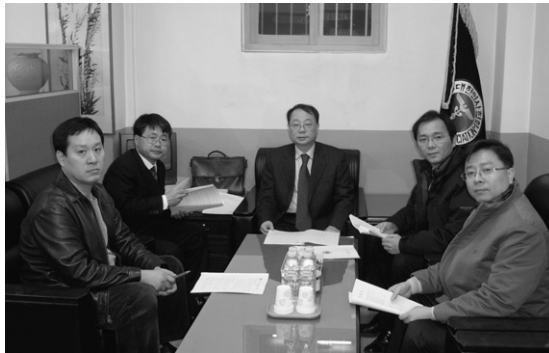
### 약가·현지조사 업무안내 책자 등 배부

약업신문사에서 발간한 2006년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책자 및 CD를 회원들이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각시군의사회 및 병원급을 통해 2006년 6월 8일 일제히 배부하였으며, 본회에서

는 책자 700권, CD 400부 등 총 1,100부를 수령하여 배부하였다.

또한, 의협에서는 복지부 현지조사(실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관련 안내』 책자 1,300부를 수령하여 배부하였으며, 의협과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방요령 소책자' 및 '기침예절 스티커'를 제작하여 각 400부를 배부하였다.

### 회칙개정소위원회에서 회칙개정(안) 논의



본회 회칙은 1945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 개정(2003년 최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현 시점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 전반적인 개정(안)에 대한 점검 및 논의를 위해 2007년 1월 24일(수) 저녁 8시 본회 사무국에서 회칙개정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소개와 더불어 백승인 위원장의 인사와 개정(안)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으며, 회칙 개정(안)은 1) 회장직선제(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 위임사항)와 2) 대의원수 조정(고정 및 비례대의원) 3) 기타 문구 수정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회장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회장은 회원의 직접·비밀·평등·보통선거로 선출하기로, 대의원수 정수는 90명으로 하되 고정대의원을 각 시군분회 1명씩, 그 외 본회에 1월말까지 보고된 회원수에 비례하여 비례대의원을 책정하기로 하였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구 수정

등으로 논의되었으며, 상임이사회 최종 논의 후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백승인 위원장(본회 부회장)과 황석순 부위원장(본회 법제이사), 전민(포항)·김대영(안동)·이광희(경산) 위원과 박재영 사무국장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 포항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 야외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권영철)서는 회원 및 가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9월 24일 팔공산 치산계곡에서 등반 및 야외회를 개최하였다. 팔공산 치산계곡, 진불암, 정상(동봉)팀으로 나누어 산행이 진행되었다. 등산코스가 완만하고 짧아 산행시간은 약 5시간 정도로 회원들 모두 정상을 밟았으며, 찾는 사람도 적고 계곡도 깨끗하여 한결 가벼운 산행이었으며, 간단한 석식후 해산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안동시의사회 자선음악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최현욱)는 2007년 1월 18일 오후 7시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자선음악회'를 열고 「떠나가는 배」, 「누이」, 「허공」 등을 선보이며 공연장을 찾은 600여명의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은 안동시의사회 중창단의 화음에 의사회원은 물론 안동시 지역인사들도 박수를 보내며 '앙코르'를 연호했다.

이날 자선음악회에는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승국 안동성소병원장, 신현수 안동의료원장, 박경찬 안동병원장 등 의료계 인사와 김희동 안동시장, 권오을 국회의원, 안상돈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등 지역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두표 회원(안동여성병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자선음악회는 권세홍 준비위원장(경북의사회 부회장)의 경과보고 및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선음악회의 서막을 알렸다.

이날 자선음악회에 창조출연한 안동병원 합창단(즐거운 병원을 만드는 사람들)과 안동성소병원 찬양대 '그룹사운드'도 절묘한 화음과 다이내믹한 연주로 참석자들의 컷가를 즐겁게 했다.

특히 안상돈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은 섹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최현욱 안동시의사회장은 "5년, 10년 그 이상의 오랜 세월을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 의사들은 아픈 환자들의 육체를 고쳐주고자 애써 왔다"면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어울려 노래를 부르며, 서로 걱정하고 보듬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안동시의사회는 이날 자선음악회를 통해 모금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 구미시의사회 제12회 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동욱)에서는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2006년 6월 18일(일) 선산컨트리클럽에서 제12회 구미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김동욱 회장과 박재호, 김두희 원로회원을 비롯하여 4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새벽 5시 32분부터 경기를 펼친 결과 홍순걸(홍이비인후과의원) 회원이 우승을, 준우승에는 김병용, 메달리스트 박우순, 3위에는 신재학 회원이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으며, 또한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여 경품추첨의 시간도 가졌다.

본회 이원기 회장은 골프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는 자리에서 "다소 무더운 날씨지만 구미시의사회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개최된 골프대회를 통해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 한동대선린병원, 삼일문화대상 '특별상' 수상



한동대선린병원(병원장 이진오)이 지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진료활동 및 국제사회를 향한 구호 및 치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11월 23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포항 MBC 삼일문화대상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선린병원은 6.25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미해병 소아진료소로 출발한 후 53년간 박애와 사랑의 의술을 펴왔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지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 특히 무의촌 무료진료와 외향선 및 외국인 무료진료, 그리고 해외재난현장을 발로 뛰며 응급구호 및 해외 무료진료활동을 펼쳐왔다.

병원의 무의촌 진료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972년 환여동을 시작으로 송라, 구룡포 울릉도 등 매년 4차례 이상 의료봉사를 펼치고 있다. 또 태풍 내습이나 강원도 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는 지역을 초월해 긴급히 의료팀을 파송해서 돕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진료는 포항 인근 산업체근무 외국인을 대상으로 매월 한차례씩하고 있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포항항에 정박 중인 외국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들에게도 무료 진료를 해왔다.

이밖에 이디오피아·감보디아·몽골·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베트남 등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정기 무료진료 활동 외에도 2005년 1월 쓰나미 참사 때는 응급구호팀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고 병원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520만원의 구호기금도 전달했다. 또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는 사태 발생 즉시 잘 훈련된 구호팀을 파견했다.

### 저지하자 의료법 개악, 가자 과천벌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회장님! 무조건 올라 가야지!' 이번에도 1등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벌떼처럼



달려드는 경상북도의사회는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회원 쟁기대회를 앞두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본회에서는 오는 11일 과천벌에서 개최되는 의료법개악 저지 쟁기대회를 앞두고 2월 7일(수) 오후 7시 30분 회관 3층 강당에서 긴급 시군의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반드시 의료법개악 저지에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독려키로 하였다. 이원기 회장을 비롯하여, 이석균 대의원의장, 정능수 감사, 시군의회장 및 상임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과천집회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반드시 의료법 개악을 저지해야 할 것이며, 경북의사회는 행동으로 옮기는 의사회로서 평일에도 문을 닫고 투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 라고 하였으며, 이석균 의장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무조건 의료법 개악이 되지 않도록 온힘을 기울이자' 라고 하였다.

이어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엉터리 줄속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황석순 법제이사가 주요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해 상세한 보고와 설명이 있었다.

경주시의사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쟁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동참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좌훈정 이사의 할복투쟁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원로회원들도 가세해

포항 신은식(71세, 신정형외과의원), 구미 박재호(76세, 대산외과의원)회원은 나부터 솔선수범하고 싶다는 가장먼저 참석의사를 의사회로 알려왔다고 전했으며, 경산 김홍용(79세, 대구의원)회원은 몸이 불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사회에 투쟁성금을 전달하는 등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의료법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여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후배의사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하였다.

#### • 토의 및 의결사항

- 1) 회원 및 가족 등 800여명과 버스 20대가 상경 예정(중간집계)
- 2) 투쟁 의지를 높이고자 빨간색 모자를 제작하여 일체감을 주기로 함
- 3) 서울시의회 좌훈정 이사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위로금 100만원을 전달하기로 함

### 본회 3·21 쟁기대회 총집결 결의

경상북도의사회가 3월 21일(수) 정부과천청사 앞마당에서 열리는 범의료계 쟁기대회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2007년 3월 14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시군의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의협·치협·한의협·간호조무사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참가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에 많은 회원이 참가해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막기 위한 투쟁에는 출혈이 있기 마련이다.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대처해야 한다"면서 "비관적이기 보다는 합리적인 의견도출로 효율적인 투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균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

법 개악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면서 "비장한 각오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운동에 전회원이 참여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의료법 개악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의료법 개악저지 쟁기대회에 앞서 단위별 반모임을 열어 회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기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회원들도 전원 휴진에 동참,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임으로써 의료법 개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경북치과의사회 및 한의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료단체가 모두 참가하는 쟁기대회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진안내문을 부착,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으며,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

### 의료법 개악저지 서명운동 실시

의협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2007. 2. 23 입법예고)저지를 위하여 범국민 의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였다.

- 서명취지 : 졸속적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 따라 의료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 전개
- 서명대상 : 회원 및 병의원 내원 환자

### 2006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회장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가 3월 31일(토) 열리는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와 병행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쟁기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상북도의사회는 3일 오후 6시 제이스호텔에서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회장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약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 일정을 비롯해 2006년도 회무 및 일반회계 (가)결산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원기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회원들이 단합하고 뭉쳐야만 우리가 바라는데로 헤쳐나갈 수 있다”면서 회원들의 결속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선정국과 관련, “연말 대선에서는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의사회 차원의 정치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전체이사회에는 박윤희 의협 100주년기념 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참석,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회원들이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위임사항인 경북도의사회장 직선제를 정기총회에 상정,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을 심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의원수를 90명으로 고정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타 토의에서는 2006년 회비징수를 위해 시군의사회장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기로 했다.

전체이사회에서는 특히 의사회의 정치참여와 관련, 의료계와 우호적인 대상자를 선별해 국회의원 정치후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진행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 의료법비상대책위원 및 사이버 홍보대 추천

의협에서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3개 위원회(실행·정책·홍보)와 사이버 홍보대를 구성하여 모든 직역을 포함시켜 의료법 개정 저지에 온힘을 기울이기로 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였다.

- 의료법비상대책위원 : 한형원(실행), 황석순(정책), 신명준(홍보)
- 대국민사이버홍보대 : 백승인, 김장희, 이봉구, 김광만, 신명준, 하달봉

### 의료현안 관련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본회에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의협회장 불신임안, 의료법개약저지 궐기대회와 관련하여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상호의견을 개진하였다.

- 회의개최일정
- 2006년 10월 12일(목) 19:30 의사회관 / 의협회장 불신임 건
- 2006년 11월 26일(일) 19:30 감포바다 /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 2007년 2월 7일(수) 19:30 의사회관 / 의료법 개약저지 방안
- 2007년 3월 14일(수) 19:30 의사회관 / 궐기대회 참석 방안

### 심사평가업무 설명회 및 심사시연회 개최

심평원대구지원에서는 심사업무의 패러다임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심사평가업무와 경영혁신 추진사항등을 설명하고 개별기관별로 청구경향 분석과 진료비를 심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심사시연회에 대구·경북의사회 보험이사 및 의료기관장 등이 참석하여 실시하고 있다.

### 불법·부정의료 예방교육 참석

복지부에서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관계법규 준수 및 정부시책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불법·부정 의료를 예방하고자 대구·경북지역

의료지도 담당공무원, 보건의료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15:00
- 장 소 : 대구시청 대회의실
- 교육내용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내용 및 행정처분 방향
  - 의료인이 알아야 할 보건의료관계법규 및 행정처분 사례
  -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발생사례 등

### 현금영수증관련 세법 개정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 현금영수증 관련 세법개정 주요내용(7. 1 이후 거래분부터)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 ※ 6월 30일까지 가입(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및 벌금(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 도입,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

### | 성명서 |

## 전라북도·경상북도의사회 공동 성명서

전라북도, 경상북도 의사회 자매결연 21주년을 맞아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행사를 마치고 양도 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1. 양도 의사회는 독도가 영원한 우리영토임을 한번 더 확인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기로 결의한다.
1.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문제에 의협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대한의사협회의 현 사태를 개탄하며, 감사단의 보고가 발표될 때까지 모든 직역은 자중하여 주기를 바란다.

2006년 8월 27일

전라북도·경상북도의사회 임원 일동

##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경상북도의사회는 시군의사회장, 의장단, 중앙회대의원, 감사, 임원 등이 모여 '의료현안 관련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현 의협 사태를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의협을 살리려는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회원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대내외적으로 신의를 잃은 장동의 협회장은 대한의협을 살리기 위하여 자진 사퇴하라.
1. 임시 대의원총회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경상북도의사회는 불신임안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06년 10월 12일  
경 상 북 도 의 사 회

## 대구·경북, 중앙의협-대의원 성명서

대구·경북, 중앙의협-대의원 일동은 2006년 10월 20일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100년 의협 역사상 초유의 극한 혼란과 분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현실과 장동의 협회장의 거취에 관해 진지한 논의 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8만 의사의 수장으로서 대내·외적 신뢰와 대표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장동의 협회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임시대의원총회에 협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대구·경북, 중앙의협-대의원은 불신임안을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1. 원만한 사태 해결과 의료계의 화합 발전을 위하여 회원간의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0월 20일  
대구·경북, 중앙의협-대의원 일동

## 대구·경북, 중앙대의원 성명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대구광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의사회는 공동 중앙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1. 지금은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의료계를 압박하고자하는 비상 상황임을 선언한다.
1. 30여년만의 의료법 개정에 있어서, 금번 보건복지부 주도의 퇴행적이고도 졸속적 개정을 반대한다.
1. 의료법 개정 전체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의 적극적 의지를 담아 전권을 위임하는 별도의(가칭)의료법개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 중앙대의원 일동

## 경상북도의사회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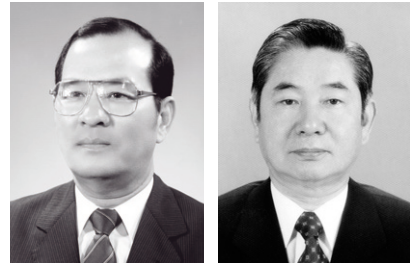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등 의료법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해가 가해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의사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의사 노예화를 명문화시키고 사회주의 의료를 완성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에 경상북도의사회는 정부의 의료법 개악을 전면 거부하며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계속 시도할 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25일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일동

## 회원 동정란

### 이병채 · 신은식 회원 의협 고문에 선임



의협 제34대 집행부 고문단이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회 이병채(포항운전면 허시협장) · 신은식(포항 · 신정형외과의원)이 선임되었다.

이병채 고문은 19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64년 산부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1982년 포항시의사회장, 1991년 경상북도의사회 35대 회장, 1997년 대한의사협회 감사를 역임하였다. 또한, 신은식 고문은 1962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71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1991년 포항시의사회장, 1994년부터 경상북도의사회 36대~37대 회장, 1999년 경북체육회 이사, 2000년 대한의사협회 감사를 역임하였다.

### 이원기 회장 경상북도구급대책협의회장으로 선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2006년 6월 28일(수) 오전 11시 소방본부 3층 회의실에서 구급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구급대책협의회운영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투표한 결과 본회 이원기 회장을 신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원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함께 300만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119구급대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날 구급대책협의회회의에서는 2006년도 상반기 구급대책협의회 운영 의제로 비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방안과 119구급대 응급구조사의 효율적인 수급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의논하였다. 경상북도구급대

대책협의회는 본회 이원기 회장(협의회장)과 조종묵 경상북도 방호구조과장(부회장)등 사회관련단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변영우 고문 의협 부의장에 선출, 행자부장관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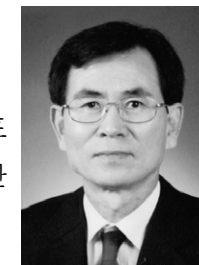


2006년 4월 22일(토) 개최된 의협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회 변영우(경주 선린의원) 전 회장이 의협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변영우 의협 부의장은 제33대 의협 집행부에서 부협회장과 대외사업추진본부 대외기획특별위원장을 맡으며 굵직한 사업의 중요 실무를 도맡아 해왔으며, 추진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변 부의장은 경북의대 졸업(1974년)하고 경상북도의사회장(2000년~2006년), 의협 부협회장(2003~2006년), 의협 대외사업추진본부 대외기획특별위원장(2003년), 약대 6년제 저지 비상대책위원(2004~2005년), 의협 의료정책평가단장(2004년), 의협 해외재난 한국 민관합동의료지원단장(2005년)등을 역임하였다.

또한 변영우 고문은 2006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로부터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변영우 고문은 본회 회장 재임시 지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개안수술, 불우이웃돕기 등 성금모금 전달, 태풍(루사, 매미)으로 인한 수해지역 무료진료활동,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지역의 민관합동 의료봉사단장으로 의료지원 활동,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따이떠군 라방면 룡반마을 현지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기초의료장비 지원등 베트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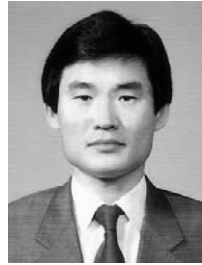
### 정만진 회원 의료정책연구소 예산소위원회장에 선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지역과 직역, 그리고 의협이사를 포함하여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소위원회 · 사업소위원회 · 예산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다.



신임 의료정책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정연태 소장은 광주 원광의대 해부학 교수이자 자연보호 중앙연맹 부총재를 역임하였으며, 연구조정실장에는 양귀화 연구원이 임명되었다. 또한, 인사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전북의사회장인 양형식 위원이, 사업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인숙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가, 예산소위원회 위원장은 경북의사회 감사인 정만진 위원이 선임되었다.

### 정능수 회원 2006년도 자랑스런 도민상 본상 수상



지난 10월 23일(월)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06 경북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능수 감사(의성, 동산연합의원, 본회감사)가 자랑스러운 도민상 본상을 수상하였다. 정능수 감사는 의성경찰서 방법자문위원과 의성군이웃돕기추진협의회장, 사회봉사단체협의회회장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하였으며, 수해지역 및 지역의료봉사활동 전개등의 의료활동 및 농촌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저소득층 학생 학비지원등 지역화합 및 청소년 보호등의 활동으로 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도민의 날 행사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등 기관장들과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상에 23명, 특별상 2명 등 25명이 수상하였다.

### 김종국 · 전민 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평의원 추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칙 제12조 및 의협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개원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본회에서는 김종국(구미, 경북 정형외과의원), 전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회원을 평의원을 추천하였으며, 임기는 2006년 6월부터 3년간이다.

### 김재왕 회원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협에서는 의학과 의료계 일원화 확립에 한국 의료와 과학의 미래가 달려 있음을 확신하면서 한방 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전근대적인 이원화 의료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의 선진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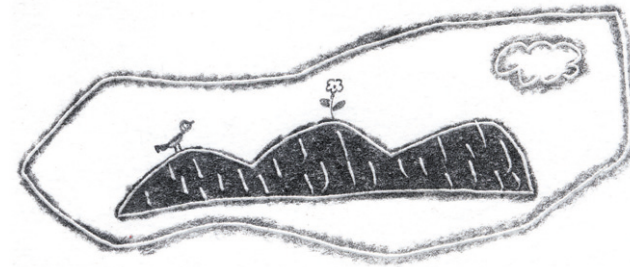
하고자 의료계 전체 직역이 총 망라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발족과 아울러 본회 김재왕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전문 인력풀 강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에 대한 멘토, 상담, 안내, 강의에 초점을 맞춘 전문 직업풀에 이경섭(동국대경주병원), 최호철(순천향구미병원), 이선주(동국대포항병원)을 추천하여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 이해, 진로교육프로그램, 직업등에 대해 강의하는 전문 인력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의협 홍보위원회 위원 추천

의협에서는 합리적인 홍보정책의 수립과 홍보활동의 연구개발 및 회원과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위원회를 구성기로 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봉구 공보이사를 추천하여 활동하고 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선호 회람

김선호 회원(전 의협 상근부회장)은 2006년 4월 10일 향년 7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김선호 회원은 19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를 취득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의협보험이사, 법제위원 등을 거쳐 상근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의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재경 경북의대 동창회장등을 역임하였다.



### 최정식 회람

최정식 회원(경주, 제중의원)은 2006년 5월 22일 향년 7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최정식 회원은 1970년 면허 취득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제중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지역 의료계 발전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다.



### 남재우 회람

남재우 회원(울진의료원)은 2006년 8월 6일 향년 5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남재우회원은 1972년 경북의대 졸업후 1980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1981년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과장, 울진군의료원 정형외과 과장등을 역임하였다.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었다.



### 김찬우 회람

김찬우 회원(영덕제일병원)은 2006년 8월 18일 향년 7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김찬우 회원은 195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전문의 취득후 1968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영덕제일병원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제11·14·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의료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 권창운 회람

권창운 회원(경주, 권내과의원)은 2006년 12월 14일 향년 59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권창운 회원은 197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경주시 성건동 소재 권내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시민보건 향상과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고복현 회람

고복현 회원(경주, 동국대학교의과대학)은 2007년 1월 6일 향년 60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고복현 회원은 197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87년 경북의대 해부학교실 전임강사를 역임한 뒤, 1989년 동국의대 교수로 부임하여 동국대 의학연구소 소장과 의대학장, 2003년 동국의대 료원장을 역임하면서 후진 양성과 의학 발전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였다.



### 최세영 회람

최세영 회원(구미, 장수요양병원)은 2007년 1월 21일 향년 71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고 최세영 회원은 196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72년 박사학위, 1973년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1964년 경산시보건소장, 대구시립병원 외과과장, 1972년 경북의대부속병원 외과과장, 장수요양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하는 동안 시민보건 향상과 참의료인상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매화꽃같이 향기로운 회지를 위하여

한 해가 넘어가고 계절이 바뀌면서도 그렇게 시린 추위가 없었던 탓에 올 겨울은 겨울답지 못했다고 푸념 아닌 푸념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듯이 푸념을 한다고 겨울도 그냥 머물러주는 게 아닌 듯 합니다. 1초는 1초만큼의 빠르기로 1분은 1분만큼의 빠르기로 가는 그 시간에 실려,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있다보니, 겨울 내내 정리한 원고들과 작성한 특집기사들이 이제는 활자화되어 『경북의사회지』로 봄꽃처럼 고개를 듭니다. 매화꽃 같다고 해도 좋고, 진달래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화려하진 않으나, 그저 봄꽃 마냥 소담스럽고 인정이 묻어나는 소식이나 사연들로 채워진 책자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이번 31호부터는 권세홍 편집위원장을 비롯하여 새로운 편집위원들로 구성되었습



니다. 출판사도 '만인기획사' 로 새롭게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편집위원들과 새 출판사로 해서 책자가 보다 더 새로워졌다고 어깨를 으쓱해보지만, 한편으로는 그간의 세련됨보다는 풋풋함이 더 배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께는 더욱더 정감이 가는 『경북의사회지 31호』로 남기를 바라며 지난 한 해를 회상하면서 2007년 봄에 행복한 후기(後記)를 올립니다.

『경북의사회지』 발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원기 회장님과 집행부 임원님들을 비롯하여, 특집 기사 취재에 흔쾌히 응해주신 다섯 분의 선생님들과 보석처럼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굵은 일도 마다않고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과 만인기획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집위원

권세홍  
이봉구  
박정돈  
하달봉  
이덕영

인쇄 · 2007년 3월 25일

발행 · 2007년 3월 30일

발행인 · 이원기

편집인 · 권세홍, 이봉구

발행처 ·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 053) 941-7785, FAX : 053) 941-5557

Homepage : <http://www.kbkma.org>

E-mail : [cugkma14@hanmail.net](mailto:cugkma14@hanmail.net)

제작처 · 만인기획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743-7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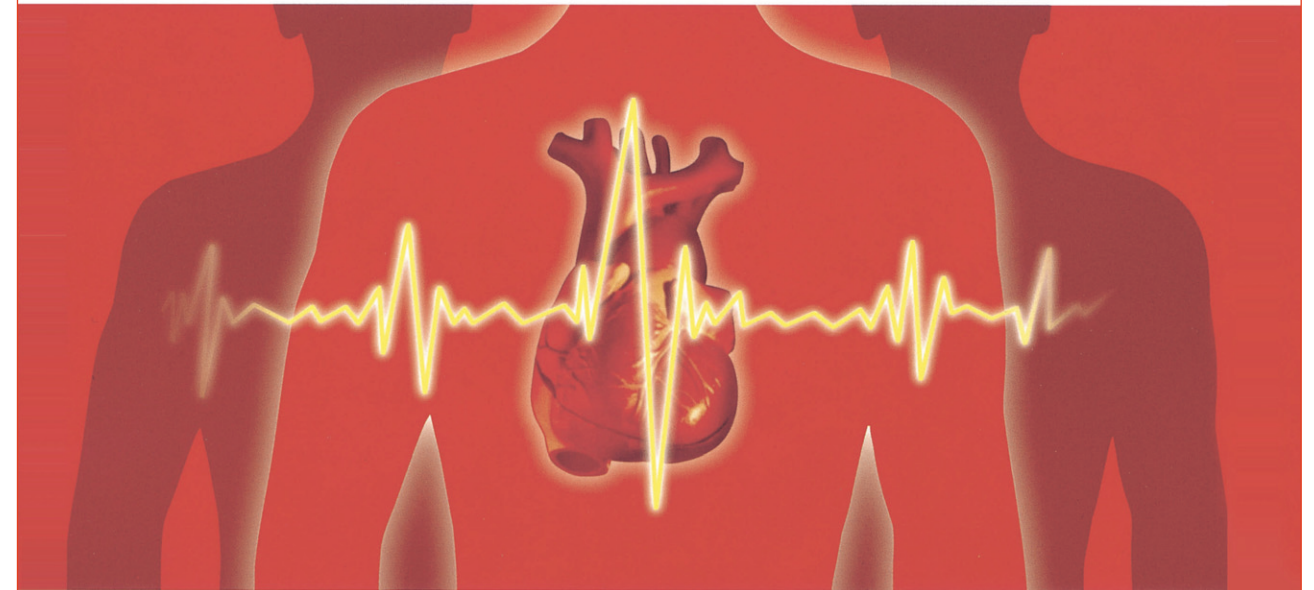
TEL : 053)422-0550, FAX : 053)426-9543



고지혈증 치료의 새로운 선택기준

# 심바틴정

Simvastatin 40mg/20mg/10mg



## 고지혈증 치료의 1차 선택제 - 심바틴정

### 심바틴의 우수성

- Total-C, LDL-C, VLDL-C, TG 농도저하 및 HDL-C 농도상승 작용의 우수한 효과
-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총사망률 30%, 허혈성 발작 위험률 34%, 심근경색 발병 위험률 37% 감소
- NIDDM 환자의 혈중 콜레스테롤치 저하로 심장질환의 위험성 감소

### 심바틴의 광범위성

- 고지단백혈증, 고중성지방혈증에도 뛰어난 효과발현

### 심바틴의 입증된 효과

-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  
Ref) Am J Cardiol 2000 Aug 15;86(4): 406-11, Indian Heart J 2001 Mar-Apr;53(2):172-6, Metabolism 2001 Mar;50(3):355-9, Arch Intern Med 1999;159:2661-7

